안양문화유적총람

시립평촌도서관
RF005813

안양시

산양문화유적총람

寄贈圖書

寄贈日	1996. 3. 19
寄贈人	안양시청 문화계

참
911.57
안630
=3

안양문화유적총람

안양시립평촌도서관
*** ***
제 5813 호

안양시

발 간 사

안양시장 **이 석 용**

향토문화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호응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고장의 역사적 발자취를 집대성한 〈안양문화유적총람〉을 발간하게 됨을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정리되어 최초로 발간되는 총람은 옛 선조들의 정신유산과 삶의 지혜가 서려있는 유적들에 대한 재인식으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하겠으며 급격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문화재와 사료들을 아끼고 보존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문화 개발과 육성의 기틀 조성을 위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향토문화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총람이 우리 안양의 과거와 미래를 결속시키는 주춧돌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총람의 자료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역사의 흔적이 스민 〈안양문화유적총람〉의 발간을 맞아 60만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애향심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행에 관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1996. 2.

여 백

산양문화유적총람

목차

발간사 ····· 5
일러두기 ····· 9
문화재종별번호 ····· 11
동별문화유적현황 ····· 13
성 ····· 17
사지 ····· 21
사찰 ····· 35
마애불 ····· 64
석불 ····· 67
석탑 ····· 73
부도 ····· 82
귀부 ····· 91
석조 ····· 94
당간지주 ····· 97
신도비 ····· 100
묘비 ····· 103
선정비 ····· 116
기념비 ····· 119
정문 ····· 125
고분 ····· 129
묘 ····· 137
선사시대분묘 ····· 209
도요지 ····· 218
위인선현유적 ····· 223
기타석조물 ····· 233
기타유적 ····· 258
유영수양관연명지도 ····· 278
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 279
마무리 ····· 283
참고문헌 ····· 281

여 백

일 러 두 기

안양시 관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이를 학술적으로 활용키 위한 목적으로 조사 발간된 문화유적총람은 지난 '94년 9월13일부터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

기초조사에서는 주로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94년 말에 기초조사보고서를 만들고 '95년부터는 세부적인 자료의 보강과 현장조사, 문헌의 대조 및 새로운 자료의 수집에 중점을 두어 방치되었던 각종 문화재 자료가 조사되었고, 특히 관내 금석문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와 탁본은 큰수확이 아닐 수 없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유적의 자료조사는 안양시의 지정, 비지정, 각종유물과 유적지를 조사 수록하였음.

○ 조사의 대상과 기준은

· 선사에서 근세까지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 중

· 동산문화재,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는 제외하였으며

· 문화재 자료의 기준은 191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 것을 조사하되 근세의 자료중에도 일부를 포함시켰다.

○ 문화재의 분류방법은 197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된 문화유적총람의 종별분류법을 근거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예) 안양지역의 사찰중 첫번째

0704 - 08 - 001

(지역번호 : 안양) (종별번호 : 현존고사찰) (수록순서)

○ 연표는 시대별 왕실연표후 서기연대를 ( )부기하였으며

○ 국한문을 혼용하되 문화재용어 및 불교 전문용어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글로 표기하였고

○ 이외에 안양시 관내의 동별문화재 현황과 별도의 문화유적 분포도를 수록하였다.

여 백

문화재 종별번호

번호	종별명칭	명칭에 따른 종류
1	성(城)	산성, 읍성, 부성, 도성, 농성, 라성, 전성
2	봉수(烽燧)	봉수, 봉화대, 봉수형대
3	진.보(鎭.堡)	진, 보, 돈대, 포대, 보류
4	전적지(戰蹟地)	대첩지, 격전지
5	궁(宮)	궁, 이궁, 별궁, 종묘, 사직단, 원병단, 쟁업원 및 부속건물
6	관가(官街)	성곽건물, 관가건물, 공공건물
7	사지(寺址)	폐사지
8	사찰(寺刹)	현존 고사찰 및 부속건물
9	마애불(磨崖佛)	
10	석불(石佛)	석불, 대좌, 광배등, 석불의 부속물 일체
11	석탑(石塔)	석탑 및 부재
12	부도(浮屠)	현사탑, 부도탑, 석종, 봉발탑 등 부도재
13	탑비(塔碑)	부도비 및 그 부재
14	석등(石燈)	석등 및 그 부재
15	조탑(槽塔)	조탑, 전탑, 모전탑 및 그 부재
16	석조(石槽)	
17	당간지주	당간지주(幢竿支柱)
18	신도비(神道碑)	
19	묘비(墓碑)	묘표, 묘갈
20	선정비(善政碑)	불망비, 청덕비, 공덕비
21	기념비(記念碑)	순수비, 기공비, 전적비, 사적비
22	충효비(忠孝碑)	효자비, 열녀비, 정열비, 정문, 정려위패, 충의단비
23	기타비(其他碑)	유허비, 경계비, 금표, 하마비, 척화비, 태실비, 문조비, 추모비
24	서원(書院)	서원 및 부속건물
25	향교(鄕校)	향교 및 부속건물
26	정.각(亭. 閣)	정자, 루각, 시사등
27	사묘(祠廟)	사, 단, 정원, 묘, 영당, 영자, 영전등
28	능.원(陵.園)	역대왕과, 비빈, 세자 후궁의 능, 원
29	태봉(殆封)	태봉, 태실
30	고분(古墳)	삼국시대고분, 석실분, 적석목곽분, 석곽분, 고려 조선조의 실명묘
31	묘(墓)	피장자가 알려진 묘
32	선사시대분묘(先史時代墳墓)	지석묘, 석관묘, 토광묘, 석광묘 등 선사유물이 출토되는 묘

번호	종별명칭	명칭에 따른 종류
33	선사시대유적 (先史時代遺蹟)	선사주거지, 선사유물 출토지, 분포지, 입석
34	패총(貝塚)	
35	요지(窯址)	도요지, 와요지
36	고가(古家)	민가의 고가
37	위인선현유적 (偉人先賢遺蹟)	위인선현 순절지, 생가 출생지 등
38	기타석조물 (其他石造物)	석교, 첨성대, 불연지, 노주, 석수, 석주, 석빙고, 석각, 수표
39	기타목조물 (其他木造物)	당집, 부군당, 성황당, 산신각, 치성당
40	기타유적 (其他遺蹟)	

동별문화유적 현황

동별	종별번호	명 칭	내 용
안양1동	07	사지	안양미륵당터
	37	위인선현 유적	원태우지사 생가지
	40	기타유적	안양행궁지
안양2동	08	사찰	망해암
	10	석불	망해암 미륵불
	38	기타 석조물	망해암 애각 불자
	40	기타 유적	만안교지
안양3동	37	위인선현 유적	최경환 성지
안양6동	38	기타석조물	원태우지사유물
석수1동	01	성	호암산성, 영랑성지
	07	사지	안양사지
			중초사지
			백련암지
			삼막골 사지, 뱀골사지, 장석광 사지
	08	현존사찰	안양사, 삼막사, 염불암, 망월암, 반월암,
			상불암
	09	마애불	삼막사 마애삼존불
	10	석불	삼막사 석불상
	11	석탑	삼막사 3층석탑, 망월암석탑,
			중초사지3층석탑, 중초사지 석탑부재
	12	부도	반월암 부도3기, 염불암 부도 4기
	13	탑비	안양사 귀부
	16	석조	삼막사 석조
	17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지주
	19	묘비	조란서묘표, 조하경묘표, 조하신묘표
	21	기념비	삼막사 사적비
	30	고분	석수동 석실분, 안양사뒤 석실분
	37	위인선현 출생지	하영홍과 삼막교회지

동별	종별번호	명 칭	내 용
석수1동	38	기타석조물	마애종, 삼막사감로정, 삼귀자,
			삼막사 암각화, 삼막사 주초석,
			삼막사 등곡대각자, 삼막사 신금대각자
			산주산왕 지위각자, 장석광지 주초석
			반월암 약사영천각자, 반월암 시주자명각자
			염불암 산신각뒤암각자
			매바위 나무아미타불각자, 백련암지 주초석,
	40	기타유적	삼막사 남녀근석, 차사김도령신위패,
			상불암 대웅전바위굴,
			삼막사 등곡굴, 삼막사 대고, 삼막교회지
	31	묘 (피장자가 알려진 묘)	진주하씨묘역, 창령조씨묘역, 조하신묘, 유유묘
석수2동	18	신도비	박서 신도비
	21	기념비	만안교 비문
	31	묘	박서묘
	37	위인선현유적	원태우지사 의거지
	38	기타 석조물	만안교
석수3동	40	기타유적	충훈부(관가터)
비산1동	19	묘비	유정현묘표 및 묘갈, 유팽석 묘표
	30	고분	비산동 석실분
	31	묘	문화류씨 묘역, 청송심씨 간묘
	38	기타석조물	평화보육원내 돌맷돌, 돌절구, 망주석
	40	기타유적	향교터(평화보육원)
비산3동	07	사지	불당사지
	08	사찰	불성사
	12	부도	불성사 마애부도
	16	석조	불성사 석조
	19	묘비	장언방 묘표, 장순 묘표, 이석근 묘표
			류덕옥 묘갈, 류작 묘표

동별	종별번호	명 칭	내 용
비산3동	31	묘	전주이씨 묘역, 전주류씨 묘역, 순창조씨 유사묘
			진주류씨 묘역, 덕수장씨 묘역
	35	요지	비산 도요지, 불당약수 도요지
	37	위인선현유적	이영래생가지
	38	기타석조물	불성사 만력십팔년조각자, 불성사 석물
	40	기타유적	퇴로정터
관양1동	19	묘비	이세규 묘표, 류영 묘표
	22	충효비	이의준처 풍양조씨 정려문
	31	묘	전주류씨 묘역, 전주이씨 묘역, 안동김씨 순묘
			광주이씨 세규묘
	38	기타석조물	삼산동천각자, 관양동 당집
관양2동	20	선정비	이태응 불망비
	40	기타유적	인덕원천교, 인덕원지
호계1동	40	기타유적	호계교
호계2동	10	석불	용화사 미륵불
	11	석탑	용화사 석탑(일명 : 안양역전석탑)
	37	위인선현유적	한홍이 생가터
	38	기타석조물	용화사 미륵불갓(보개), 창강서원 주초석
	40	기타유적	소호정지, 창강서원지
갈산동	32	선사시대분묘	지석묘 5기(자유공원)
	40	기타유적	갈산 주막지

여 백

성(城)

조선 세종때 양성지는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수 많은 성곽이 존재하고 있다. 정확히 언제 성곽이 지어졌는지 모르나 「사기」에 평양성의 존재를 언급한 바 대략 기원전 2세기로 추정한다.

성곽은 간단한 목책에서 토성으로 그 다음은 정교하며 경비가 드는 석성으로 발전하는데 18C 이후에는 서구실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 의해 벽돌을 사용한 성이 등장하며 정조때 화성(수원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성은 산악의 흐름을 이용한 삼국시대의 산성에서 고려때는 변방 위주의 장성, 이조때의 읍성 및 산성이 주류를 이르고 있으며 위치와 형태에 따라 도성, 산성, 읍성, 장성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삼국시대의 산성은 산봉우리를 감싼 퇴뫼형에서 후기에는 골짜기를 둘러싼 포곡형(包谷形)이 발달하는데, 영랑성과 포곡형의 호암산성은 삼성산 정상부 및 삼성산의 줄기인 호암산에 위치하며 영랑성은 안양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반면, 호암산성은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구로구 및 관악구의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산성내의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산93-2번지에 서울시에서 유적지에 대한 보호와 1989년 서울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비교적 그 성격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산성지이다.

반면 영랑성지는 삼성산 고산성이라고도 불리우며 옛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발굴조사가 없어 성의 존재마저도 의문을 가질 정도이다. 현재 삼막사를 중심으로 남북에 걸쳐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성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정이라 불리우는 우물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삼막사 뒤에 통신대가 위치한 봉우리를 중심으로 1차 우물지 확인, 2차 석축지의 확인 과정을 통하여 정밀한 세부조사를 거칠 경우 소규모의 형태나마 성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1. 영랑성지 (永郎城址)

종별번호 : 0704-01-001

시　　대 : 삼국시대

규　　모 : 약1.25km (신증동국여지승람)

소 재 지 : 삼성산 정상부 삼막사 부근 (석수동 산10-1 일원)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없음

재　　료 : 석축 및 토축

1530년 (중종25년)에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고적조에 「永郎城 : 石築在 三聖山 周三千七百五十尺 中有一池名大井」이라하여 삼성산에 석축으로 쌓은 둘레 3천7백5십척에 중앙에 대정이라 불리는 못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조때에 각도읍지 (各道邑誌)를 개수 편찬한 여지도서 금천현 성지조에도 「영랑성 : 삼성산에 오래된 석성터가 있으며, 언제 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둘레는 천칠백오십척이며 중앙에 대정이라는 한우물이 있다」라고 기록되었고, 금천현도 (衿川縣圖))에는 삼성산의 삼막사와 망월암 사이에 영랑성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또한, 1908년에 지은 육당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8절에도 「관악산 개인경을 우러러보고 영랑성 묵은터 바라보면서, 잠시동안 시흥역을 거쳐 가지고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라는 구절이 있어 삼성산에 영랑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영랑성의 터는 자세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위치와 규모 축조의 시기 등에 대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삼성산의 위치와 지리적 이유로 인해 외적으로부터 방어용 성이 남북으로 3개의 소봉과 연결되는 450~481m 높이에서 삼막사 부근을 감싸안도록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호암산성지(虎岩山城址)

종별번호 :

시　대 : 7~8세기

규　모 : 성벽터 1.25km 석축 300m

소 재 지 : 석수동~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서울시

재　료 : 석축 · 토축

호암산의 위치는 안양시 석수1동과 서울시 구로구 및 관악구의 경계로 조선 후기에는 衿川縣(후에 시흥현 · 시흥군개칭)진산으로, 시흥지방의 행정명인 衿州와 衿川은 이 산의 명칭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衿州山, 衿芝山으로도 불리웠다.

또한 강희맹(姜希孟 1395~1459)이 산 아래에서 살며 금양잡록(衿陽雜錄)을 저술한 이 곳은 일찌기 조선왕조 초에 시흥 현감을 지낸 윤자의 설에 의하면 산의 정상에 형태가 범을 닮은 바위가 있는데, 예로부터 한양도읍을 향하고 있어 호랑이의 기를 막기 위해 범뫼 아래에 호압사를 짓고 현재의 사당동과 봉천동의 경계가 되는 궁교산에 사자암과 궁교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호암산의 유래를 말하고 있는데, 이상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호압사와 활다리가 있는 궁교산 및 사자암이 이를 입증하여 준

호암산성 석구지, 일명 : 한우물(서-동)

다.

호암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사적 제 343호 호암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고적조에 「석축이며 둘레 천육백팔십일척에 성안에 큰못이 있어 날이 가물면 기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89년 서울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그 성격이 밝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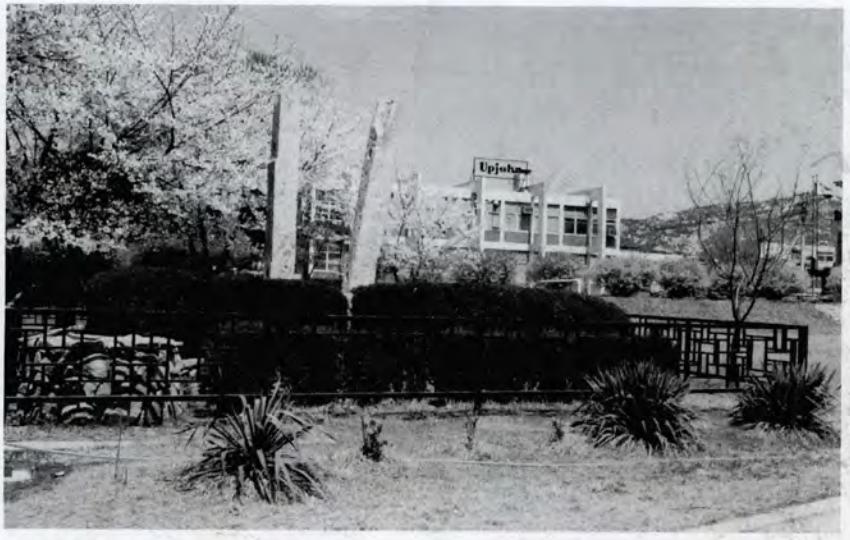
호암산성의 형태는 남북의 길쭉한 마름모꼴이며 해발 325m 능선에 축조되었고 석축은 15단에 높이는 2.5m가량이며 축성법은 신자형(臣字形)의 어긋나기 수법이다. 발굴과정 중 두개의 우물지에서 잉대내(仍大內)라는 명문기와 와 제2우물지에서 「仍代內力只乃末」이라는 명문 청동 숟가락이 출토되어 축성시기를 하한이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으로, 중심연대는 7~8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호암산 성內에는 고종 2년에 경복궁의 화기를 막기 위하여 구리용을 넣었다는 석구지(일명 : 한우물)와 석구상이 함께 보존되어 있다

호암산 석구상 (북-남)

사지(寺址)

현재까지 조사된 안양지역의 폐사지는 8군데로서 삼성산 및 관악산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문헌상의 사지와 기록되지 않은 사지를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사지 중에는 안양 미륵당지처럼 도시화 과정중에 완전히 묻혀버린 사지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조사된 사지중 주목되는 곳은 장석광 사지인데 장석광 사지는 중초사지 북쪽으로 있으며 중초사 당간지주와 탑의 위치로 볼때 삼국시대의 가람배치인 남탑북당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혹 장석광사지가 중초사의 북쪽에 해당하는 연관된 건물지이거나 또는 중초사 이후의 새로운 사찰지일 가능성도 짐작되어진다.



중초사지 (동→서)

1. 중초사지(中初寺址)

종별번호 : 0704-07-001
시　　대 : 통일신라시대
규　　모 :
소 재 지 : 석수1동 212-1
지　　목 : 대지
관 리 자 : 유유산업
재　　료 : 토축 및 석재

중초사지는 1960년 유유산업이 건립된 후 유유산업 구내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960년 이전까지 이곳은 포도농장이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보물4호 당간지주의 명문에 의하여 중초사지였음이 확인되었다. 건립시기는 당간지주가 흥덕왕1년인 826년에 돌을 채취, 이듬해인 흥덕왕 2년, 827년에 완성했다는 당간기(幢竿記)에 의해 사찰 또한 826년 이전으로 추측되며 함께있는 삼층석탑의 양식이 고려시대로 추정되 사찰 또한 고려시대 이후에 폐사된 것으로 추측되나, 고려시대 이후에 기록 또한 없어 가람의 배치와 규모 또한 알수가 없다.

현재 유유산업구내와 주변지역에서 소량의 와편과 전돌 자기편, 지대석들이 눈에 띄며 특히 유유산업에서 보관중인 와당과 청동용두, 토기편 등은 상당히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현존하는 삼층석탑과 주변지역에서 발견되는 석탑면석의 본래 위치 등이 확인됨에 따라 중초사의 개략적인 가람배치는 전형적인 남탑북당의 구조에서 고려시대로 넘어와 가람의 증축과 함께 쌍금탑 양식으로 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며 중초사 북쪽의 장석광 사지와 함께 차후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안양사지 (安養寺址)

종별번호 : 0704-07-002

시　　대 : 신라 효공왕 3년(900년)

규　　모 :

소 재 지 : 석수1동 산27

지　　목 : 종교용지

관 리 자 : 안양사 주지 이영심

재　　료 : 토축 및 석조

오늘날 안양시의 지명 유래와 관련이 있는 안양사지의 安養이란 뜻은 불가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국토, 즉 아미타불의 세계로서 극락세계의 별명인 극락정토, 극락국토를 지칭하는 말로 현세의 세상인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간 곳에 있다는 아미타불의 정토인데, 이곳은 아미타불이 지금도 있어 항상 설법하며, 모든 일이 원만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자유롭고 안락한 이상향의 세계 즉 安養世界를 말한다.

이러한 사찰명의 내용과 함께 유래된 안양사지는 신라 효공왕3년(900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 남쪽을 정벌하러 지나던 중에 삼성산 꼭대기에 오색구름이 채색을 이루자 이를 이상히 여겨 가보던 중 능정이란 스님을 만나 사찰을 세우니 이 사찰이 안양사라 전하여 진다.

안양사지 출토 용두와편

그후 태조는 사찰남쪽에

7층 전탑을 세웠는데 후대에 비바람에 씻기어 무너지게 되자 최영(1316~1388)장군이 우왕7년(1381년)에 중수하고 이후 조선조 중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는 1381년 8월에 공사를 시작 10월에 낙성을 하였는데 왕께서 내시를 보내 향을 내렸으며 승려천명이 불사를 올리고, 대중에게 시주한 것이 무려 3천명에 사리(舍利) 열둘과 불아(佛牙) 하나를 탑속에 봉안한 후 탑의 네 벽중 동쪽은 약사회, 남쪽은 석가열반회, 서쪽은 미타극락회, 북쪽은 금경신중회상을 그리고, 행각 12간에 벽마다 12행년불과 함께 역군이 4백명이 넘었으며 쌀이 5백95섬, 콩이 2백섬, 베가 1155필이 소요되었다 하여 대규모의 중수식과 함께 큰 사찰이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태종11년(1411년)9월 12일에는 태종이 충남 온양으로 온천욕을 가던 중 안양사에 들렸다는 기록과 함께 안양사에 관한 글이 여러 수가 전해지고 있으며, 사료 조사중 만난 김덕윤 노인(65세)에 의하면 30살 때 현재의 안양사 공사에 참여한 잘 아는 목수 한사람이 공사중 땅속에서, 안양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향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전하여 준다.

3. 백련암지(白蓮庵址)

종별번호 : 0704-07-003

시　대 : 1889이후

규　모 :　·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삼막사 주지 이종성

재　료 : 석축 · 토축

삼막사 경내에서 우측 계단을 오르면 사적비 우측에서 등곡대 부근의 지역으로 이조말 종두법을 실시하여 유명한 池錫永의 형 白蓮 池雲英(1852~1935)이 삼막사 주지로 있으며 지은 암자이다. 지운영은 20세 전후에 이미 神童으로 통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으며 시 · 서 · 화는 물론 유불선에도 통달한 명사로 30세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신학문을 접하기도 하였다.

1977년 이전의 백련지 모습 (서→동)

고종 23년(1884년) 갑신정변으로 일본으로 망명한 독립당의 김옥균을 암살하라는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옥균을 암살하지 못하고 요코하마에서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었다가 평안도 영변으로 유배를 갔다. 그후 고종26년인 1889년 풀려나와 삼막사에 백련암을 짓고 은거하며 여생을 시·서·화로 보냈다.

백련암지는 1970년대까지도 암자터와 백련지라고 각자된 연못 등이 있었으나 1977년 7월 대홍수로 인하여 매몰되었으며 白蓮池라고 새겨진 바위도 함께 매몰되었다.

현재 백련암지는 사각의 주초석과 연못터, 석벽 등이 남아 있으며 지운영이 쓴 삼귀자 각자가 백련암지 우측에 남아있다.

4. 장석광사지 (長石鑛寺址)

종별번호 : 0704-07-004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소 재 지 : 석수1동 236-7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없음

재　　료 : 석축 · 토축

장석광 사지는 비산유원지 주차장뒤 안양보육원에서 서북쪽 방향인 장석광내에 위치한다. 장석광은 자기류의 원료가 되는 장석을 채취하는 곳으로 현재에도 장석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왜정시절부터 장석을 계속 생산한 것으로 보아 장석광사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지의 형태가 파괴된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이곳의 현재 상태는 동서 70~80m, 남북 50~60m에 걸쳐 각종 와편과 자기류가 수습되며 축석은 막쌓기 수법에 높이 4m, 길이 5~6m의 5~6단 석벽이 남쪽으로 2곳에 축조되었고 화강암 주초석이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주초석은 외면에 문양은 없으나 주좌의 지름이 25cm로 꽤 큰 건물이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습물은 용문양 암막새 편과 내용을 알 수 없는 명문기와편 및 청자, 백자편이 출토되며 사지의 서쪽으로 두 곳에 기단부가 노출되어 있어 지대석을 살필수가 있는데 기단돌의 방향과 석벽의 방향은 모두 남쪽인 유유산업 방향

장석광사지 상부석축. (남→북)

장석광사지 출토 암막새

이며 현재에도 채굴중인 장석굴의 입구부분이 주요 건물지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장석광의 채굴로 인해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이곳에서 유유산업 당간지주와 거리는 약 150m의 거리로 현지주민 박대천씨와 과거에 근무하던 김덕윤노인에 의하면 유유산업→갈맬산기도원→보육원→장석광지가 과거에는 평지의 밭으로 이곳에서 다량의 화강암석재와 유기그릇이 출토되었다고 말한다.

지금도 보육원 주변 하우스 부근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화강암 기단돌과 많은 와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유유산업내의 삼층석탑이 원래 북동쪽으로 50여m지점이 원래의 위치인 점을 감안할 때 장석광 사지의 위치는 중초사와 관련하여 금당 또는 강당이 위치하거나 아니면 중초사 이후의 새로운 사찰지이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중초사와 연관하여 좀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삼막골 사지(三幕谷 寺址)

종별번호 : 0704-07-005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소 재 지 : 석수동 산10번지 일대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삼막사주지 이종성
재　료 : 석축 · 토축

삼성산 입구 삼막부락에서 삼막사까지의 골짜기를 삼막골이라 부르며 삼막사 100여m 아래 좌측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삼막골 사지는 경사진 계곡을 보강하기 위한 석축이 동남과 남북방향에 걸쳐 높이 4m에 15m의 길이로 이어져 축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작은 건물지로 추측되는 집터가 있다.

삼막골 사지 수습 토기편

와편과 자기편이 사방 70m에 걸쳐 발견되고, 일설에는 이곳이 이막(二幕)이였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재로선 단정짓기가 힘들다. 석벽의 축조형태로 볼때 전체적인 건물의 위치는 서남쪽을 향해 건축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반월암 주지 안수인씨에 의하면 이곳에 불사와 관련된 석조유물이 있었으나 모두 도난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와편은 평기와 조각과 고려자기편 및 이조자기편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고려초기에서 이조 이후까지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 되어진다.

삼막골 사지 석축 (서→동)

현재 삼막골사지의 옛기록이나 구전에 의한 전설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불사와 관련한 유물이 도난 되었다고는 하나, 이곳이 비교적 외부인으로부터 차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탑부재나 기타 사찰 유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현황은 지표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이며 새로운 지표층의 형성으로 모두 묻히거나 또는 삼막사의 부속적인 건물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차후 세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안양미륵당지(安養彌勒堂址)

종별번호 : 0704-07-006
시　대 : 1699년 이전
규　모 :
소 재 지 : 안양1동 668번지 주변
지　목 : 도로 및 대지
관 리 자 :
재　료 : 콘크리트

미륵은 미륵보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도 바라내국의 바라문 집에서 태어나 석존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촌에 올라서 천인을 교화,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을 지나 사바세계에 출현,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으로 보처주)(補處)의 미륵이라 하며 현겁주)(賢劫)천불의 제5불(佛)로, 이 법회를 용화삼회주)(龍華三會)라 한다.

안양미륵당지는 지금의 안양역 앞 로타리 부근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1699년 과천현의 許奧가 저술한 과천현 신수읍지 불우조 마지막에 「안양 미륵 과천 서쪽 20리 안양벌 근길가에 있으며 몸 높이가 2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며, 권상노의 한국사찰전서에는 「안양암지 재경기도 시흥군 안양역전」이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안양역 구내에는 '81년까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탑이 있어 사찰지 임을 증명하는데, 현재 미륵불과 석탑은 안양시 호계동의 용화사로 이전 보관되어 있다.

주)보　처 :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이란 뜻, 곧 부처될 후보자, 보살의 수행이 점점 나아가 최후에 도달한 보살로서의 마지막 자리.

주)현　겁 : 이상적인 불가의 세계에서 맑고 깨끗한 범천의 하루는 인간세계의 4억3천2백만년인데 이를 1겁이라 한다. 즉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이 과거의

안양미륵당지, 안양역 앞 로타리 주변 (북→남)

대겁을 지나 현재의 현겁을 이룰때 1천부처가 출현 세상의 중생을 구제한다. (대겁은 4겁과 80중겁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0리 되는 성안에 겨자씨를 가득 넣고 장수천사람이 3년마다 한번씩 한 알을 가져가 겨자가 모두 없어지는 동안, 또는 가로, 세로, 높이 120리가 되는 돌을 장수천 사람이 3년마다 한 차례씩 3수무게의 옷자락으로 스쳐 돌이 모두 닳아서 없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주) 용화삼회 : 미륵보살이 성불후 중생을 3회의 설법으로 제도하는 법회, 즉 56억7천만년 후 용화수 아래서 성불후 화림원(華林園)에서 대중에게 경을 설파함.

7. 뱀골사지

종별번호 : 0704-07-007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석축길이 6m, 높이 2m
소 재 지 : 석수1동 산4-1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없음
재　　료 : 석축 · 토축

뱀골은 농대수목원의 비산도요지에서 우측의 관악산 불성사 길과 좌측의 삼성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뱀의 형상이라 하여 뱀골이라 부르는데 계곡의 끝에 넓은 평지와 함께 송림 사이로 사지터임을 증명하는 석벽이 세곳에서 발견됐다. 석축의 상태는 골짜기의 아래방향인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으며 쌓은 수법으로 보아 큰 사찰보다는 작은 암자 몇 채가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뱀골사지 석축 (남→북)

와편은 소량이 흙속에 묻혀 있으며 화강암 주초석재가 일부 눈에 띄고 주변에는 1950년에 조성된 묘2기가 방치되어 있다.

8. 불당사지 (佛堂寺址)

종별번호 : 0704-07-00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비산동 91번지
지　　목 : 임야
관 리 자 : 없음
재　　료 : 토축

비산2동 안날미에 위치한다. 불당사지라는 명칭은 이곳에 예로부터 불당이 있어 불당골이라 부르며 구전에 의해 약수터도 불당약수터로 부르고 있다.

불당약수터 100여m 아래로 내려오면 평지의 밭에서 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며 와편의 문양은 어골문 형태로 조선시대에 사찰이 존재한 듯하다.

불당사지 수습와편

불당사에 관한 기록은 한국 불교사전에 전국적으로 3곳이 있으나 기타 문헌에도 비산동에 불당사가 있었다는 기록은 아직 없어 별로 크지 않은 사찰인듯 하다.

사찰(寺刹)

사찰이란 스님이 거처하며 불상을 모시고 탑이 세워져 있는 집, 곧 절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근원지인 인도에서는 최초에 탑과 불상을 모신 동굴사원이 나타나나 중국·한국·일본에 있어서는 남북구조의 중심선에 탑과 금당, 강당이 배치되는데 이는 인도의 주변국 즉 남방불교에서 개인의 수행과 고행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소승불교에서, 불교의 교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불교의 깊은 뜻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대승불교의 건축구조로 발전하기 때문이며,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개인의 참선을 중요시하여 조용한 곳을 찾아 수도하는 암자가 있기도 하다.

사원건축은 부처님 당시에도 「죽림정사」나 「기원정사」와 같이 수도승이 모여 가르침을 받는 강당이 있었고, 부처님이 열반후 불신의 사리를 모아 보관한 탑이 등장한다. 탑은 부처의 무덤과 같은 것으로 사원의 중심적 건축물이며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쇼카왕때에는 전국에 약 84,000개의 스투파(stŭpa)가 등장하는데 수투파는 오늘날 탑의 범어로서 파리어로 탑파(thŭpa)또는 형태에 따라 파고다(pagoda)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후 부처의 모습 즉, 불상을 모신 금당이 세워지게 되며 완전한 사원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이를 나누면 탑과 금당이 없는 부처님시대, 탑이 절의 중심인 무불상시대, 탑과 금당이 존재하는 시대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탑과 금당이 존재하는 시기의 사원양식이 초기사원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원양식은 가람(枷藍)이라 부르며 이는 본래 승가람마(Sanghārāma)의 준말로 사원을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람형태는 산지가람과 평지가람으로 구분하는데 산지가람은 산악의 흐름을 이용하며 산지의 특성상 남탑북당의 장축구조가 꼭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반면 평지가람은 비교적 남탑북당의 배열이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372년 불교전래이후 시대별로 특성을 가진 가람형태가 나타난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고구려는 일탑삼금당식으로 평양의 청암리사지는 중앙에 팔각의 탑자리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금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백제를 거쳐 일본의 비조사지(596

년)에 같은 유형의 가람배치를 알 수가 있다.

백제는 일탑일당식의 전형적인 남북구조를 갖추며 동서로는 회랑이 연결되어 있는데 익산미륵사지와 부여정림사지는 그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양식을 합친형태로 일탑삼금당인데 황룡사의 경우 남으로부터 중문·탑·금당·강당이 북쪽으로 배열되어 있고 탑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금당이 연결되어 있다.

신라는 통일이후 일탑일금당에서 쌍탑일금당식으로 바뀌며 감은사와 불국사 등은 석조와 목조의 건축기법을 전통적인 한국건축의 자연미와의 조화속에 사상과 철학의 근본의식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우수한 건축물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사찰구조는 고려로 넘어오며 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동탑서금당의 형태나 서탑동금당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풍수도참설에 의해 사찰지리를 정하며 산지가람은 산의 지형을 따르되 중심건물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려의 숭불사상에 이어 조선조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해 사찰건축의 퇴조와 함께 고유의 민간신앙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되며, 이러한 속성은 불교 가람배치에도 영향을 주어 자유로운 양식과 함께 토속신앙이 결합된 칠성각, 산신각, 영산전 등의 건물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안양의 사찰

'95년 3월24일 현재 안양의 사찰현황은 18개종파에 78곳에 사찰이 있으며, 교직자가 135명 신자는 남 12,654명, 여 25,944명으로 총 38,598의 불교신자가 있다.

종파는 조계종(20)과 태고종(28)이 전체의 반을 넘으며 이중 나름대로 문헌의 기록, 사적 등에 의한 역사성을 간직한 사찰은 10여곳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은 삼막사, 안양사, 염불암, 망해암 등이다.

또한 사찰의 대부분이 1950년대 이후 증축 또는 신축된 사찰이며 전통사찰양식도 가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소규모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참고로 옛기록에 의한 안양지역의 사찰은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與地勝覽

衿川縣 佛宇

○ 安養寺 : 在三聖山寺之南有高麗太祖所建七層甎塔金富軾撰碑字缺……

○ 安興寺, 三邈寺, 望日寺, 聖住寺 俱在三聖山

○ 獅子庵在弓橋山

果川縣 佛宇

○ 淸溪寺在淸溪山有……

○ 百華寺在淸溪山……

○ 冠岳寺在冠岳山……

○ 觀音寺在冠岳山……

○ 松泉寺在修理山……

京畿邑誌 (시흥군 읍지와 같다)

始興君邑誌

○ 虎巖寺：虎巖蠶頭下一名虎壓寺謂鎭虎岩

○ 望月寺：三聖山

○ 三幕寺：三聖山

○ 念佛庵：三聖山

○ 聖住庵：北紫霞洞

果川郡邑誌 佛宇

佛者夷狄之鬼耳專尙虛無棄天倫爲說福田惑誣人世其爲近理亂眞者甚於老莊則固可已辛居之不暇而

今槪不能火其書人而容之於一域之間且有公家緩急之用故境內之佛宇 大小興廢

○ 觀音寺：在郡北十里冠岳山北麓

○ 佛聖寺：在郡北十五里冠岳山西麓

○ 花藏庵：寺在郡北十五里銅雀理

○ 謝身庵：寺在郡西二十里修理山底

○ 蓮臺庵：在郡西十里冠岳山南紫霞洞

○ 香雲庵：在郡東十里淸溪山西麓

○ 紫雲庵：在郡北二十里冠岳山南麓

○ 望海庵：在郡西二十里冠岳山南麓

○ 圓覺寺：在郡西十里廢久有址

○ 萬壽庵：在郡北十里冠岳山北麓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불우조

○ 안양사 : 삼성산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태조가 세운 7층 벽돌탑이 있고, 김부식이 지은 비명은 글자가 결락되었다. (이하중략)

○ 사자암 : 궁교산에 있다.

과천현불우

○ 청계사, 백화사 : 청계산에 있다. (이하중략)

○ 관악사 : 관악산에 있다. (이하중략)

○ 관음사 : 관악산에 있다. (이하중략)

○ 송천사 : 수리산에 있다.

경기읍지(시흥군읍지와 같다)

시흥군읍지

○ 호암사 : 호암산의 잠두 봉우리 아래에 있으며, 일명 호압사라고도 한다. 이는 호암의 기세를 누르려한 것이라 한다.

○ 망월사 : 삼성산에 있다.

○ 삼막사 : 삼성산에 있다.

○ 염불사 : 삼성산에 있다.

○ 성주암 : 북자하동에 있다.

과천군읍지

불이라는 것은 오랑캐의 귀신일 뿐으로 오로지 허무만을 숭상하여 천륜을 저버리고 복전을 말하여 인간세상을 어지럽힌다. 그 이치에 가까운 듯하고, 가짜와 진짜를 서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노장보다 심하다면, 진실로 편벽되어 거기에 거하는 것이 한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책들을 불태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 지역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공가의 완급의 쓰임이 있기때문에, 경내에 다음과 같은 불우가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절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 관음사 : 군의 북쪽 10리 지점, 관악산 북쪽 산기슭에 있다.

○ 불성사 : 군의 서쪽 15리 지점, 관악산 서쪽 산기슭에 있다.

○ 화장암 : 군의 북쪽 15리 지점, 동작리 북쪽 산기슭에 있다.

○ 사신암 : 군의 서쪽 20리 지점, 수리산 북쪽 아래에 있다.

○ 연대암 : 군의 서쪽 10리 지점, 관악산 남쪽 자하동에 있다.

○ 향운암 : 군의 동쪽 10리 지점, 청계산 서쪽 산기슭에 있다.

○ 자운암 : 군의 북쪽 20리 지점, 관악산 북쪽 산기슭에 있다.

○ 망해암 : 군의 서쪽 20리 지점, 관악산 남쪽 산기슭에 있다.

○ 원각사 : 군의 서쪽 10리 지점에 있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고 있던 터만 남았다.

○ 만수암 : 군의 북쪽 10리 지점, 관악산 북쪽 산기슭에 있다.

1. 삼막사(三幕寺)

종별번호 : 0704-08-001

시　　대 : 신라문무왕 17년 (677년)

규　　모 : 건물규모 157평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삼막사 주지 이종성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전 신라 문무왕 17년(677년)원효, 의상, 윤필 등 세 사람이 암자를 지어 정진한 것이 삼막사의 근본이며 삼성산이란 산이름도 만들어 졌다한다. 그후 도선국사(827년~898년)가 불상을 모셔 관음사라 부르다가 고려태조에 의해 전국에 500여개의 사찰을 짓는데 삼막사도 그중에 하나이다. 사찰이 융성해짐에 도장의 짜임새가 마치 중국의 소주에 있는 三邈寺를 닮아 삼막사라 부르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三幕으로 바뀌었다. 그후 고려 충무왕 4년(1348년)나옹대사가 이곳으로 오고 인도승려 지공이 이곳으로 오니 선풍이 크게 일었다. 조선조에는 태종 7년에 왕명으로 사찰을 대중창하고 이때 불전3동, 요사5동, 어실1동, 봉향각 1동, 누각과 문간 각 1동, 대 2곳 및 비와 탑각 1등을 보수하고, 주변의 암자인 망월(望月), 염불(念佛), 망해암(望海菴) 등의 암자도 함께 수리하였으며, 선조 25년(1592년) 왜구가 침범하여 절에 불을 질렀으나 법당 건물이 타지 않으니 왜구 스스로가 참회하고 떠났다 한다.

그 후 고종 17년(1880년) 의민스님이 化主로 명부전을 중수했고 다음해에는 金周容형제의 시주로 칠성각 신축과 1896년 응월대사(應月大師)가 대웅전을 중건하고 1935년 안원오(安元旿) 주지가 대웅전과 망해루를 중수했으며, 다음해에 영산전, 명부전, 산신각을 이듬해엔 칠성각을 고쳤다. 이상의 내용은 삼막사에 보관중인 삼막사 사적의 기록에 의한 것으로 그 이후 1973년 李知幻스님이 주지로 부임후 건물중수와 道場을 일신하였는데 1990년에 화재로 인하여 문화재자료 38호인

대웅전과 대웅전에 보관중이던 지방문화재 95호인 인조3년(1625) 명문의 동종, 지불(紙佛)로 제작된 조선시대의 준제보살이 그만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 삼막사내의 범종각 등은 근래에 신축된 건물이며 조계종 용주사의 말사로 승려 3명에 종사자가 4명 신도는 6000여명 이다.

육관음전 :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육관음보살, 목조관음 및 나한상, 관음보살탱화 (20평)

망 해 루 : 정면5칸, 측면3칸, 맞배지붕,
대고, 목불상, 김도령신위패 (2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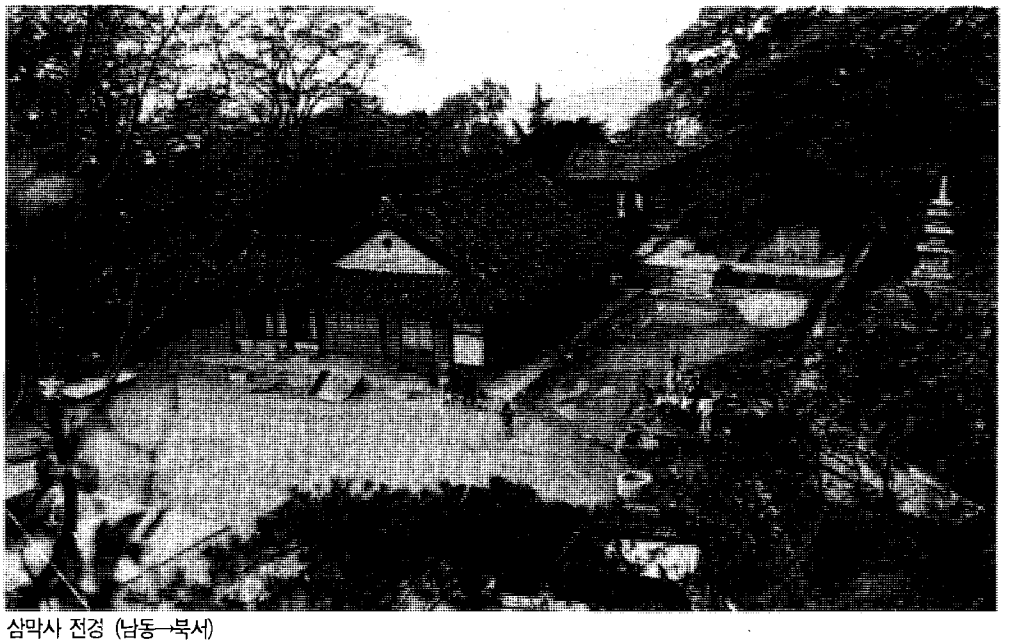
명 왕 전 :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지장보살, 10대명부왕,
지장탱화, 도명존자, 무독귀왕상 (10평)

범 종 각 : 정면4칸, 측면2칸, 맞배지붕,
대고, 범종, 운판, 목어

요 사 1 : 정면6칸, 측면4칸, 팔작지붕 (4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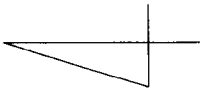
요 사 2 : 정면3칸, 측면2칸, 슬라브 콘크리트조, 조왕탱화 (54평)

칠 성 각 : 정면1칸, 측면1칸, 우진각2단지붕, 마애삼존불 (4평)



삼막사 전경 (남동→북서)

○건물배치도



삼층탑
석불상
감로정

육관음전

명왕전

◦ 등곡굴

◦ 칠성각

◦ 암각화

◦ 등곡대 ◦ 삼귀자
◦ 신금대

◦ 백련암

요사1

범종각 망해루 요사2

1. 삼막사 명왕전(三幕寺 冥王殿)

종별번호 : 0704-08-001

시　　대 : 고종 17년(1880년) 중수

규　　모 : 10평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삼막사 주지 이종성

정면3칸, 측면1칸에 맞배지붕인 명왕전은 고종17년(1880년) 意旻스님이 수리하고, 1975년에 다시 증수하였다. 기둥위에 결구된 공포는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조선조 말기의 일반적인 주심포계이며 3량가구에 기둥 높이는 227cm이고 내부에는 우물천장을 설치 하였다.

명왕이란 죽은 이의 혼이 가는 세계, 즉 명부, 명도, 명계의 왕인 염마왕, 염라부의 대왕을 발한다.

명왕전 안에는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석존이 입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때까지 몸을 6도에 나타내어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의 중생을 관찰, 교화하는 높이 73cm의 개금된 지장보살과, 좌우로 크기 87cm의 도명존자 및 크기 95cm의 무독귀이왕이 있고, 밑으로는 약 95cm 크기의 목형 명부십왕상이 지존 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목조로서 민머리~~의 머리~~에 육계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네모진 얼굴의 이·목·구·비는 정제되어 있고 유난히 큰 백호, 적당한 귀와 삼도가 잘 어울려 위엄을 자아낸다. 통견법의에 옷주름은 형식적으로 표현되었고 수인의 오른손은 가슴부분으로 올렸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직선에 가까운 양무릎과 양어깨 등은 전체적으로 비례는 좋으나 생경한 느낌의 얼굴과 숙인듯한 자세, 도식화된 옷주름 등은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이 佛像은 1974년 李知幻주지가 개금 하였다.

삼막사 명왕전 (남→북)

또한 지장보살상 뒤에는 염불암에서 불기 2955년(1928년) 무진 팔월초파일에 기증한 지장보살 탱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명왕전은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60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 명왕 : 명왕은 사람이 죽어 7일마다 7번인 50일째, 100일날 즉소상과 대상의 10번에 걸쳐 각 시왕에게 생전의 모습을 업경대라 하는 거울에 비추어 죄과에 따라 심판을 하는데 이곳의 시왕(十王)을 명왕이라 하고 지장보살은 죽은이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구원하는 지장신앙이 명부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 삼막사 칠성각 (三幕寺 七星閣)

종별번호 : 0704-08-001

시　　대 : 영조 40년 (1764년)

규　　모 : 약 2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삼막사 주지 이종성

칠성각은 삼막사 본체에서 우측으로 40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정면1칸, 측면2칸 규모의 건물이다. 칠성각은 평지의 건물이 아닌 암벽에 마애불을 모시기 위하여 지어진 건물로 암벽3단으로 되어있는 것에 맞추어 건물 또한 3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건물 하대는 평지로서 기둥을 세워 본체 건물을 지탱시키며 중대의 기둥은 본체의 건물과 이어지면서 상대의 기둥과 함께 2층 형태를 유지시켰다. 기둥은 중대까지는 석주로서 110cm이며 증대는 317cm 원목주를 세웠고 상대는 35cm의 짧은 기둥이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 형에 2단 구조를 지니고 있다.

칠성각 옆에는 「조선국 금천현 삼성산 칠성전」이란 명문에 시주자의 성명, 생년, 「건륭29년 갑신구월」이라는 명문과 「칠성각신중건, 광서칠년신미9월」이라 각자 되어있어 건물 신축이 영조 40년(1764년)이며, 증건이 고종 18년(1881년) 임을 알 수가 있고, 原文은 다음과 같다.

○ 초창명문

朝鮮國衿川縣三星山七星展

佛像法堂新建大施主秩

金萬眞

…… 시주자명

乾降二十九年甲申九月日

大功德主悟心上佐別座進察

삼막사 칠성각 (남→북)

○ 중건문

七星閣新建重建大施主

乾命辛亥生金周容

…… 시주자명

以此功德往生淨土

光緒七年新辛巳四月日

주) 칠성 :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으로 칠성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았다하여 이것을 곧 칠성여래 칠원성군이라 한다. 일(日),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의 일곱성군이 인간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무속적 신앙이 이 불교사상과 접목이 되어 사찰에 별도의 칠성각이 지어진다.

2. 안양사(安養寺)

종별번호 : 0704-08-002

시　대 : 고려초

규　모 : 건평 175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27(태고종)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안양사 주지 이영심

고려때 태조왕건이 능정이란 스님을 만나 사찰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안양사는 현재 대부분의 건물을 1960대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이며 과거 사지의 흔적으로는 귀부와 부도1기가 있다.

비구승 2명에 종사자 1명 신도수는 2,500여명이며 안양사지에서 사략을 기록하였으므로 사찰현황과 함께 고려때 시인 김극기(金克己)가 남긴 한시 2편을 옮긴다.

○ "붉은 다리를 지나 감색(泔色) 불궁(佛宮)에 이르니, 조촐한 놀이가 다행히 부처 있는 곳과 함께 했다. 푸른 못에는 교교하게 가을 달이 잠겼고, 붉은 잎사귀에는 쓸쓸하게 밤 바람이 운다. 불사(佛社) 안에는 일찌기 사객[주](謝客)을 용납하지 않았고, 시냇가에서 다행히 도옹(陶翁, 도연명)을 맞이한다. 서로 이끌어 웃음 띄며 돌아가기를 늦추는데, 지는 해가 서쪽에 넘어가니 재(嶺)가 반쯤 붉다."

○ "파리한 말 몰아 서울을 지향하다가, 우연히 안양사에 들어 유속한다. 새벽닭이 처음으로 소리 치는데, 데운 밥 먹고 그윽한 골에서 나온다. 조각달은 옥고리처럼 나지막하고, 성긴 별은 금 좁쌀을 흩은 듯하다. 깊은 골짝 길은 성난 뱀이 오듯 꾸불꾸불 3백 굽이여라. 시냇물 얼음되니 새로 흰 것이 보태였고, 잿마루에 구름 끼니 본디 푸름이 없어졌다.

여윈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까칠하고, 파리한 아이는 거북이 등처럼 움추린다.

내 본디 풍진 바깥 사람으로서, 평생에 얽매임이 적었다. 10년 동안 산림(山林)에 놀 제, 건구(巾屨)로서 사슴을 좇았었네. 문득 조물(造物)의 속임을 만나 내 한가함을 오로지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명리(名利) 속에서 천리 길 행역(行役)이 괴롭구나. 어느 때나 인패(印佩)를 던지고 완적(阮籍)이 궁도(窮途)에서 울던 꼴 면하리."

주) 사객 : 진(晋)나라 시대에 혜원(惠遠)이란 중이 이 산에서 백련사(百蓮社)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 때에 태자빈객(太子賓客)이라는 벼슬하는 사령운(謝靈運)이라는 사람이 참례하려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주) 완적 : 위나라 사람 완적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힌 곳에 당도하면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건물배치도

◦미륵불상

산신각 칠성각 천불전

◦공적비
◦공적비
◦공적비

종각 대웅전 종각

◦부도 ◦귀부

신검당

요사 명부전

산신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산신탱화, 나한상 (6평)

칠성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칠성탱화 (2평)

천불전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천불상 (9평)

대웅전 : 측면2칸, 정면4칸, 맞배지붕, 겹처마
미륵보살, 칠성탱화, 산신탱화 (18평)

신검당 : 측면2칸, 정면5칸, 팔작지붕, 겹처마
관음보살, 관음보살탱화 (51평)

명부전 : 측면2칸, 정면4칸, 맞배지붕
지장보살, 십대왕상, 지장탱화(12평)

요 사 : 목조와가 (74평)

종 각 : 정면 · 측면 각1칸, 사각지붕 (2평)

부 도 : 고려시대 부도재 (비지정)

귀 부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

안양사 전경 (남→북)

3. 망해암 (望海庵)

종별번호 : 0704-08-003

시　　대 : 신라

규　　모 : 건물지 약108평

소 재 지 : 안양2동 55-14 (조계종)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망해암 주지 최인식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의 말사인 망해암은 조선 영조때 신경준(申景濬)이 지은 가람고[주]에도 기록이 되어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망해암 경내에 있는 안양 망해암 사적비의 기록을 보면 신라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미륵부처를 조성해 사명을 망해암이라 하던중, 조선 태종7년(1407년)에 증수 되었으며 순조3년(1803년)홍대비의 증수와 철종14년(1863년)대연화상이 증수했다. 그후 박호남 스님이 법당 요사를 증수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것을 유청봉 스님이 용화전, 요사, 삼성각을 재건하고 1973년 서보경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사적비를 세우는 등 도량을 일신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세종때 삼남지방에서 한성으로 오던 여러척의 곡물선이 인천 앞바다 팔미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뒤집힐 지경 중에 돌연 뱃머리에 스님 한 분이 나타나 배를 안정시키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선원일행이 스님의 거처를 물으니 관악산 망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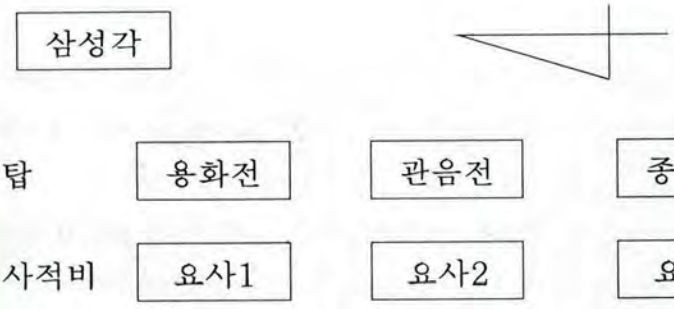
망해암 용화전 (서→동)

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 후 망해암을 찾은 선원들이 법당앞에 모셔진 불상이 스님의 용모와 닮음을 알고 놀랐으며 이를 아신 대왕께서 매년 한 섬씩의 공양미를 불전에 올리도록 하였다는데 그후 400년이나 계속됐다고 전하여 진다.

현재 망해암의 건물 대부분은 1960년 이후 새로 신축·증축한 것이며 탑과 사적비 범종도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스님은 1명에 종사자 1명, 신도수는 약 1,500명이다.

주)가람고(伽藍考) : 우리나라의 사찰에 관계되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책

○건물배치도



삼성각 : 정면·측면 각1칸, 맞배지붕, 칠성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 (3평)
용화전 :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겹처마, 미륵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12평)
관음전 :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신중탱화 (6평)
종 각 : 정면·측면 각1칸, 맞배지붕 (2평)
요사 1 :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3층 (51평)
요사 2 : 정면3칸, 측면 2칸, 맞배지방, 조왕탱화 (22평)
요사 3 : 정면2칸, 측면 1칸, 맞배지붕 (11평)
탑 : 화강암 높이 4m
사적비 : 화강암 높이 2m

4. 염불암(念佛庵)

종별번호 : 0704-08-004

시　　대 : 고려초

규　　모 : 건물지 158평

소 재 지 : 석수동 341번지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염불암 주지 오능수

조계종인 염불암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926년에 남쪽을 치기위하여 지나 가던 중에 능정대사를 만나 절을 지어드리고 이름을 安興寺라 하니 곧 염불암의 시초라 전하고 있다.

조선 때에는 태종 7년(1407년)에 한양의 백호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천기맥을 누르기 위해 왕명으로 사찰을 중건할때 염불사도 중창이 됐으며 철종때에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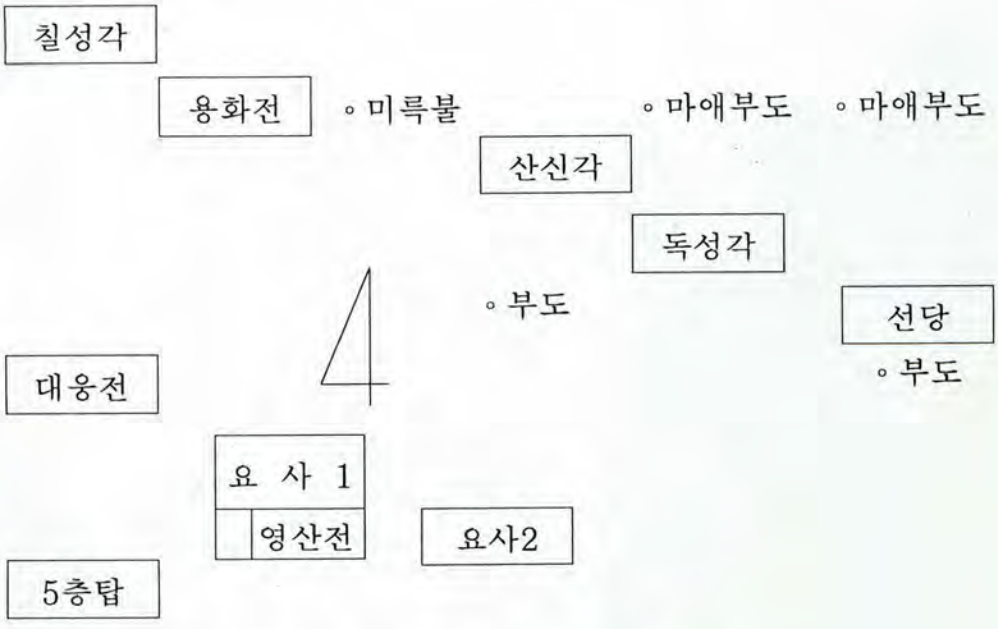
염불암 전경 (남서→동북)

도인 스님이 칠성각을 지은후 1904년에 중수와 그 이후에 대부분의 건물을 또 다시 증수 또는 신축하였으며 1932년에는 산신각을 1941년에 대웅전과 칠성각을 중수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1947년 성공 기석화상이 주지로 부임하여 낡고 퇴락한 전각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어려운 중에도 불사준비를 하던중 1960년 꿈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마애불상을 새겨 널리 중생을 구제하라는 계시를 받고 1664년부터 5년의 불사끝에 미륵불을 완공하였다고 한다.

현재 염불암의 건물 등 대부분은 1910년 이후 근래에 지어진 것이며, 일설에 원효, 의상, 윤필거사 세 분이 이 산에 들어와 염불암에는 윤필거사가 연주암에는 의상대사가 삼막사에는 원효대사가 각각 수도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교직자는 4명이며 신도는 약 4000여명이다.

○건물배치도



칠성각 : 정면2칸, 측면1칸, 맞배지붕, 칠성탱화 (6평)

용화전 : 정면 · 측면 각1칸, 우진각 500나한상 (2평)

산신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독성탱화, 산신탱화 (2평)

독성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독성탱화 (2평)

대웅전 :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높이 120㎝, 석가모니불 높이 72cm,
문수보살 높이 77cm, 보현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15평)

요사 및 영산전 : 정면4칸, 측면2칸, 팔작지붕,
45cm높이의 삼존불 및 30cm높이의 16나한상 (34평)

요사2 : 콘크리트 슬라브조2층 (82평)

선 당 : 측면2칸, 정면3칸, 맞배지붕(10평)

부 도 : 조선시대 석종부도 2기 및 마애부도 2기

석 탑 : 5층사리탑 (1978년조성) 높이 9m

미륵불 : 1968년 조성, 높이 8m

기 타 : 5평

5. 불성사(佛性寺)

종별번호 : 0704-08-005

시　　대 : 신라시대

규　　모 : 약40평

소 재 지 : 비산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불성사 주지 홍대봉

관악산 연주암에서 남쪽으로 1.24km지점에 있으며 종파는 태고종으로 1937년에 기록된 소화2년 불성사 약력에 의하면, 이 사찰은 신라 문무왕시절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조선시대 선조때인 1590년(선조23년) 서산대사가 증창후, 3차례의 화재를 당해 폐사가 된 것을 1936년에 주지 청운스님이 증건하였다.

불성이란「佛成, 佛性, 佛聖」이 세가지가 있는데 음양오행설에 관악산은 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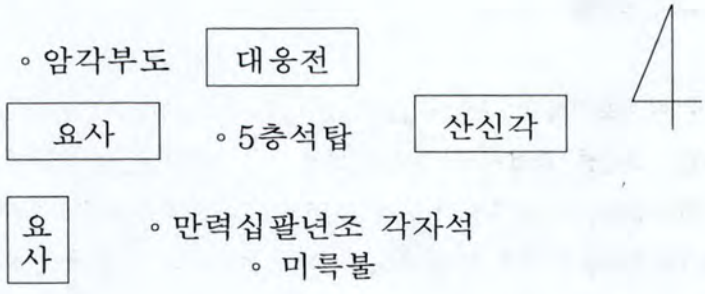
불성사 전경 (남→북)

이며, 불성사에 화제가 심하므로 成을 性으로 고치어 쓴다고 한다.

또 佛性이란 부처를 이를 수 있는 근본 성품으로, 본래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말하는 거룩한 말이며, 1699년 발행된 과천현 신수읍지 불우조와 1843년의 경기읍지, 1899년 과천군읍지 등에 모두 佛聖寺로 표기된 점을 보아 佛性寺란 명칭은 1899년 이후에 쓰여진 명칭임을 알 수가 있다.

현재의 모습은 1960년대부터 보수한 후 1970년대에 현재의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1986년 11월 11일 부처님의 眞身舍利塔이 건립되었고 승려1명에 종사자2명 신도는 약 600여명이다.

○건물배치도



대웅전 : 정면3칸, 측면2칸, 맞배지붕
석가모니불, 협시보살 (15평)

산신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산신탱화, 산신상, 약사불 (3평)

요사 : 토담슬래트 (20평)

기 타 : 2평

6. 망월암(望月庵)

종별번호 : 0704-08-006

시　　대 : 1407년 이전

규　　모 : 건평 30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망해암 주지 박해진

염불암에서 동쪽으로 1km지점에 위치한다. 대한불교 태고종 봉은사의 말사이며 정확한 창사연대는 알수 없지만 조선조 태종7년에 삼막사 중창시 망월암도 함께 수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에는 "망일사가 경기도 시흥군 삼성산에 있던 절이며 지금의 망월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망월암은 경기도 시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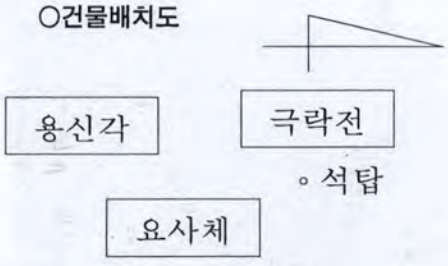
망월암 극락전 (동→서)

서이면 관악산에 있던 절로 1407년(태종7년) 신미(信眉)가 왕명으로 5층탑을 삼성산 서쪽에 세우고 망일사라 불렀는데 그후 망월암이라 개칭한 후 1779년(정조3년) 동호가 중창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신미는 조선조의 스님으로 혜각존자라 불렀고 도행이 훌륭하여 세조왕이 스승으로 대우할 정도이며 불전의 교정과 번역으로 여러 서적을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1530년에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불우조에 삼성산에 안흥사(安興寺), 삼막사(三邈寺), 망일사(望日寺) 등이 삼성산에 있다고 기록된 바, 안흥사는 염불암의 옛명칭이며(일설에는 안양사의 명칭이라고도 함)삼막사의 "막"은 三幕寺의 옛 "막"자이다. 망일사는 망월사를 칭함인데 망일은 해보기를 원함이고, 망월은 달보기를 원함이다.

그러나 영조때 발행된 여지도서 사찰조에는 각각 三幕寺, 念佛庵, 望月寺로 기록되어 아마도 200년 사이에 각사찰에 명칭이 바뀐 듯하며, 망월암에는 300년 이상된 소나무와 함께 법당 앞에는 고려시대로 추측되는 석탑이 남아 있으나 그외에 법당 및 부속 건물은 최근에 지워진 것으로 교직자 3명에 신도는 약 1500여명이다.

○건물배치도



용신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용신탱화
극락전 : 측면2칸, 정면3칸, 맞배지붕, 금불상 (10평)
요 사 : 콘크리트와가 (20평)

7. 반월암(半月庵)

종별번호 : 0704-08-007

시　　대 : 고려말

규　　모 : 건물지 약45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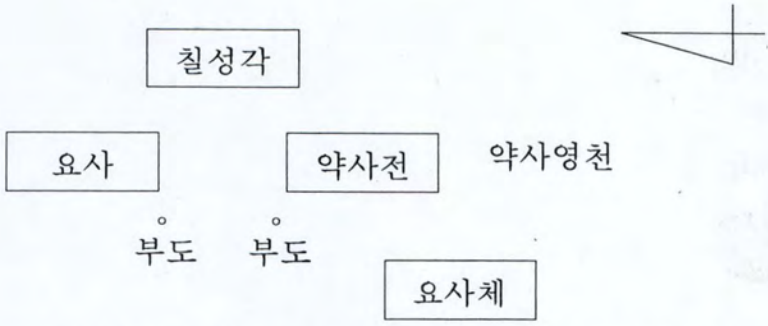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반월암 주지 안수인

삼막사 북쪽으로 100m 북서지점에 위치한다. 종파는 태고종이며 전하는 말에 고려말 나옹이 삼막사를 중창하려고 먼저 지은 절이 반월암이라 하며, 1919년에 원옹이 중수하였다. 이후 이곳은 여승의 수도장으로 전용되어 오던 것을 비구니 김일뢰 스님이 1924년 이곳에 정착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반월암이라 함은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 12시에나 해를 보고 밤 12시가 되어야 달을 보는데 각기 반씩 밖에 볼 수 없어 반월암이라 칭하며 교직자는 1명에 신도는 650여명이다.

반월암 약사전 (남→북)

○건물배치도



칠성각 : 정면 · 측면 각1칸, 맞배지붕, 후불탱화, 약사불 (3평)

약사전 : 측면1칸, 정면3칸, 맞배지붕, 약사보살, 지장보살, 산신탱화 (10평)

요 사 : 콘크리트슬래트 및 와가 (30평)

기 타 : 2평

8. 상불암(上佛庵)

종별번호 : 0704-08-008
시　대 : 1914년 이후
규　모 : 건물지 30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4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목조
관 리 자 : 상불암 주지 최성원

상불암은 태고종 산하의 암자로서 삼성산 높은 봉우리에 있어 상불암이라 칭한다. 오랜 전통을 지닌 사찰은 아니나, 로맨틱한 전설이 간직된 곳으로 일찌기 화성군 출신의 홍선관이 명기 지선녀와 1914년 3월부터 자연동굴(법당내에 있음)에서 수도를 하던 중, 1928년 정감록의 도참설을 믿던 태을교도 홍순택이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1929년 4월 16일 10시)에 성인이 나타나 왜놈을 몰아 내고 새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성인이 홍선관이며 그를 따르라 하였다.

이에 태을교도인과 동학도 75명이 상불암에서 순금 옥쇄 및 자금을 조달중 자금이 부족하자 용인에서 사전을 주조하다가 이모씨가 왜경에 고발하여 가담자가 체포되고 홍순택은 피신하였으며, 홍선관은 구속됐으나 무혐의로 석방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명기 지선녀(일설에는 홍선관의 처라고도 함)는 천석꾼 천명을 녹인 명기였는데 크게 깨달은바 있어 잉여된 애욕을 누르고자 마음에 불은 불산에서 끈다하여, 가산을 정리 상불암에서 수도를 하며, 때로는 괴성과 통곡으로, 때로는 처량한 음율로 자신을 달래며 시련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동혈(洞穴)은 보잘것 없으나 명기가 기거하며 해방전까지 옥 같은 손에 호미 한 자루로 화전을 일구고 일생을 조식으로 연명하며 관세음보살을 외웠다고 한다.

상불암에는 그 당시의 동굴에 홍선관, 지선녀의 위패를 모시며 교직자 1명에 신도는 약 200여명이다.

상불암 대웅전 (북-남)

○건물배치도

칠성각 | 대웅전 및 자연굴 ◦ 홍선관, 지선녀 불망비

요사체

대웅전 :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석가모니불, 약사불,
홍선관, 지선녀 위패 및 사진 (10 평)

칠성각 : 정면2칸, 측면1칸, 맞배지붕 (5평)

요 사 : 콘크리트와가 (15평)

마애불(磨崖佛)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조선후기의 불상연구, 특히 마애불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얼굴이나 상체의 할달한 부조와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매우 파격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몸의 표현을 생략한 평판적이고 경직된 신체와 하부로 내려갈수록 얕은 기법 등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불상아래 건륭 28년 명문이 있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칠성신앙과 다산신앙이 결합한 불교와 민간신앙의 결합상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삼존불을 보호하는 건축물 또한 주변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우수한 건축물로서 앞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보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삼막사 마애삼존불(三幕寺磨崖三尊佛)

종별번호 : 0704-09-001

시　대 : 영조39년(1763년)

규　모 : 높이 200cm, 넓이 25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된 삼막사 마애삼존불은 삼막사 칠성각內 암벽에 형성된 높이 200cm, 넓이 250cm의 암벽을 13cm정도 파내어 부도로 조각한 삼존상으로 본존의 크기는 높이 150cm, 폭 66cm, 대세지보살은 높이 118cm, 폭 42cm, 관음보살은 높이 129cm, 폭 42cm이며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은 칠성각에 모셔져 있으므로 칠성전[주]의 주존인 치성광여래(약사여래)로 추정되며 좌우협시보살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다.

주존의 나발에는 중심부에 반달형의 발주와 이마에는 수정을 상징하는 백호가 있으며 코는 깨어져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두손은 발위에 올려진 상태로 보륜을 들고 있으며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위에 올린 반가부좌에 통견의 이며 가슴에 띠매듭이 보인다.

협시보살은 연화대 위에서 합장하는 형태인데 웃음띤 얼굴로 반가부좌의 형태는 본존과 비슷하며 머리에는 삼산관을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도는 적절하나 얼굴과 전신의 비율이 1 : 5로 두부가 크고 목이 짧아 옷속에 푹 파묻힌 형태인데, 이같은 양식의 특징과 함께 불상 하단에 조성명문이 있으며 내용은 「건륭28년 신미 8월일 화주오심 수시주서세준」으로 영조39년(1763년)에 화주자는 오심이란 승려이며 시주자는 서세준임을 알 수가 있다.

마애삼존불 (서→동)

주) 칠성신앙 : 칠성은 104위의 신중불법수호에 참여하는 호법신으로 한국전래의 토속과 중국의 도교신앙 및 불교신앙의 결집이라 볼 수 있다. 즉, 북두제1성은 자손에 만덕을 주고, 제2성은 재난을 물리치며, 제3성은 업장을 소멸하며, 제4성은 기복을 주고, 제5성은 백가지 근심을 덜어주며, 제6성은 복과 덕을, 제7성은 장수를 주는데 주된 구도는 치성광여래인 북극성이 주불이며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좌우협시보살이다.

석불(石佛)

역사적 기록과 전설을 간직한 석불중 미륵불이 2점이며 그외는 1점의 석불로서 석불은 삼막사에 미륵불은 각기 용화사와 망해암에 모셔져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망해암 미륵불과 용화사 미륵불은 원래의 모습이 아닌 시멘트로 보수되고 흰색의 페인트를 칠하여 원모습을 찾기가 어려워 이러한 점은 문화재의 보호차원에서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불상이란 불·보상 등의 형상을 돌, 나무, 흙 또는 금속으로 부어 형상화 하거나 종이에 그린 모든 것을 총칭하며, 불상을 조성하여 모시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계실때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흠모하는 정성의 신앙적 정신을 빌고 기도하는 행위로써 개인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망의 대상인 것이다. 또한 불상의 다양한 특성과 갖가지 모습, 동작, 표현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체의 중생구제라는 불심의 조화로서 가까이 보면 하나의 질서와 정돈된 체계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망해암 미륵존불(望海庵 彌勒尊佛)

종별번호 : 0704-10-00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254cm, 신폭 110cm

소 재 지 : 안양2동 산55번지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최인식

망해암 용화전에 봉화되어 있는 망해암을 대표하는 佛像으로 총높이, 보개를 포함 254cm이며, 보개는 27cm, 두고 76cm, 신폭 110cm, 측면폭이 50cm로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반신 일부가 묻혀있고 대좌는 없으며 나발[주]위에는 가로 130cm, 높이27cm의 보개를 쓰고 있다.

나발의 머리에 불완전한 육계[주]와 중심계주도 표현하고 있으며 이마에는 붉은색의 백호[주]가 있다. 초생달 같은 눈썹에 눈은 가늘게 치켜 올라갔으며 복스러운 코와 도톰한 입술로 부드럽고 원만한 표정을 지니며 길지 않은 귀와 법의는 통견에 굵게 음각선으로 옷주름이 파여 있고 수인[주]은 손가락을 모두 펴 왼손은 가슴 부위까지 올려 내장하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외장하고 있다. 정면에 옷주름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배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망해암 미륵보살과 관련하여 옛날에는 안양에 미륵보살이 셋이 있는데 한 분은 망해암 미륵불이며, 또 한 분은 용화사 미륵불, 나머지 한 분의 미륵은 현재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또한 망해암 미륵은 암미륵으로 갓이 머리위에 있으나 용화사 숫미륵은 갓이 자꾸 떨어져 시멘트로 갓을 만들어 썼는데 실제로 용화사 미륵갓은 미륵불 옆, 땅위에 있으며 쓰고 있는 갓은 시멘트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나발(螺髮) : 소라껍질 모양으로 틀어 올린 부처의 머리모양

육계(肉髻) : 부처의 정수리에 솟은 상투모양의 살덩이

백호(白毫) : 부처 이마위에 진주, 비취 또는 금을 박아서 놓은 것으로 부처의 32상 중에 하나.

수인(手印) : 불교에서 깨달은 진리를 상징하는 손의 모양.

망해암 미륵불 (서→동)

2. 용화사미륵불(龍華寺彌勒佛)

종별번호 : 0704-10-00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 5m
소 재 지 : 호계2동 산61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상덕

용화사 대웅전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입상석조 미륵불로, 3단의 사각보개에 이마에는 백호가 있다. 법의는 통견의며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 가슴에 올렸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온 상태로 간결한 옷주름과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륵불상이다.

이 미륵불상은 많은 영험을 지닌 불상으로 지금의 안양역 자리가 예전에는 미나리 밭이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꿈속에서 미륵부처를 본후 밭 가운데에서 불상의 돌갓을 발견하고는 지난 밤 꿈이 생각나 그 밑을 파보았더니 마침내 석조미륵불을 발견, 그 곳에 움막을 지어 미륵당이라 불리웠다. 또한 정조(1776년~1800년) 때 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 참배때 안양을 지나면 번번히 말이 발길을 때지 않았고 그 연유가 미륵부처에게 불공을 드리지 않은 탓이라 불공을 드리니 비로서 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전하여 진다.

대체로 우리나라 곳곳의 미륵신화는 이같이 신령한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데 이는 출현지가 과거로부터의 인연터임을 나타내는 미륵하생의 미래지향적 의미, 즉 불가에서 미륵이 용화나무 아래서 성불하면 용화세계를 이루는 과정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곳 용화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미륵부처를 모시고 정성을 다하는 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용화사의 미륵부처님 인연기는 다음과 같다.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관악산과 호계산의 정기를 함께 모은 이 곳 서기어린 명

당에 모셔오매(불기 2527년 4월2일) 수 많은 불자님들의 정신적 귀의와 무량대복을 심는 미래의 용화교주로서 그 영험을 나타내고 계시며 진리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감로수가 넘쳐흐르는 지극정신으로 부처님께 기도 드리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을 꼭 성취하여 주신다는 자비로우신 미륵부처님.

불기 2529년 1월 15일"

용화사는 1943년 현 본백화점 자리에 건물을 지은 후 1978년 전기누전으로 불타 버리자 1983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사찰로 용화사 미륵불도 안양역에서 함께 이전되어 왔는데 「과천현 신수읍지」에 나오는 安養彌勒在縣西二十里 安陽坪大路傍佛身高 二大許有字라는 안양미륵의 기록과 결코 무관치가 않다. 또한 미륵불 옆에는 그 옛날 미나리밭에서 나온 돌갓이 있는데 용화사 미륵불이 숫미륵이라 자꾸 떨어져 씌우지를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여 온다.

용화사미륵불 (남→북)

3. 삼막사 석불상(三幕寺 石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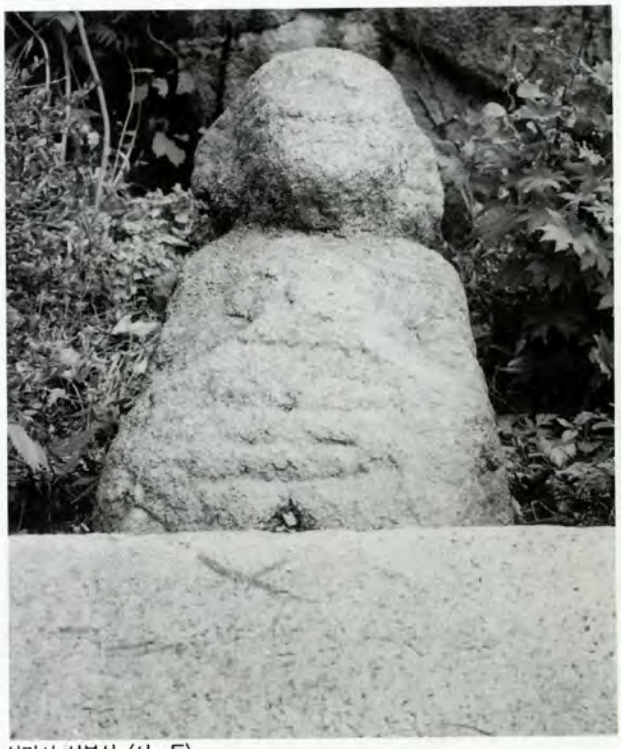
종별번호 : 0704-10-00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70cm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감로정 뒤 축벽위에 놓여있다.

문헌이나 사진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 것으로 몇 해 전에 근처 땅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화강암 석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석재가 너무 닮아 세부적인 형태의 파악이 힘들며, 육안에 의해 간신히 코와 입 등 외형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상태는 석불상을 올려 놓기 위해 바닥에 놓인 대석 위에 높이 70cm 좌상의 모습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고 있고 두 귀가 유난히 커 어깨 위까지 연결되었다.


삼막사 석불상 (서→동)

석탑(石塔)

현재 안양에서 조사된 4기의 석탑중, 원형의 보존이 양호한 것은 삼막사 석탑뿐이며 그외에 2기, 망월암 석탑과 중초사지 석탑은 옥신이 분실된 상태로 관리되어 있다. 물론, 삼막사 석탑의 경우도 상부 옥개의 상륜은 최근에 조성된 것이나 비교적 완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초사지 석탑과 함께 도지정문화재 및 보물로 보존되어 있다. 망월암 석탑의 경우는 석탑의 보다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석탑과 망월암의 관련 여부는 사찰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화사 석탑은 그동안 안양역전 석탑으로 불리워졌으나, 이번의 조사결과 동일한 석탑이며 1981년에 역 구내에서 안양1동 용화사로, 용화사 이전에 따라 호계동 용화사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화사 석탑은 안양역앞 로타리 지역의 미륵보살상과 함께 부근지역이 안양미륵당 터 임을 증명하는 석탑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곳에서 옮겨온 석탑의 일부와 함께 탑을 쌓아 완전히 변형된 형태를 취함으로 최소한의 모습도 파악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가능하 면 원래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문화적 보호와 연구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석탑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 제 위치가 아닌 것 등을 포함하면 약 모두 1000여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석탑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수백년동안 건립되온 한국 석조미술의 대표적 유산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드문 가장 자랑스런 불교 미술품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국의 전탑이나 일본의 목탑에 비해 한국은 화강암을 주재료로 하여 마치 진흙을 주므르듯 수많은 걸작품을 남겨왔는데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석탑으로는 전북 익산군 금마면의 미륵사지 석탑으로 백제 7세기로 추정하는 매우 귀중한 석탑이다. 한국의 탑은 초창기에 중국의 목탑양식을 본 딴 목탑에서 출발하여 7C를 전후해 백제에서 목탑을 본딴 석탑을 건조하기에 이르며 삼국통일을 계기로 경주감은사지 쌍탑과 고산사지 삼층탑에서 전형적인 한국의 탑을 대표하는 표본적인 양식이 나타난다. 통일신라 이후 고려는 불교의 숭배로 인하여 수많은 전탑과 석탑이 등장하나 조선으로 넘어와 숭유배불로 인하여 석탑의 기술 및 탑의 제작에 있어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 중초사지 3층석탑(中初寺址 三層石塔)

종별번호 : 0704-11-001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높이 222cm
소 재 지 : 석수동 212-1
지　　목 : 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1963년 1월21일 보물 제5호로 지정된 중초사지탑은 1961년 이전에는 현위치에서 북동쪽으로 60m지점에 위치하던 것을 공장건립과 함께 당간지주의 옆 현위치로 옮겨놓은 것이다.

전체높이 222cm로 지면에는 두꺼운 지대석이 놓이고 그 위에 2단이 별석이 고여있어 상층 기단부를 바치고 있다.

4매로 짜여진 기단중석은 원래 남면이 없던 것을 보수할 때 새로 교체한 흔적이 있으며 기단중석에 우주는 없으나 우주조각은 되어있다.

갑석은 2매판석이나 남쪽 일부가 깨어졌으며 옥신 1층과 옥개석 3층 만이 남아있다. 갑석 위에 1층 옥신석은 초층석으로 전체적인 균형이 옥신이 옥개보다 적어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3층

중초사지 삼층석탑 (서→동)

옥개석 위에는 보주를 세웠던 둥근 구멍이 남아있다.

중초사지석탑은 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며 1층 기단부 위에 별석으로 형성된 구조를 지닌 탑이다. 또한 북동쪽으로 60m지점에 위치하였던 것과 함께 유유산업 구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석탑의 부재가(면석으로 추정됨) 서쪽 60m부근에서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과거 중초사의 사찰위치가 남쪽의 당간지주와 함께 북쪽으로는 동서로 탑이 배치되고 현재의 하우스 지역 및 보육원 갈맬산 부근으로 법당이나 강당이 위치하였을 것을 짐작케 한다. 즉 남탑북당의 양식을 1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에게 말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2. 삼막사 3층석탑(三幕寺 三層石塔)

종별번호 : 0704-11-002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높이 255cm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삼막사 주지 이종성

塔은 원래 一塔一堂이라하여 탑이 당의 뜰 앞에 함께 세워지는 것이 원칙이나, 삼막사 탑은 禪室의 앞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는 탑의 성격이 기념적인 상징성에서 오는 것과, 사찰의 위치상 산악의 지세를 이용하다보니 법당의 좌측에 서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법당의 위치가 과거에는 현재보다 훨씬 뒤에 있었을 가능성도 짐작할수 있는데 아무튼 삼막사 삼층석탑은 고려 고종 19년(1232년)12월16일 김윤후 스님이 몽고장수 살리타이를 화살 하나로 쓰러뜨린 기념으로 세웠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으며, 높이는 상륜을 제외한 255cm로 현재의 모습은 1979년에 중수한 것이다. 기단부는 장대석 4매와 면석 4매로 하대를 만들고, 갑석은 하대 2매로 되어 있으나 상대갑석의 일부는 한쪽 모서

삼막사 삼층석탑 (북-남)

리가 깨어져 있다.

탑신부는 옥개석과 옥신석이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55cm 높이의 상륜은 1979년에 李知幻주지가 새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둔하고 무겁게 보이는 이 3층석탑은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탑으로 1983년 9월19일 경기도 유형문화제 112호로 지정받았다.

3. 망월암 2층석탑(望月庵 二層石塔)

종별번호 : 0704-11-003

시　　대 : 고려시대 후기~조선초

규　　모 : 높이 18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망월암 주지 박해진

망월암 극락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석탑은 양식적인 특징과 삼막사 사적에 의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조선초로 추정하며 탑의 형태는 1단의 하대 위에 2단 별석이 있고 별석 위로 면석이 있으며, 우석이 표현되어 있다. 상대 갑석 위로는 옥신 1층, 옥개석 2층만이 남아 있으며 2층 옥개석 위에는 잡돌이 올려져 있다.

하대에는 각면마다 연화문(蓮花文)이 3개씩 조각되어 있으며 하대 폭130cm, 옥개석은 각기 폭 100cm와 80cm이며 전체 높이는 잡석을 제외한 180cm이다.

망월암 2층석탑 (남→북)

4. 용화사 석탑(龍華寺 石塔)

종별번호 : 0704-11-004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높이 190cm
소 재 지 : 호계2동 산61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용화사 주지 이상덕

용화사 석탑은 그동안 문헌상에 안양역전탑으로 소개되어 있었으나, 1978년 6월에 용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상덕 스님에 의해 1981년에 안양역에서, 현재의 본백화점 자리인 용화사로 옮겨진 후 다시 현위치인 호계동 용화사로 옮겨지게 되었다.

또한 과천현 신수읍지에 소개된 안양미륵의 유래나, 권상노의 한국사찰전서에 기록된 安養庵地 在京畿道 始興郡 安養驛前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안양 미륵당지는 안양역 및 로타리를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탑과 미륵불이 한사지에 존재한 듯하나 정확히 알수는 없으며, 원래 안양역 석탑의 형태는 옥개석 2층, 옥신석 2층에 정상은 팔각대석의 2단괴임대 형태이며 기단부는 땅에 묻혔는데, 현재는 1장의 기단부 위에 서로 다른 3층의 옥개와 옥신이 올려진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탑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돌덩어리를 그냥 올려 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급히 원형의 모습으로 석탑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용화사 석탑 (동-서)

5. 중초사지 석탑부재(中初寺址石塔部材)

종별번호 : 0704-11-005

시　　대 : 신라~고려

규　　모 : 면석 가로 130cm, 세로 130cm, 두께 30cm

소 재 지 : 안양시 석수동 212-1

지　　목 : 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유유산업

중초사지 석탑부재는 유유산업 사내의 3층석탑 우측에 탑의 면석으로 추측되는 화강암 판석과 국기봉 주변에 면석 1점 등이 있고 사내 서쪽으로 역시 탑의 부재로 짐작되는 지대석과 면석 2점이 놓여 있다. 유유산업 서쪽 밭에서 60년대에 이곳으로 옮겨져 야외휴게소의 의자로 대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초사지 석탑의 원

중초사지 석탑부재 (서→동)

위치와 함께 신라~고려 때의 중초사 가람위치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3층석탑 우측면석은 가로세로 130cm에 두께가 30cm이며 양쪽으로 깊이 5㎝, 두께 15㎝의 직각 홈이 파여있다.

국기봉 주변 면석은 가로 130㎝, 세로 140cm에 역시 양면으로 15cm 두께에 5cm 깊이로 직각 홈이 파여 있어 삼층석탑 부재와 동일한 탑의 면석이 아닐까 짐작된다.

사내 서쪽의 면석2점은 가로 130cm, 세로 125cm, 두께는 25cm로 양면 홈은 보이지 않으나 땅에 묻힌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대석은 길이 256cm, 폭 50cm, 두께 20cm 규모이며 이밖에 3점의 석물이 함께 있어 차후 석조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중초사지 석탑부재 (동→서)

부도(浮屠)

浮屠란 스님의 사리와 유골을 보관하는 석조물을 말하며 부처의 舍利를 봉안한 탑을 佛塔이라 불러 탑과 부도를 구분할 수가 있다.

한국의 부도는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매우 정교하며 구도적으로 안정된 수많은 부도가 만들어지나 조선시대에는 숭유배불로 불교 석조미술의 퇴조와 함께 단순한 석종형의 부도로 퇴락하게 된다.

안양의 부도현황은 안양사부도와 귀부가 있으나 비는 전하지 않으며 그외에 반월암의 밀양장씨탑과 명성당 대사지 탑이 있고 염불암에는 서영당지홍 및 봉인당 부도 등이 있는데 이들 부도의 양식은 기단위에 석종형 탑신과 승려의 당호를 음각하였고 밀양장씨탑의 경우 사각탑신에 팔작지붕의 개석을 올려 놓았다. 이들 부도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부도로서 명문에 따라 누구의 부도인지 언제 건립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가 있다. 이외에 4기의 마애부도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형태로 불성사의 각원선 부도, 반월암 주변의 서영당부도 염불암경내의 현진당 및 고종27(1890년)년 부도 등이 있고, 고종 27년에 제작된 부도는 위치가 너무 높아 법명은 파악하지 못하고 제작연대만을 알 수 있다.

이들 마애부도는 바위면을 다듬어 중앙에 암공(岩孔)을 만든 후 암공내부에 다시 적은 암공을 만들어 사리나 유골의 재 등을 보관하고 암공자체는 크기에 맞는 사각돌로 맞추어 끼운다. 현재 안양관내의 마애부도는 암공 입구돌은 분실되어 없으며 불자들간에 암공에 잔돌을 던져 돌이 들어가면 소망이 성취된다는 신앙적 믿음의 돌조각이 암공에 들어가 있다.

1. 안양사 부도(安養寺 浮屠)

종별번호 : 0704-12-001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높이 136cm
소 재 지 : 석수동 산27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영심

부도란 고대 인도의 범어(Snskrit)의 Bŭddha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보관하는 각종 석물을 부도라하고 중국에선 스님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Bŭddha의 원뜻은 불타 즉 부처, 불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범어의 Stūpa나 남방불교의 巴里語에서 온 Thŭpa를 한자로 표시한 탑파(塔婆), 즉 석가모니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하는 축조된 탑파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안양사 부도 (남→북)

안양사 부도는 대웅전 앞에 귀부와 같이 있는데 탑신과 기단 중석은 없어졌다. 하대는 높은 2단의 8각 지대석이며 복연을 장식였고, 상대는 앙연이 도톰하게 장식되어 있으나 뒤집혀진 형태로 놓여있다.

옥개석은 팔각에 3단의 옥개바침 위에 올려져 있고 처마의 상하선이 전각부분에서 반전하고 있으며 상륜부에는 연화보주가 표현되어 있다. 화강암 석재인 안양사 부도재의 높이는 136cm, 기폭 135cm로 양식의 특징을 보아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2. 반월암 부도(半月庵 浮屠)

종별번호 : 0704-12-00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밀양장씨비 부도신 80cm, 명성당비 부도신 102cm, 마애부도 10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수인

○ 반월암 약사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2기가 있는데 좌측 1기는 2단 지대석 위에 상부로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비신과, 옥개석은 맞배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신의 내용은 「밀양장씨 백운당대선사 □□탑」이라 각자되어 있으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시집간후 3일만에 여중이된 비구니의 부도비라 전한다. 부도의 높이는 152cm이며, 비신폭은 50cm, 두께 37cm, 부도신 80cm에 화강암

반월암 부도. 좌 : 밀양장씨 부도, 우 : 명성당 부도 (서→동)

석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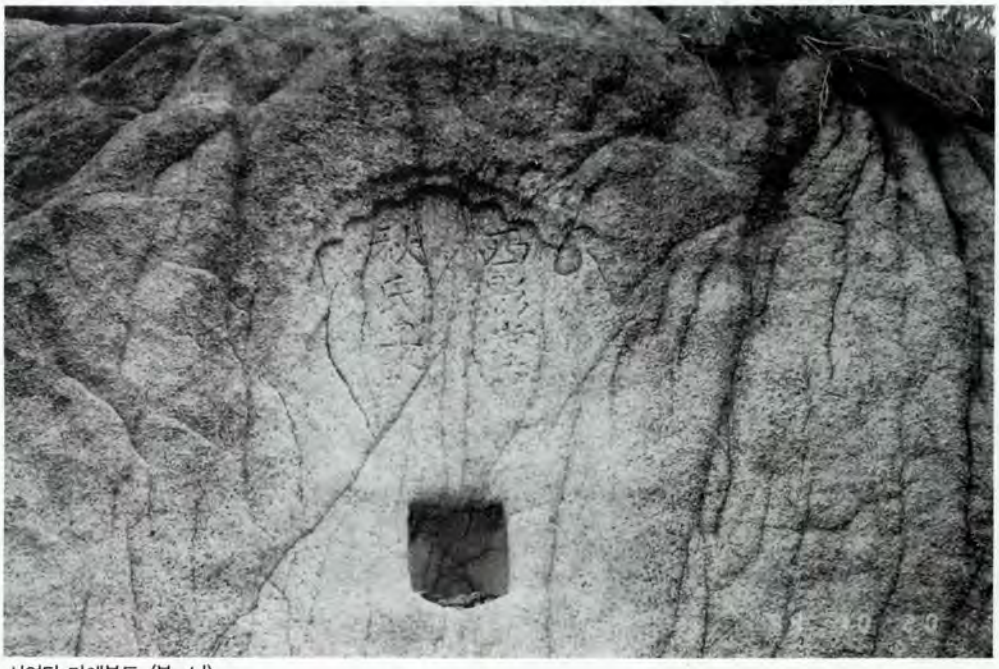
○ 우측의 부도는 석종(石鐘)형태로서 2장의 지대석위에 놓여 있고, 높이는 지대석 14cm에 부도신 102cm이며, 부도신 폭은 50cm인데 「명성당 대사 지탑」이라고 각자 되어있다.

구전에 반월암에 신도이던 한 농부가 밭에서 괭이질을 하다 괭이끝에 개구리가 찍혀 나온 것을 보고 생명체의 목숨이 찰나임을 알게 된 후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반월암에서 수도하는 스님이 되었는데, 그 스님이 명성당 대사라 하나 확인할 길은 없다.

석종 부도는 고려시대의 부도와 달리 숭유배불 정책으로 인한 조선시대의 부도 형태이며, 반월암의 부도 또한 조선시대의 부도이다.

○ 마애부도는 반월암에서 삼성산 정상부인 국수봉 방향으로 가는 길 100여m지점, 우측의 암벽 10m 높이에 조성되어 있으며 폭 50cm, 높이 100cm의 크기이다.

사각암공은 깊이 5cm, 가로, 세로 8cm의 크기이며 「서영당 대선사 추씨……」



서영당 마애부도 (북→남)

라 음각 되어있고 불자들 간에는 마애부도 암공에 잔돌을 던져 잔돌이 모두 들어가면 불신의 총력으로 소원성취한다는 믿음이 전해진다.

3. 염불암 부도(念佛庵 浮屠)

종별번호 : 0704-12-00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서영당 부도신 160cm, 봉인당 부도신 124cm, 현진당 부도신 54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7번지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오능수

○ 염불암 선방 부근에 있는데, 1기는 선방 입구 좌측에 있으며 1기는 선방 축대 풀속에 쓰러진 상태로 반쯤 묻혀있다.

선방 입구의 부도는 45cm×70cm의 지대석 위에 부도신이 놓여 있는데 각자의 내용이 몹시 흐린 상태이며 내용은 「신사서영당지홍 가경 십오년 경오 도화주 신사대신」이라 명문되어 있어 (순조10년)1810년에 지홍 스님의 부도임을 알수

염불암 인봉당 부도 (북→남)

염불암 서영당 부도 (남→북)

가 있고 부도신의 높이는 115cm, 폭은 50cm이다.

○ 또 한기의 부도는 지대석은 보이지 않으며 풀숲에 쓰러져 방치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 총고는 124cm이며 부도신에 가로31cm×세로60cm의 크기로 석재를 다듬은 후 음각으로 명문을 세겼는데 내용은 「가경21년 병자칠월.일 청신사 봉인당 대심용 도화주 손석명제」라 되어있어 순조16년(1816년)에 세워진 부도임을 알 수가 있다.

염불암 현진당 마애부도 (남→북)

○ 염불암 마애부도는 선방의 좌측 암벽에 2기가 암각되어 있다.

1기는 암벽 좌측 하단에 위치하며, 기단이 있는 탑비의 형태로서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깊이 17㎝, 가로15㎝, 세로20㎝의 사각 암공과 「건륭 48년 10월 법흥거사 현진당」이라는 명문이 있어 1783년(정조7년)에 조성된 법흥거사의 부도임을 알 수가 있고, 크기는 가로 42㎝, 높이54㎝이다. 암벽 우측 상단의 1기는 석종형의 모습으로 중앙부에 가로 세로 15㎝ 크기의 사각 암공이 있다.

가로 40㎝, 높이 50㎝의 크기로 광서 16년 경인 3월로 명문되어 1890년(고종 27년)임을 알 수 있으나 법명은 부도의 위치가 높아 확인이 어렵다. 2기의 부도 모두 암공을 막는 입구들은 없으며 불자들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돌조각이 암공에 들어있다.

염불암, 고종 27년 마애부도 (남→북)

4. 불성사 마애부도 (佛性寺磨崖浮屠)

종별번호 : 0704-12-00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94cm, 폭 52cm
소 재 지 : 비산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홍대봉

불성사 법당뒤 좌측 50m지점 암벽에 조성되어 있으며 석종형으로 「입비 각원선, 병진 8월일」이라 각자 되어 있다.

「병진」이란 내용만으로는 연대를 앞 수는 없으나 각원선사의 부도임을 알 수 있으며 사각암공은 깊이 12cm, 가로세로 26cm의 크기로 암공내부에 자름7.5cm×깊이5cm의 원통홈이 파여 있다.

총 높이 94cm, 폭 52cm로 암공의 입구돌은 몇 해 전에 분실되었다.

불성사 마애부도 (북-남)

귀부(龜趺)

석비의 일종인 귀부는 석비의 형식에서 보는 비부, 비신, 개석 중 비부를 거북의 모습으로 구성하였고, 비신과 함께 개석은 육용(六龍) 또는 4용이 조각되어 있으며 이를 이수(螭首)라 한다.

귀부는 고려시대 이전에는 비교적 사실적인 거북의 모습에서 고려시대 이후는 점차 화려하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며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조선시대로 와서 지붕형태의 옥개석으로 바뀌어진다. 1980년 6월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93호로 지정된 안양사귀부는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골짜기에 방치되 있던 것을 60년대 안양사 중창시 현재의 위치에 놓여진 것으로 안양사의 역사와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 안양사 귀부(安養寺 龜趺)

종별번호 : 0704 - 13 - 001

시　　대 : 고려시대

규　　모 : 높이 1m, 길이 3m, 너비 2. 18cm

소 재 지 : 석수동 산27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현존하는 안양사 귀부의 비신과 이수는 없으며, 전하는 말에 무지한 농부가 비신으로 숫돌을 만들어 팔아 그후 전가족이 멸족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된다.

´지대석 위에 1장의 돌로 조성된 귀부는 길이 167cm, 폭 58cm의 비석좌가 있으며 갑문은 2겹 6각형으로 음각되었고 귀두는 용머리와 흡사하다. 고려시대로 추

안양사 귀부 (북서-남동)

정되는 귀부는 비에 대하여 대동금석서에 〈안양사 7층석탑명〉이라하여 다음과 같은 탁본 내용이 전하여진다.

「이원부는 교서를 받들어 선서함, 내가 성불을 좇는 이후로 종종 인연이 … 하여 … 이 모순되니 논의가 분명하여 학자로 하여금 … 할 수가 없다 … 으로서 끝맺음을 하다. 화엄은 여신하고 또한 사 … 갖추었다 … 은 성은 고씨로 동주의 이천사람이다. 아버지는 …　　… 동쪽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보잘 것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성대해졌다. 깨달고서 말하기를 … 」

위의 글은 고려때 명필가 이원부가 인종의 본부로 쓴 것으로 「안양비 재금천 삼성산 안양사7층탑명 상서 김부식문 이원부서 남송 고종 소흥원년 신해려 인종9년야」로 연대가 고려 인종9년(1131년)임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 「재삼성산사지남 유고려 태조소건7층전탑 김부식찬 비자결〉로 태조때 건축된 7층탑은 김부식이 글을 짓고 글자가 결락되어 있다하여, 태조때 지은 7층탑에 대하여 인조때 안양사7층석탑명 비문을 지은 것으로 추정되나, 일설에는 이원부의 교서에 등장하는 이천사람 고씨의 탑일 가능성도 말하고 있다.

석조(石槽)

석조의 용도는 사찰에서 물을 담는 돌 용기이다. 화강암 돌의 내부를 파내어 물을 담을 수 있게 하고 외부를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하는데 받침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주로 장방형의 석조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석조 외부에 정교한 연화문양 등을 조각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 현존하는 석조중 속리산 법주사의 石蓮池는 높이가 1.95m에 지대석과 괴임대가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石槽物로 손꼽힌다. 안양지역의 경우에는 받침대가 없는 3기의 석조가 발견되는데 비교적 소형이고 석조의 외형 치석도 대충 다듬은 원형의 석조이며 연대 또한 조선후기로 추정된다.

1. 삼막사 석조(三幕寺 石槽)

종별번호 : 0704-16-001

시　　대 :

규　　모 : 94cm×50cm 및 30cm×20cm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감로정 우측에 있으며 2기 모두 식수용으로 사용한다. 2점 모두 원통형으로 1점은 높이 50m에 내부깊이 50m로 외부에 「기미2월」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외 1기는 65cm×40cm로 하부는 좁은 사다리꼴이 형대를 취하고 있다.

삼막사 석조 (서→동)

2. 불성사 석조 (佛性寺 石槽)

종별번호 : 0704 - 16 - 002

시　　대 : 조선후기

규　　모 : 높이 55cm

소 재 지 : 비산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홍대봉

불성사 우물가 근처에 있으며 높이 55cm, 구경 49cm, 내부깊이 40cm이다.

불성사 석조 (남→북)

당간지주(幢竿支柱)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유유산업 구내에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이는 일반인의 자유스런 출입이 통제됨으로 인한 보존의 장점과 규제의 단점을 동시에 지닌 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간과 함께 있는 지주는 전국적으로는 그리 흔하지 않아 철당간으로는 통일신라때인 공주군 계룡산 갑사의 철당간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이 있으며 석당간으로는 나주시 석북동에 고려때의 당간이 있다.

이외에는 대부분이 폐사지에 두개의 석주로된 당간지주가 주로 있는데 평균 당간은 지주의 7배 높이일 것으로 추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측면주연에 윤곽선을 돌리고 정상은 외면으로 곡을지게 가공한다. 또한 지주와 지주사이에는 원공이 있고 지주에 간공이 있어 당간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당간의 머리부분은 용두로 장식이 되있거나 석주일 경우 보개와 보주로 된 석조장식을 설치하기도 한다.

1. 중초사지 당간지주(中初寺址 幢竿支柱)

종별번호 : 0704-17-001
시　　대 : 827년(신라흥덕왕 2년)
규　　모 : 높이 364cm
소 재 지 : 석수동 212-1
지　　목 : 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호로 지정된 당간지주로 보물 5호로 지정된 중초사지 삼층석탑과 같이 놓여있다. 당간지주란 사찰의 입구문에 지주를 설치하고 당에 깃발을 달아, 불심의 위신과 공덕을 기리는, 또는 중생을 계도할 목적으로 세운 당간을 고정하는 지주대를 당간지주라고 한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동→서)

대체로 절입구에 당간지주를 세우는 일은 신라때부터 성행하였는데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고, 섬세한 형태는 없지만 단아한 모습을 지닌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높이는 364cm에 2개의 지주가 85cm 간격에 동서로 놓인 화강암 당간지주로 내외면 전후에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상부에만 약간의 가공 흔적이 있는 고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칸

은 양쪽 모두 상·중·하 세군데로 상부는 장방형의 구멍이지만 중하부는 관통구멍으로 간구 장치를 하였다. 바닥은 양지주 사이에 길이 182cm의 장대석 한 장을 깔았고 장대석 중심에는 직경 36cm의 원공이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남→북)

지주의 서쪽면에는 6cm크기의 음각명문이 있는데 내용은 "보력(寶曆 : 唐나라 擊宗의 年號) 二년 세차(歲次) 병오년(八二六年 신라 興德王一年)八월초 엿새 신축일(辛丑日)에 중초사(中初寺) 동쪽에 있는 僧岳에서 돌 하나를 쪼개 두개를 얻었다. 같은 달 二十八일에 이도(二徒)가 작업을 시작하였고 구월일일에 이곳에 이르러 이듬해인 정미년(八二七) 이월 삼십일에 공사를 마쳤다. 절주통(節州統)은 황룡사(皇龍寺)의 항창화상(恒昌和尙)이고 …… (중간생략) …… 도상(徒上)은 둘이니 지생법사(智生法師)와 진방법사(眞方法師)이며 작상(作上)은 수남법사(秀南法師)이다."

당간기 명문에 의하면 이당간 지주는 통일신라시대 홍덕왕 원년(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다음 해인 정미년(827년)2월 30일에 완공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중초사란 명칭도 알 수가 있다. 이외에 주통, 황룡사, 혹은 여러 유명한 법사들의 법명이 있음을 볼때 당대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찰임을 알 수가 있다.

신도비(神道碑)

신도비는 종2품 이상 관리를 지낸 사람의 묘 근처 길가에 세우는 석비로서 박서 신도비 또한 묘역에서 남쪽아래로 30여m 떨어진 길가 입구에 세워져 있다. 박서 신도비는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지정 문화재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둘러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박서신도비 (朴遾神道碑)

종별번호 : 0704-18-001

시　대 : 현종(1665년)

규　모 : 비신높이 250cm, 너비 98cm, 두께 32cm

소 재 지 : 석수2동 산168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대리석

관 리 자 : 박노일

박서는 선조35년 (1602년)~효종4년(1653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상지 호는 현계 본관은 밀양이다. 인조2년 (162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인조8년(1630년)식년문과에 을과 2등급으로 급제후 호조좌랑 및 병조좌랑을 거쳐 성균관 제주, 홍문과 교리를 지냈다.

박서신도비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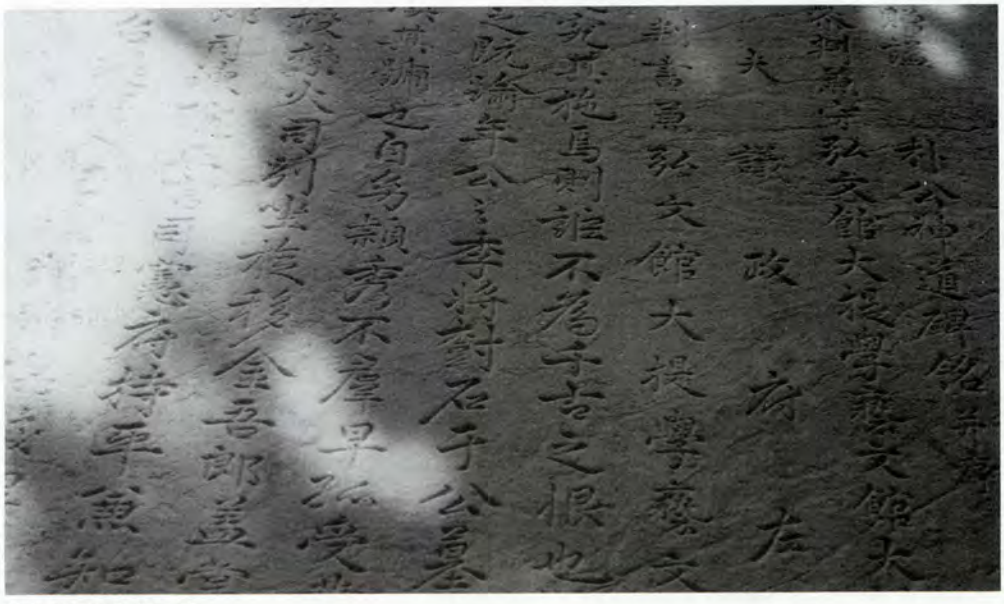
인조21년(1643년)에 황해도 관찰사 재직중 선정으로 칭송이 자자했으며 좌승지를 걸쳐 1647년에 병조참판에 임명되어 천추사로 연경에 다녀온 후 도승지와 이듬해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한성좌윤을 지냈으나 한때 왕의 비위를 거슬려 경주부윤으로 좌천을 당했다. 효종1년(1650년)에 공조와 병조 참판을 거져 공조판서,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직책에 힘을 썼으나 병을 얻어 52세 일기로

사망했다.

신도비는 환경사업소 입구 은기목장 우측에 있는데 신도비로 부터 북쪽으로 20M위에 박서묘가 있다.

비의 크기는 지대석 가로 64cm, 세로 90cm, 높이 92cm, 비신이 너비 98cm, 높이 250cm, 두께 32cm에 비신 지붕은 팔작지붕의 형태로 가로 140cm, 세로 66cm, 높이 40cm이다.

비의 제작은 숭정 기원후 38년으로 현종 6년(1665년)임을 알 수가 있으며 신도비의 내용은 조석윤이 짓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으며 전액은 김수항이 했다.



박서 신도비문 (남→북)

묘비(墓碑)

안양지역의 묘역석물중 묘비는 17곳에서 1910년을 기준으로 14개의 묘비를 조사하였다. 묘비의 내용문은 피장자의 확인과 행적 생년월일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안양금석문 조사시 박서 신도비를 제외한 5기의 묘갈중, 과거에 파악된 2기의 묘갈 외에 2기가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는 오직 성명과 관직의 기록이 고작이다.

물론 자세한 기록의 묘갈문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대부분이 훼손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치되거나 땅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묘석은 주로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묘 옆에 고인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 한대(漢代)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의 묘제(墓祭)에 연유하여 묘표를 세우는 습관이 보편화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묘역의 치장에 대하여 각각의 조항을 두어 묘의 넓이와, 봉분의 높이, 비의 높이, 석물의 종류를 규제하나 일반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았고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일정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념은 묘역의 치장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석비의 제작에 있어서도 당대의 문장가와 서예가는 선택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비문을 짓는 찬자나, 비문을 쓰는 서자는 묘비문에 기록되어 있으나 석비를 만드는 석공과 글씨를 새기는 각자공은 제외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비문서체는 두횡자는 전서이고 비문은 해서가 주를 이루며 문장은 개인의 출생과 학문, 부모와 국가에 대한 효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행적 등을 수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1. 조란서 묘표(曹鸞瑞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24cm, 폭 53cm

소 재 지 : 석수1동 산33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대리석

관 리 자 : 조옥현

조란서는 본관은 창령이며 선조1년(1568년)~인조12년(1634년)의 인물이다.

묘는 비산유원지 보장사 뒤에 있으며 묘표는 「통정대부 행 합천군수 조란서 지묘」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석질은 대리석이다.

묘표의 크기는 높이 124cm, 너비 53cm, 두께 24cm, 지대석은 가로 95cm, 세로 62cm, 높이 34cm이다.

조란서 묘표 (남-북)

2. 조하경 묘표(曺夏卿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27cm, 폭 61cm, 두께 25cm

소 재 지 : 석수1동 산33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대리석

관 리 자 : 조옥현

조란서묘 좌측 북서 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인조13년(1635년)~숙종36년(1710년)의 인물로 임자년에 문과 급제하고 순천부사를 지냈다. 대리석 석재에 「숙부인 청주한씨부좌, 부사 조공 하경지묘 통정대부행 순천도호」라고 명문되어 있다.

크기는 비신 높이 127cm, 너비 61cm, 두께25cm이며 지대석은 가로 87cm, 세로 50cm, 높이 24cm이다.

조하경 묘표 (남→북)

3. 조하신 묘표(曺河臣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26cm, 폭 56cm, 두께 18cm

소 재 지 : 석수1동 산45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대리석

관 리 자 : 조병조

조하신은 조란서의 손자로 광해군 3년(1611년)~숙종12년(1686년)의 인물이다. 묘는 비산유원지 입구에서 서울 방향으로 100여m지점 우측 학무봉, 높이 20M 지점에 있으며 대리석 비신에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조공 하신 지묘 증정부인 한산이씨 부우」라 음각되어 있다.

비신은 높이 126cm, 너비 56cm, 두께 18cm이다.

조하신 묘표 (서→동)

4. 류정현 묘갈(柳廷顯 墓碣)

종별번호 : 0704 - 19 - 00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비고 147cm, 폭 56cm, 두께 24cm

소 재 지 : 비산동 산176 - 13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유제구

류정현 묘갈 (동→서)

공민왕 4년(1355년)～세종8년(1426년)의 인물로 본관은 문화, 호는 월정, 자는 여명이다. 공민왕시절 좌대언과 우대언을 역임했으며 조선이 개국한 후 상주 목사와 왕산부윤을 거쳐 태종4년(1404년) 경기좌도호 관찰사 및 충청도호 관찰사를 지냈다. 태종 16년(1416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 묘는 동안구 비산동에 있고 묘갈과 묘표가 있다.

묘갈은 총고190cm, 비고 147cm, 폭 56cm, 두께 24cm이며, 찬자는 조두순, 서자는 신관호이며 조선조에 세운비를 후대인 숭정기원후 오갑자(1864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표는 높이 108cm, 너비 48cm, 높이 18cm, 지대석은 높이 30cm, 가로 72cm, 세로 41cm로 전면 내용은 「대신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근□정숙공 문화유정현 지묘 화경댁 주 이씨 묘재 양주□□□」이며, 후면은 「숭정기원후 정축정월」이라 명문되어 있어 묘표가 1637년(인조15년)임을 알 수가 있다.

5. 류팽석 묘표(柳彭碩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60cm, 폭 37cm, 두께 15cm

소 재 지 : 비산동 산176-13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유제구

조선전기의 문신, 자는 수옹 본관은 문화로 성종 19년(1488년) 별시문과 병과에 22등급으로 급제후 금산군수 등을 엮임했다.

비산동 소재 류정현 묘에서 동쪽으로 50M 위치에 있으며 묘표의 크기는 이수가 너비 30cm, 높이 50cm, 두께 20cm, 비신 높이 60cm, 너비 37cm, 두께 15cm이며 전면에 「증헌대부□□ 시호원필선□춘추관편수관 유팽석지석」이라 되있고 후면에 홍치 18년 을축 8월이라 되있어 1505년에 (연산군11년) 세워진 묘표임을 알 수가 있다.

류팽석 묘표 (서-동)

6. 류덕옥 묘갈(柳德玉 墓碣)

종별번호 : 0704-19-006
시　대 : 1688년(숙종14년)
규　모 : 높이 160cm, 너비 72cm, 두께 32cm
소 재 지 : 비산3동 산83-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류씨 종친회

효종4년(1653년)~숙종37년(1711년)의 인물로 숙종2년에 무과 급제후 도총부 도사를 거쳐 숙종20년 (1694년) 장흥 부사 재직시 흉년으로 어려움에 빠진 장흥 고을을 구제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숙종28년 동지중구부사에 재수되었으며 숙종 37년(1711년) 구성부사 재직시 수토병으로 사망했다.

묘는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북쪽으로 100M지점에 위치하며 묘갈명은 심육이 짓고 조명교가 글씨를 썼다.

묘갈은 지붕 높이 40cm, 가로 124cm, 세로 84cm, 비신 높이 160cm, 폭 72cm, 두께 32cm, 지대석은 가로 168cm, 세로 138cm, 높이 87cm로 류덕옥의 행적을 기록하여는데, 묘갈에는 「승정원년 무진후 재무진 3월 일입」이라 기록하여 1688년에 묘갈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으나, 류덕옥은 1711년에 수토병으로 운명했음을 알 때 묘갈의 연대와는 맞지 않아 묘갈의 건립연대는 잘못 된 것으로 판단된다.

류덕옥 묘갈 (남→북)

7. 류작 묘표(柳綽 墓表)

종별번호 : 0704-19-017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36cm, 너비 57cm, 두께 32cm

소 재 지 : 비산3동 산83-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유씨 종친회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곡 숙종12년(1686년)~영조28년(1752년)의 인물로 덕옥의 아들이다.

숙종40년 사마시에 급제하고 영조 10년(1743년) 병과에 급제하여 와직으로 서산, 영해 길주 목사 등을 역임했다.

묘는 류덕옥의 묘 아래에 있으며 묘표에는 「조선국 통정대부 병조참지 완산유공 작 지묘 증 숙부인 상산 김씨부좌」라고 대리석에 음각되어 있다.

비신 크기는 총고 136cm, 너비 57cm, 두께 32cm, 지대석 가로 99cm, 세로 64cm, 높이 39cm 이며, 지붕은 팔작 지붕의 형태로 가로 45cm, 세로 78cm, 높이 45cm이다.

류작묘표 (남-북)

8. 장언방 묘표(張彦邦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24cm, 너비 60cm, 두께 19cm

소 재 지 : 비산동 안날미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장순태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덕수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을 역임 했다.

묘는 동안구 비산동 안날미 뒷산에 있으며 묘비는 높이 124cm, 너비 60cm, 두께 19cm, 지대석은 가로 90cm, 세로 60cm, 높이 37cm 이며, 비면에 마모가 심해 글씨의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다.

장언방 묘표 (남→북)

9. 장순 묘표(張洵 墓表)

종별번호 : 0704-19-009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13cm, 너비 58cm, 두께 17cm

소 재 지 : 비산동 안날미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장순태

조선시대의 문신이며 본관은 덕수로 한성부판윤 언방의 아들로 가정 계미년인, 중종18년(1523년) 생이다.

명종 4년 사마시 급제후 통천군수를 역임했으며, 묘비는 마모가 심해 해독이 불가능하고 비신은 높이 113cm, 너비 58cm, 두께 17cm, 지대석은 높이 36cm, 가로 83cm, 세로 52cm이다.

장순 묘표 (남→북)

10. 이석근 묘표(李石根 墓表)

종별번호 : 0704-19-010

시　　대 : 조선시대 초

규　　모 : 높이 120cm, 너비 20cm, 두께 20cm

소 재 지 : 비산동 군부대 내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희덕

조선전기의 청백리로 자는 仲國 본관은 全州로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며 방의에 아들이다. 익평 부원군에 봉해졌고 최고의 작급인 대광보국승록대부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안랑(安良)이다.

비산동 충의대 전주이씨 묘역에 위치하며, 화강암 석재에 비신은 상부로 올라 갈수록 넓으며 양쪽으로 각이졌다.

글씨가 흐려 판독이 어려우며 비고 120cm, 너비 47cm, 두께 20cm이다.

이석근 묘표 (남-북)

11. 류영 묘표(柳寧 墓表)

종별번호 : 0704-19-01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80cm, 너비 50cm, 두께 16cm

소 재 지 : 관양동 37번지

지　　목 : 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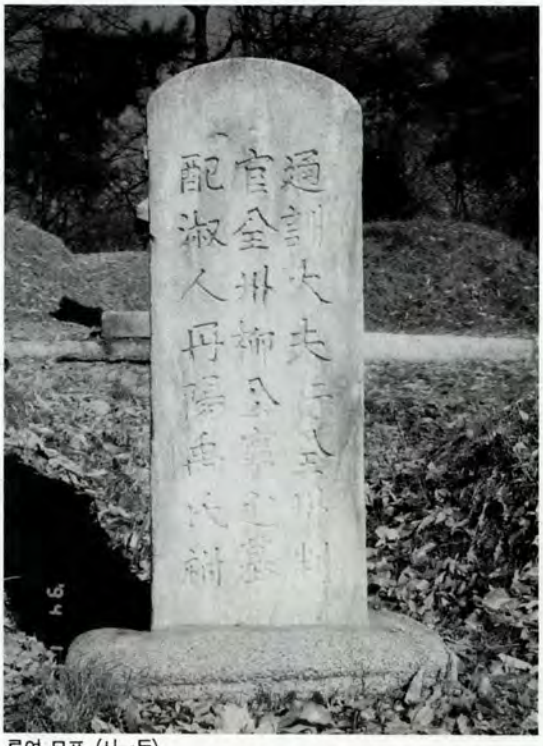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류원회

본관은 전주이며 나주목사 세붕의 아들이다.

중종2년(1507년)~선조16년(1583년)의 인물로 돈령부 참봉과 전주 판관을 역임했다.

묘는 관양1동 간촌마을 류계장 묘역에 있으며, 묘표는 높이 138cm, 너비 50cm, 두께 16cm, 지대석은 높이 18cm, 가로 90cm, 세로 59cm로 전면에 「통훈대부 행 전주판관 전주유공 영지묘 배숙인 단양 우씨부」라 음각되어 있다.



류영 묘표 (서→동)

12. 이세규 묘표(李世奎 墓表)

종별번호 : 0704-19-01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 117cm, 폭 50cm, 두께 26cm

소 재 지 : 관양동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광주이씨 종친회

관양1동 동편 마을 남쪽으로 과천과 경계가 되는 옛길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본관은 광주이며 후손은 수원 파장동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묘표는 장방형 화강암 석재이며 전면에 「통정대부 행 밀양 도호부사 이세규 지묘」라고 음각되어 있다.

크기는 총고 117cm이며, 비신 너비 50cm, 두께 26cm이다.

이세규 묘표 (서→동)

선정비(善政碑)

선정비는 한 지역에 관리로 부임하여 치덕과 선정을 베풀고 재임 후에 떠나면 지역의 유지와 주민이 선정비를 세워주나, 일반적으로 관리가 부임한후 타지역으로 옮겨갈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비를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인근 도시중 과천 온온사와 수원 노송지대에는 역대 현감 및 수원부 유수의 각종 공적비와 불망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과천 온온사의 경우 조선시대에 과천현 관아의 부속객사였으며, 수원 노송지대 역시 수원부유수가 오고 가는 길목으로 공적비 위치로 적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정을 하여 외지로 발령을 받고 떠날때는 주민이 "부모와 헤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배웅한다"라는 많은 옛기록이 있어 이러한 관리는 오래도록 주민에게 칭송과 공경의 대상으로 추앙 받는 것이다.

현재 안양관내에서 발견되는 선정비는 과천군의 수령이였던 이태응 영세불망비와 '89년 평촌지역 문화유적 조사시 인덕원에서 가까운 갈산마을에서 1879년에 건립한 김보현 영세불망비 등 2기로, 김보현 공적비는 관리가 아닌 민간인의 공적비로 짐작되어지며, 현재 이태응비의 위치는 인덕원사거리에서 동일방직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 존재하나, 김보현 영세불망비는 명지대 용인 분교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덕원지는 과거 조선시대 중기이후 과천산하의 주변 관가지이며 역원의 존재로 남북간에 왕래가 붐비는 지역이였음을 참고할 때 또 다른 공적비가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더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 이태응 불망비(李泰應 不忘碑)

종별번호 : 0704-20-001

시　　대 : 고종 6년(1869년)

규　　모 : 비고120cm, 너비 63cm

소 재 지 : 관양동 1504-3

지　　목 : 도로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관양2동 사무소

이 비석은 고종 6년(1869년)기사년에 건립된 비로 과천군의 현감을 지낸 이태응(李泰應)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원래의 위치는 인덕원 사거리였으나 '84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원 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으며, "마을의 홍망을 좌우하던 영엄한 현

이태응 영세불망비 (남→북)

감비"로 더 잘 알려진 선정비는 주변 마을에서 치성을 잘하는 마을은 흥하지만 정성이 부족한 마을은 불행한 일이 자주 일어나 마을간에 비석을 몰래 끌고가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아 마을 중앙에 옮기기도 하다가 한때는 수원 노송지대에 버리기까지 한 것을 다시 찾아오기도 하였다.

비의 원모습은 비신 위에 비석갓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옆에 같이 있는 비석은 현감비가 외롭다하여 8·15 광복 후에 인근산에서 무명의 비석을 주어다 같이 세웠다.

현감 이태응은 공조좌랑으로 재직중 고종 3년(1866년)12월 5일 과천현감으로 부임후 고종5년(1868년)정월 29일 황해도 송화 현감으로 전임되었다.

현감비는 후면에 동치8년 기미3월일 이라 써있고 전면에는 「현감이후 태응 영세 불망비」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크기는 지대석이 가로 105cm, 높이 13cm, 세로 74cm이고 비신은 너비 63cm, 높이 120cm, 두께 32cm이다. 옆의 무명비는 지대석은 없으며 비신고 97cm에 건륭43년 갑신 십월일이라 명문되어 있어 정조 2년인 1778년에 세운 비임을 알 수가 있다.

기념비(記念碑)

삼막사 사적비와 만안교비는 각기 삼막사와 안양시에서 관리하며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주변의 정리와 보호 상태는 양호하며, 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삼막사의 사략과 만안교의 축조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석문의 무분별한 탁본으로 비문의 손상과 훼손으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1. 삼막사 사적비(三幕寺 事蹟碑)

종별번호 : 0704-21-001
시　　대 : 숙종 33년(1707년)
규　　모 : 비고 192cm, 너비 70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이 비는 삼막사 절에서 우측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으며, 총고는 252cm, 비신의 높이는 192cm, 너비 70m로 비갓은 팔작지붕 형태에 지대석은 땅에 묻혀있다.

비문은 마모가 심하며 「조석국경절 관악산맥 갑묘행룡 삼성산하 사명 삼막사 좌유향로봉」과 건립연대를 밝히는 「강희46년 정해」란 글자가 있어 비석의 위치와 조선 숙종33년(1707년)에 건립됨을 말해 주고 있고, '85년 6월 2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25호로 지정받았다.

삼막사 사적비 (남→북)

2. 만안교비(萬安橋碑)

종별번호 : 0704-21-002

시　　대 : 정조 19년(1795년)

규　　모 : 비고 164cm, 너비 64cm, 두께 34cm

소 재 지 : 석수동 260번지

지　　목 : 하천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정종19년(1795년)에 건립된 만안교비는 1973년7월10일 지정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인 만안교와 함께 있는 비로 바닥은 2장의 지대석을 깐후 귀부 위에 비신을 세웠다. 비신갓은 팔작 지붕의 형태이며 비신 전면에는 만안교라 음각되었고, 뒷면에는 만안교 비송문이, 측면에는 만안교 축조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려있다.

비의 내용은 화성으로 가는 연로에 안양천이 있어 돌다리의 필요성을 느낀 신하가 착수 3개월만에 준공하니 임금께서 친히 만안교란 이름을 내리셨으며 성가는 방울을 울리며 편안히 다녀오기를 만년을 한결같고 공사를 할때 하천에서 돌이 나와 경비를 반감하니 신이 도왔으며, 만년을 만안하고, 천년만년 편안하기 반석과 같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문의 내용은, 서유방이 짓고 글씨에 조윤형, 전면에 글씨는 유한지가 썼으며 그외의 공사의 주요 직책을 맡은 11명의 명단이 함께 명문되어 있다.

그러나 비문의 내용중 갑문이 5개임은 오기고 실제는 7개이며 총고는 3m, 비신의 높이는 164cm, 귀부의 폭은 2m로 재질은 화강암이다.

오늘날 안양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사적비이며, 효와 충의 상징이기도 한 만안교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 만안교비문

만안교비 (동북-남서)

만안교비송(萬安橋碑頌) -서문을 겸함-

남충현(南充縣)의 주치(州治) 남쪽二十리에 안양천(安養川)이 있는데 바로 화성(華城)으로 가는 연로(輦路)이다. 우리 성상(聖上 : 정조)께서 해마다 원침(園寢 : 思悼世子陵)을 전알(展謁 : 省墓)하려면 이 하천을 건너게 된다. 올 봄에도 자가(慈駕 : 어머니가 탄 수레. 여기서는 惠慶宮洪氏를 가리킴)를 모시고 이 내를 건넜으니 이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무릇 행행지(幸行地 : 임금이 행차하는 곳)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이고 하천마다 다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 다리는 나무로 놓았다가 왕의 행행이 지난 뒤에는 바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얼음 풀릴 때나 장마가 질 때에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였다. 전 도신(道臣) 서용보(徐龍輔)가 이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로써 대체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미천한 신(臣)이 명을 받고 취임하여 맹추(孟秋 : 음력 七월)에 이 일을 착수하여 三개월만에 준공하니 길이는 십오장(丈)이요, 폭은 四장이며, 높이는 三장이고, 갑문(閘門 : 다리 구멍)이 다섯개이다. 임금게서도 이 일을 아시고는 감독하는 사람과 공장(工匠)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고 특별히 「만안교(萬安橋)」란 이름도 내리셨다. 신(臣)이 생각컨데 왕자가 다리로 편안히 건너게 된 것은 한(漢)나라의 장안교(長安橋)에서 비롯하였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도강(徒木工 : 徒步로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과 여량(輿粱 : 수레로 건너야할 큰 다리)은 성주(成周 : 西周)때에 이루어졌으나 돌로 만들어 만세에 전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 다리는 다행히도 화성(華城)연로에 있으니 성가(聖駕 : 임금이 탄 수레)는 1년에 한 번, 자가(慈駕)는 10년에 한번씩 육룡(六龍)에 멍에를 메이고 팔란(八鑾 : 방울)을 울리면서 편안히 지나갔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편의는 만백성에게까지 미쳐 원근의 짐꾸러미들이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이제는 옷을 걷어 올리거나 험한길로 돌아서 갈 걱정이 없어졌다. 이로써 만만년토록 성은(聖恩)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을 기리게 되었으니 어찌 참으로 성(盛)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사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천가에서 돌을 채벌하는데 과연 돌이 나와 경비를 반감할 수 있어 마치 신이 도운 것 같았으니 이 도한 기이한 일이다. 신(臣)은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그 일을 기록한다. 송(頌)은 다음과 같다.

왕께서는 해마다 한번식 원침(園寢)에 행행(幸行)하시오니 이 다리 건너시길 만번을 하시옵소서.

복록과 함께 이르게 되리니 아래에는 내(川)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가(慈駕)를 모시고 만년동안 만안(萬安)하소서.

은혜가 백성에 미치니 마음놓고 건넘에 환성을 울리도다.

천년 만년 편안하기 반석과 같도다.

정헌대부 지중추부사겸 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부유수 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 광주부유수 도순찰사 규장각검교직제학(正憲大夫知中秋府事 兼京畿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水原府留守 開城府留守 廣州府留守 道巡察使 奎章閣檢校直堤學)

신(臣) 서유방(徐有防) 삼가 지음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 戶曹參判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副總管)

신(臣) 조윤형(曺允亨) 삼가 씀

학(學) 신(臣) 유한지(兪漢芝) 전면(前面) 삼가 씀

감동(監董) 첨사(僉使) 김천보(金天寶)

오위장(五衛將) 장정(張珽)

오위장(五衛將) 김대언(金大衍)

오위장(五衛將) 김원섭(金元燮)

영패(營稗) 가선(嘉善) 서협수(徐俠修)

영교(營校) 가선(嘉善) 서의린(徐毅麟)

영사(營史) 이효석(李孝錫)

각수변(刻手邊) 이삼흥(李三興)

석수변수(石手邊首) 최귀득(崔貴得) 박복돌(朴福乭)

홍예변(虹霓邊) 최흥서(崔興瑞)

야장변수(冶匠邊手) 정일성(鄭一成)

상지(上之 : 正祖) 十九년 九월 일 세움

정문(旌門)

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문으로 붉은색으로 단장하여 일명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보통 충, 효, 벼슬직함과 성명을 세겨 마을입구나 해당자의 집 앞에 세우며 이와 같은 행위를 표창하기 위하여 정문을 세워주는 국가의 특전을 가리켜 작설지전(綽楔之典)이라고 하였다. 기록에 의한 안양지역의 효자와 열녀, 충신 등의 기록은 문헌상에 여러명이 등장하나 사료적인 물증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풍양조씨 정문이 유일한 예로 풍양조씨 정려문의 현재 상태는 보관상의 문제가 매우 허술하여 이에 대한 보호 및 앞으로의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지금은 고춘석씨 집 뒤에 다른 목조물과 섞여 쌓여 있으며 특히 목조물인 관계로 자연상태의 열, 곰팡이, 습기 등에 약해 더욱더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전하여 수리 보존함이 마땅하며 가능하면 원래의 정려문 자리엔 복제품을 세워 풍양조씨의 높은 뜻과 가상함을 후세에 전하는 정려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풍양조씨 정려문(豊讓趙氏 旌閭門)

종별번호 : 0704-22-001

시　　대 : 정조23년(1799년)

규　　모 : 정려판 길이215cm, 폭45cm, 기둥높이242cm

소 재 지 : 관양동 488번지

지　　목 : 대지

재　　료 : 홍송

관 리 자 : 고춘석

풍양조씨 정려문 내용

풍양조씨는 지아비 이의준(1737년~1798년)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중 황해도 감영에 불이나 그만 큰 화상으로 순직하게 되자 의연하게 장례를 치른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7일간을 단식하며 목욕제계 후 자리에 누워 운명하니, 조정에서 이를 알고는 정조23년(1799년)에 정려에 명하였다.

묘는 관양동 샌말에 있으며 정려판은 동리주민 고춘석(52세)씨가 관리하고, 고춘석씨집 서쪽 100m에 정려의 원자리인 이의준 생가지가 위치한다. 길이 2m15cm, 폭은 45cm이며 양쪽은 기둥은 242cm로 밑부분 60cm정도가 썩어서 떨어져 나갔다.

홍살구멍은 13개이나 홍살은 없고, 재질은 홍송에 64년에 원래 위치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으며,

「열녀가선대부황해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해주목사 이의준처 정부인

풍양조씨지문」이라 씌어있고 왼편 상단에 「상지23년 기미이월일 명정」이라 하여 정조 23년(1799년)2월 정려에 명 했음을 밝히고 있다.

풍양조씨 정문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의준의 처 풍양조씨는 어느날 남편이 타고 다니던 흰말이 이의준의 신발 한짝을 물고 집 앞에서 울고 서 있어 남편의 불길한 소식을 미리 알고는 주변정리와 목욕제계 후에 남편의 소식을 가다렸으며 그 후에는 흰모시천에 침을 뱉어 죽음을 제촉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 후손이 묘를 이장하려고 봉분을 파니 이의준과 부인조씨가 200년이 지난 시신답지 않게 모습이 개끗하여 충절과 정절의 곧은 뜻을 후손에게 보였다고 전하여진다.

정조23년(1799년)1월25일자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그 내용을 옮겨본다.

正宗大王實錄卷之五十一

정조23년 1월 25일(갑신) 좌의정 이병모 및 품사 비당(稟事備堂)을 소견하였다. 이병모가 이뢰기를,

"고 관찰사 이의준(李義駿)의 처(妻)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씨(趙氏)는 자기 남편의 상(喪)을 당한 날에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이 60을 넘었고 자녀들도 성취하였으니, 지금 만일 죽어서 한 구덩이로 들어간다면 곧 웃음을 머금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내가 의리에 대처하는 것은 지조나 고집스레 지키는 부녀자와는 크게 다르다. 하고는, 마침내 손수 자(尺)를 가지고 상복을 재단하고 가선을 두르며, 장례 도구 일체를 모두 실정에 맞게 하였고, 성복(成服하던 날에는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으며, 죽기 하루 전까지 모든 일을 다 친히 지휘하고 몸과 수족을 개끗이 씻은 다음, 전후 7일 만에 아무 병 없이 죽었는데, 그 방에는 맑은 향기가 가득하여 늦은 밤까지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에 처하는 그 안온한 태도가 사람을 감탄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렇게 우뚝한 정절(貞節)은 옛 역사에 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슬퍼하고 공경하여 감탄할 만한데, 더구나 재신(宰臣)의 처인 정부인이겠는가. 참으로 열(烈)하도다. 정려(旌閭)의 특전을 그런 집에 시행하지 않고 어디에 하겠는가. 즉시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고을에

정표(旌表)하게 하고, 고 황해도 관찰사 이의준의 제문(祭文)에는 '정렬(貞烈)'이라는 한 조항을 넣어서 말을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고분(古墳)

석기시대와 청동기를 거쳐 초기철기시대로 넘어오면 마한, 변한, 진한의 원삼국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고고학생 삼국시대를 고분문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는 삼국시대의 분묘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구조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인 역활을 하는 것이 고분의 발굴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특히 관계문헌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고분의 조사를 통한 여러가지 자료들 즉, 위치와 외형의 상태, 규격, 외부 및 내부시설 내용구조, 피장자의 위치와 계급, 부장품 등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참고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고분은 당시의 절대권력자인 왕이나 지배계층의 분묘로서 피장자의 매장상태를 보아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분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다른 특색을 지니며 발전하다가 통일신라이후 불교식 화장이 성행하면서 고분의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즉 고분의 시기는 집단 부족국가에서 국가적인 요소가 갖추어지는 삼국시대의 초기부터 통일신라가 고려에 의해 멸망되는 시기까지를 한정하며 일반적으로 고분발생시기는 고구려가 기원전 1세기경, 백제는 3세기 초, 신라와 가야는 3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의 개략적인 이해와 함께 현재까지 안양지역에서 조사된 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양사 주변지역에서 고분군이 발견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석수동 십자바위 아래 석실분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받았다.

아쉬운 점은 발견되는 고분모두가 이미 도굴된 상태에서 최악의 형태로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며, 삼국시대로 판단하는 석수동 석실분의 경우 평화보육육원에서 안양사 까지 이어지는 부근의 남북지역엔 이미 조사된 석실분이외에 몇기가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며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도굴되지 않은 원형의 석실분도 존재할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이 지역은 1990년 서울대박물관의 호암산성 발굴시 발견된 다수의 석실분과 영랑성의 존재여부를 관련지을때 이들과의 관련성도 함께

추정할 수 있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한편 비산동 정수장 부근의 경우도 현재 발견된 3기의 석실분외에 다수의 석실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곳 역시 정밀한 조사가 없어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될 뿐이다. 특히 정수장 시설이 들어서며 다수의 고분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분의 시기는 삼국시대 초기로 판단하나 세부적인 조사없이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주목되는 것은 이곳에서 붉은 토기편과 수확도구인 반월형 석도가 수습되었는데 모두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이 부근이 복합적인 문화유적층이 존재하던 지역임도 감안할 수 있어, 석수동 고분군과 함께 세부적인 정밀조사와 고분의 분포상을 파악하여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1. 석수동 석실분(石水洞 石室墳)

- 종별번호 : 0704-30-001
- 시　대 : 삼국시대
- 규　모 : 길이3.3m, 폭4.5m, 높이1.5m
- 소 재 지 : 석수동 산53-3
- 지　목 : 임야
- 재　료 : 화강암
- 관 리 자 : 안양시

'91년 4월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26호로 지정된 석수동 석실분은 삼성산의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내려온 구릉의 정상부에 화강암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삼국시대의 것으로 해발 3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분은 산의 정상부를 향해 남북으로 축조되어 있다.

석실 내부는 화강암의 할석을 동, 서 북벽의 면에 맞추어 축조했으며 남벽은 대판석 1매로 축조하였다. 동서벽은 5~6단에, 북벽은 대소의 돌 6~7단으로 쌓여 있고, 남벽은 길이 1.8m 높이 1m의 대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석실내부는 길이 3.3m, 폭1.4m, 높이 1.5m에 바닥은 내부에 흙이 충진되어 알 수 없지만 별다른 시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수동 석실분 (서→동)

석실의 두껑은 3매 판석을 사용하였

으며 가운데 덮개석이 안으로 도괴 되었고 외부는 흙으로 보강된 점을 보아 횡혈식 석실분에 남벽을 이용해 추가장 했던 것으로 보이는 초기 횡혈식 석실분으로 연도가 생기기 이전 것으로 추정한다.

남벽 외부의 경우 흙이 파헤쳐진 것은 도굴을 하기위해 이곳을 파내다가 대판석 때문에 불가능하자 뚜껑돌을 들어내고 들어간 것으로로 보이며 전하는 말에 20여 년전에 이곳에 금제태환(金製太鐶)이 나왔다고 하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시에는 아무런 부장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석수동 석실분 내부남벽 (북→남)

2. 안양사뒤 석실분(安養寺뒤 石室墳)

종별번호 : 0704-30-002

시　　대 : 삼국시대

규　　모 : 길이3.3m, 폭1.5m, 깊이9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1-2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없음

안양사 미륵불에서 북서방향으로 20m부근 계곡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축조되었는데 형태는 석수동 석실분과 같이 산의 정상부를 향한 북침(北枕)의 석실로 남북으로 축조되었다. 화강암 할석을 이용해 동서북벽을 쌓고 남벽은 판석 1매로 되있으며, 전체적으로 동벽과 북벽은 2단의 돌이 있고 서벽은 3단으로 되어있다. 덮개석은 없으며 석실의 길이는 3.4m이고 폭은 1.5m이며 현재 남아있는 높이는 0.85m이다.

남벽단석은 길이 1.7m에 높이는 0.54m이고 석실내부에는 흙이 높게 충진되어 바닥의 상태는 알 수가 없다.

석실의 상태는 완전히 파괴되어 석실의 형태나 알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으며 십자바위 아래 석실분과 같이 수혈식 석실분에서 연도가 없는 횡혈식 석실분→연도가 있는 횡혈식 석실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석실분이다.

안양사 뒤 석실분 (남→북)

3. 비산동 석실분(飛山洞 石室墳)

종별번호 : 0704-30-003

시　　대 : 청동기-초기철기

규　　모 : 1호분 ; 석실길이 1.7m, 석실폭 1.5m, 석실높이 1.3m

2호분 ; 석실길이 2.3m, 석실폭 2m, 석실높이 1m

소 재 지 : 비산동 176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편마암

관 리 자 : 없음

○ 1호분

비산동 정수장 서북쪽 방향으로 정수장 입구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석실분의 형태는 파괴의 정도가 심하며 개석과 함께 벽석이 있고 서쪽 벽은 일부가 유실되어 유실된 벽으로 각종 오물이 투입되어 있는데 서벽의 돌을 빼내고 도굴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석과 벽석은 모두 편마암으로 개석의 규모는 남북 4.9m에 동서로는 3.3m두께는 40cm이며 석실내부는 길이 1.7m에 석실폭 1.5m높이는 1.3m이다. 석실의 구조는 동벽은 원래있던 자연석의 단면을 이용하였으며 남, 서, 북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쌓아 올렸고 바닥에는 흙과 낙엽으로 덮혀있다.

그러나 이곳 석실분은 내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고분형태의 또 다른 시설물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로선 세부적인 조사가 없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형태상으로는 "연도

비산동 1호 석실분 (서→동)

비산동 1호 석실분 내부 (서→동)

주변 수습물, 반달 석도 및 홍도편

없는 수혈식 석실분으로 초기삼국시대의 분묘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붉은 토기(1.5cm× 1.8cm 두께 0.8cm)편과 반월형 석도편(4cm×3cm, 두께 0.8cm)이 발견되었으며 석도의 경우 손잡이 끝부분이 완만한 각도로 칼날부분과 이어져 있는데, 이러한 토기 및 석토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지역이 청동기에서 철기시대까지의 집단 주거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특히 정수장 구릉지와 남쪽의 평촌들이 이어져 있고, 평촌지역의 경우는 지난 90년초 명지대의 조사발굴로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와 초기백제주거지 및 각종유물이 출토된 점을 고려할 때 정수장 부근의 고분군과 깊은 연관이 있슴을 짐작케 한다.

○2호분

2호고분은 1호고분에서 남쪽으로 100m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호 고분과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축조되었으며 서편으로 10°가량 기울기에 개석은 동쪽으로 1매가 덮혀있고 서쪽개석은 유실되었다. 내부는 남북, 동벽의 경우 크고 작은 할석으로 3~4단이 쌓여있으며 바닥은 흙이 충진되었고 서벽은 산의 지형 흐름에 따라

붕괴되어 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2.2m에 폭 1m로 남북으로 걸쳐있고 석실은 길이 2.3m에 폭 2m, 높이는 1m이다.

이와함께 2호분의 동북방향으로 함몰된 1기의 고분이 있어 주변지역 즉, 1호분을 중심으로 한 서남방향으로 학술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유적의 내용규명을 해야하며 주변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등산로임을 참고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기념물 고분군으로 지정이 시급하며 시기는 숲에 잎이 무성하지 않은 동절기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비산동 2호 석실분 (남서→동북)

묘(墓)

좌우 산맥을 고르고 앞뒤로 땅의 지기를 보아 물의 흐름을 살펴 남향의 밝은터에 집을 지으면 양택이고 묘를 세우면 음택이다.

묘역의 조사는 1910년을 기준으로 피장자가 확인되는 묘를 우선으로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묘가 상당수이며 피장자가 확인되어도 무조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인물의 수록 기준이 또한 문제가 된다.

조사된 16곳의 묘와 묘역은 우선적으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되 문무 급제자를 수록하였으며 묘역의 위치와 석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묘의 위치와 현황을 기록하였다.

묘역 현황은 조선시대 분묘에 관한 연구자료를 제공할뿐 아니라 석물의 조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안양지역의 묘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봉분의 구조는 중앙에 봉분을 감싼 토성 즉 사성과 함께 봉분의 주위로는 봉분의 손실이나 훼손을 막는 병풍석이 감싸있고, 봉분 앞으로는 피장자의 혼이 노닌다는 혼유석과 상석이 있으며 상석 앞으로는 향로석과 술잔을 올려놓는 준석이 우측으로 자리하고, 상석의 받침은 북석이라 하는 북을 닮은 돌을 괴어 논다. 다시 상석 뒤로는 불을 켜는 장명등이 있고 좌우로는 혼백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망주석을 설치한 후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동자석과 묘를 지키는 문무석이 버티어서며 고인의 출생과 관직·업적을 기록한 묘비가 위치한다. 묘비는 문패와 같은 것으로 묘 앞에 성명만을 기록한 단순한 묘표가 있으며 별도의 묘비를 지대석위에 비신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묘갈"이라 기록한 묘갈을 함께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봉분의 구조는 높은 관직에 있거나 한 경우이고 일반인에 경우는 겨우 봉분이나 쌓고 묘 앞에 "유학생 ○○○지묘"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묘역에 설치하는 각종 석조물은 조선조 이전에는 석비의 제도와 형식이 있어 규제가 있었고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규제와 제도가 허물어지

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양상을 띄게 되어 석조물의 조각 수법도 치졸하고 단순하며 고려시대에 비하여 예술적인 가치의 격식도 퇴조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묘역조성에 대한 열성은 유교적 관습에서 오는 충효정신 및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과 함께, 묘역을 호화롭게 하므로 가문과 문벌을 과시하려는 지나친 욕심이 과다하게 자행되어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있었으니 「경국대전」 3권 예전에는 분묘의 조성 넓이에 있어 "분묘는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짐승을 치는 것은 금지한다"로 시작되어 "▲ 종친의 경우 (1품) 사면각 일백보, (2품) 사면각 구십보, (3품) 사면각 팔십보, (4품) 사면각 칠십보, (5품) 사면각 육십보 (6품) 사면각 오십보로 한정하고 문무관은 10보씩 줄인다, ▲ 7품 이하의 관리나 생원, 진사, 조상의 음덕을 받게 된 사람은 6품과 같이하며 여자는 남편의 벼슬을 따른다, ▲ 장사지내기 전에 땅을 일군 것을 금하지 않으며, ▲ 도성부근 10里와 100步이내는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라 기록되어 있고 또한 분묘의 높이 즉 분고에 대하여도 「국조오례의」 8권에 '분고는 사척'이라 하였고 「가례증해」 6권에도 '분고4척'이라 하여 분고는 사대부나 서인 모두 4척으로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묘역 석물에 있어서도 조선초에는 석물의 지나친 사치를 금하는 금령이 태종 10년에 있었으며 비의 높이와 수량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나 그것 또한 잘 실천되지가 않았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조선시대의 묘역규제와 형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형태는 현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해를 매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가장 엄숙한 행위로 정중하고 깊은 장송의례는 당시의 사회상 · 문화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묘의 제반 사항과 요소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역사, 문화의 한 면을 깊이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다.

1. 진주하씨 묘역(晋州河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160평

소 재 지 : 석수1동 54, 57번지

지　　목 : 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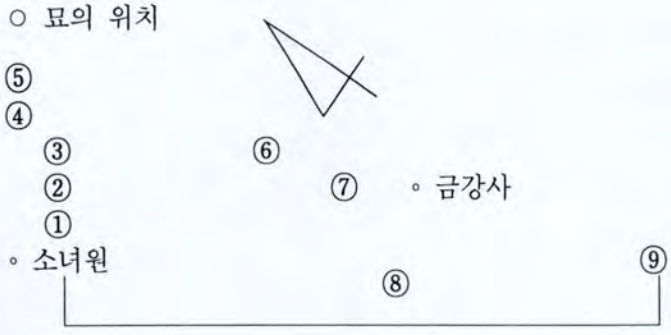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하한용

학무봉 아래 마을(석수1통)은 진주 하씨의 오래된 세거지로 세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河演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며 근세에는 안양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항일투쟁을 하던 河永泓(1879년~1915년)이 안양시 석수동 지역에선 최초로 교회를 세운 이곳은, 마을의 동서로 길게 내려온 학무봉에 진주 하씨의 묘역이 있다. 모두 13기이나 이중 1기는 최근에 조성된 묘이며 나머지 12기를 조사하였다.

진주하씨 천남묘 (서→동)

○ 묘의 위치



1번) 하공묘(河公墓) 최근에 조성된 묘이다.

2번) 하공묘(河公墓) 묘비는 없으며 21평 규모로 하태엽의 묘라하며 석물로는 동자석 2기와 상석 향석이 있고, 재질은 모두 화강임이다. 봉분은 높이가 140cm에 지름이 350cm이다. 좌측 동자석은 전고 115cm, 견폭 26cm, 우측 동자석은 전고106cm 견폭 25cm이며, 상석은 가로 120cm 세로 83cm 폭 36cm이며,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35cm이다.

진주하씨 천남묘 좌·우 문인석

3번) 하천남묘(河天南墓) 약20평 규모이며 쌍분이다. 석물로는 화강암 재질에 모표1기 문인석2기 상석과 향석이 있다. 봉분은 높이가 150cm에 지름이 150cm로 2기에 좌측 문인석은 전고가 94cm에 견폭이 30cm이고, 우측 문인석은 전고 80cm에 견폭 34cm이며, 상석은 가로 110cm 세로 75cm 폭 25cm, 비고는 120cm에 너비가 50cm 두께는 17cm로 비전면에서는 「통덕랑 진주하공 휘 천남 배공인 전주이씨 쌍부」라 쓰여 있으며 뒷면에는 병무 3월초 일입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4번) 하공묘(河公墓) 비문은 없으며 13평 규모에 봉분만 있다.

봉분의 높이는 120cm에 지름은3m이다

5번) 하두홍묘(河斗興墓) 22평 규모에 석물로는 화강암 석재의 향석과 상석 대리석으로 된 묘표가 있다.

봉분은 높이 140cm에 지름은 3.5m이고 상석은 가로 130cm 세로 83cm 두께는 34cm이며,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17cm 두께 25cm에 묘표는 비고 105cm 너비 35cm 두께는 14cm로, 비면에는 「통정대부 진주하공 휘 두홍지묘」라고 쓰여 있고 측면에는 무진생 갑자 2월 5일 졸, 1984. 4. 5일 입이라 되어있다.

6번) 하득랑묘(河得郎墓) 쌍분에 19평 규모로 화강암재의 상석과 향석이 있고 대리석 묘표가 있다.

좌측 봉분의 지름은 330cm에 높이가 90cm, 우측 봉분은 지름 320cm에 높이가 90cm이며 상석은 가로 110cm, 세로 70cm 폭 37cm이고,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25cm, 두께 50cm며, 묘표는 비고 120cm에 너비 40cm, 두께는 18cm로 묘표에는 「처사진주하공 휘 득랑 배 유인 경주김씨 쌍부」라 쓰여 있으며 측면에는 「인조 무진생 영조을미 5월 3일졸. 단기4315년8월입」으로 피장자는 생존연대가 1628년~1775년 임을 알 수가 있는데 147년간을 생존한 것이 되어 혹 오기가 아닐까 한다.

7번) 하우청묘(河遇淸墓) 명종16년(1561년)~광해군14년(1622년)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호는 낙선재, 본관은 진주로 세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연의 5대손이며, 의금부도사를 엮임했다. 묘는 24평 규모로 화강암 상석과, 향석, 망주석이 있으며 대리석으로 된 묘갈이 있다. 묘갈의 내용은 하호영이 지었으며 전면에 「의금부도사 진주하공, 배공인 밀양박씨지묘」라 되있고 1982년에 세운 비이다.

봉분은 지름5m에 높이는 160cm, 상석은 가로 120cm, 세로 80cm, 두께 25cm, 향석은 가로 29cm, 세로 25cm, 두께 43cm이며, 망주석은 좌우측 모두 주고 162cm에 지름 25cm이고 비신은 비고 130cm, 너비 46cm, 두께 20cm이다. 지대석은 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10cm이며 비갓은 가로 73cm, 두께 41cm, 높이는 48cm이다.

진주하씨 우청묘 (서→동)

8번) 하공묘(河公墓) 쌍분에 10평 규모로 상석과 향석이 있다.

봉분은 좌우 지름 3m에 높이 115cm이며 상석은 가로 110cm에 세로 74cm, 두께는 25cm이고 향석은 가로 28cm세로 17cm에 높이는 30cm이다.

9번) 하준엽묘(河俊曄墓) 20평규모로 문인석 2기와 상석, 향석, 대리석 묘표가 있다.

묘표 전면에는 「통정대부 진주하공 휘준엽 배 숙부인 경주김씨 지묘」라고 써 있으며 후면에는 「1984년 4월 5일 입, 갑인생, 무오7월 5일 졸」이라 되어 있다.

봉분은 높이 110cm에 지름 4m, 좌측문인석은 전고 100cm에 견폭 28cm이고, 우측문인석은 전고 103cm에 견폭 28cm이며, 비는 고 105cm에 너비 37cm, 두께 15cm이며, 상석은 가로 120cm에 세로 82cm, 두께 32cm에 향석은 가로 32cm, 세로 22cm, 높이 37cm이다.

2. 창령조씨 묘역(昌寧曺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116평

소 재 지 : 석수1동 산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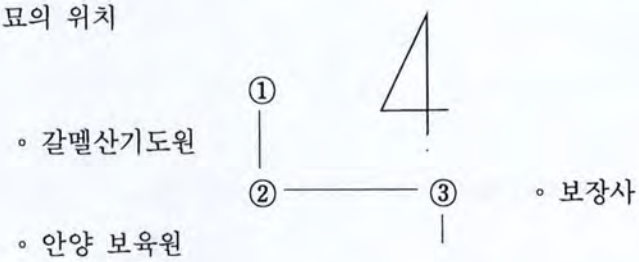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조옥현

비산유원지 공동주차장 뒷산, 10여m 지역에 위치한다.

○ 묘의 위치



1번) 조하경묘(曺河卿墓) 32평 규모로 대리석 모표와 화강암 상석, 향석, 망주석 2기가 있다.

봉분은 높이 120cm에 지름 430cm이며, 우측망주석은 주고 150cm에 지름이 35cm 좌측망주석은 주고 150cm에 지름 40cm이며, 상석은 가로 140cm, 세로 80cm, 두께 33cm이고,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27cm, 높이 37cm이며 비신은 비고 127cm, 너비 61cm 두께 25cm에 지대석은 가로 87cm, 세로 50cm, 두께는 24cm이다.

비전면에 「통정대부 행 순천도호부사 조공 하경 지묘 숙부인 청주한씨 부좌」라 되어 있는데 조하경은 1635년~1710년의 인물로 35세인 헌종 13년(167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2번) 조윤창묘(曺潤昌墓) 조하경의 손자인 윤창의 묘이다. 생존은 숙종 20년(1694년)~영조26년(1750년)으로 묘는 24평 규모에 상석과 향석이 있다. 봉분은 높이 150cm에 지름이 4cm이고 상석은 가로 125cm, 세로 85cm, 두께 34cm이며, 향로석은 가로 26cm, 세로 20cm, 높이는 35cm이다.

3번) 조란서묘(曺鸞瑞墓) 선조1년인 1568년 무진년에 나서 인조12년인 1634년 갑술년에 운명했다. 묘는 60평 규모에 상석과 향석, 비석, 문인석 2기와 동자석 1기, 망주석 2기가 있다.

봉분고는 140cm에 지름 4m이며, 향석은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는 24cm이고 상석은 가로 133cm에 세로 80cm 두께 25cm이며 동자석은 전고 67cm에 견폭 27cm이다. 동자석 우측 1기는 분실하였다. 문인석 좌측 전고는 150cm에 견폭 46cm이고 문인석 우측은 전고 144cm에 견폭 45cm, 좌측 망주석은 주고 130cm에 지름 40cm 우측 망주석은 주고 145cm에 지름 37cm, 비석은 비고 124cm 너비 53cm, 두께 24cm이며 지대석은 가로 95cm 세로 62cm, 두께 34cm로 전면에 「통정대부 행 합천군수 조란서 지묘」라 쓰여 있다.

창령 조씨 란서 묘 동자석 (동→서)

창령 조씨 란서 묘 (남→북)

창령 조씨 란서 묘 우측 문인석 및 망주석 (서→동), 창령 조씨 란서 묘 좌측 문인석 및 망주석 (동→서)

3. 조하신묘(曺河臣墓)

종별번호 : 0704-31-00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15평
소 재 지 : 석수1동 산45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조병조

비산유원지 입구 경수산업도로 사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100m거리 우측산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4기가 있으나 1기를 제외한 3기는 피장자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며 그중 1기를 조사하였다. 조하신은 광해군 3년(1611년)~숙종 12년(1686년)의 인물로 자는 익문, 창령조씨 창산군파 란서의 손자이다. 무과 급제후 역내 의장을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다. 화강암으로된 상석과 향석 망주석 2기가 있으며 비가 있다.

봉분 높이는 1m에 지름 260cm이며 상석은 가로 140cm, 세로 82cm, 높이는 40cm며, 향석은 가로 28cm, 세로 20cm, 높이는 12cm이고, 좌측 망주석은 주고 180cm, 지름 44cm, 우측 망주석은 주고 175cm, 지름 40cm, 비고는 126cm에 너비 56cm, 두께 18cm이며 전면이 다음과 같이 음각되어 있다.

「증가선대부 병조참판 조공 하신 지묘 증 정부인 한산이씨 부우」라 기록되었고, 주변의 기타 석물로는 상석 3기, 망주석 4기가 있다.

창령조씨 하신묘 (서→동)

4. 유유묘(柳愈墓)

종별번호 : 0704-31-00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50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45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유원상

경수산업도로와 비산유원지 입구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100m지점 우측에 위치한다.

유유는 숙종 11년(1689년)~영조33년(1757년)의 인물로, 통정대부, 이조참의 행절충장군 첨지 충추부 사겸 오위장을 지냈다.

묘역은 50평 규모로 상석과 향석 망주석 2기가 있으며, 봉분고 1.5m, 지름 3m, 상석은 가로 144cm, 세로 90cm, 두께 70cm며, 향석은 가로 33cm, 세로 28cm, 높이 34cm, 망주석 좌측은 주고 186cm에 지름 47cm, 우측 망주석은 주고 173cm, 지름 42cm이다.

유유묘 (서-동)

유 유 묘 좌우 망주석

5. 문화류씨 묘역(文化柳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240평

소 재 지 : 비산동 17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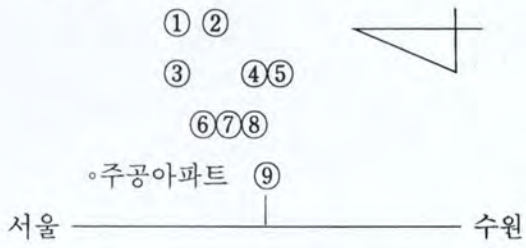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유제구

문화류씨 묘역은 비산동 환경사업소 서쪽 비산주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20m 지점에 5기의 묘와, 그 아래에 4기의 묘가 있다.

○ 묘의 위치



1번) 유두묘(柳頭墓)

묘역은 24평 규모이며 묘는 2단의 화강암 사방석벽으로 되어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이 유두의 묘이고 우측이 유장의 묘다. 대리석으로 된 상석과 향석 비 2기가 있으며 화강암으로 된 문석2기 망주석 1기가 있다.

봉분은 높이 180cm, 지름 3m이고 좌측문석은 전고 160cm, 견폭 30cm 좌측 문석(소)은 전고 100cm, 견폭 33cm이고 상석은 가로 127cm, 세로 96cm, 두께 80cm며 향석은 가로 38cm, 세로 34cm, 높이 44cm이고, 묘비는 비고 120cm에 너비 44cm, 두께 19cm,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가로

70cm, 두께 40cm, 높이 44cm이다. 묘 정면의 묘표는 비고 88cm에 너비 31cm, 두께는 23cm로 대부분에 석물은 근래에 제작되었으며 비문은 「형조참판 문화유공 두 지묘 배 정부인 □□□씨 부좌」로 1984년에 세워졌다.

2번) 유장묘(柳章墓)

묘역은 24평 규모로 유두묘와 함께 있다. 2단 사방 석벽에 봉분이 있으며 상석과 향석 문인석 2기와 망주석이 있고 유두묘와 함께하는 장명등이 있다.

봉분고는 180cm, 지름 3m며 장명등은 총고 185cm, 폭 36cm, 우측문석은 전고 160cm에 견폭 40cm며 문인석(소) 전고 110cm, 견폭 36cm며 우측 망주석 주고 168cm, 지름 30cm, 상석은 가로 140cm, 세로 86cm, 높이 68cm며, 향석은 가로 40cm, 세로 36cm, 높이 32cm로, 대부분의 석물은 근래 제작되었다. 봉분 우측에 묘비가 있으며 봉분정문에 묘표가 있다.

묘표 높이는 90cm, 너비 33cm, 두께 10cm며 지대석은 가로 55cm, 세로 35cm, 두께 8cm며 우측비의 비고는 118cm, 너비 40cm, 두께 18cm며 지붕은 팔작으로 가로 71cm, 두께 38cm, 높이 41cm며 지대석은 가로 73cm, 세로 49cm, 높이 12cm로 근래에 제작된 석물들로 비 내용은 「관찰사 유공장지묘 정부인 광산김씨, 정부인 □□□씨」라 써 있고 묘는 1984년 5월에 세웠다.

3번) 류지수 장로묘(최근묘)

4번) 유수강묘(柳守剛墓)

묘역은 21평에 2단 사방석벽으로 봉분이 되어 있으며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이 유수강 묘이고 우측이 유팽석 묘다.

주변 석물로 「갑자오월이라 표시된 묘표 및 묘비와 상석 향석, 문석 2기 망주석이 있으며 중앙 후미에 장명등이 있다.

봉분고는 160cm에 지름 3m, 좌측문석은 전고 110cm에 견폭 37cm며 망주석은 주고 157cm에 지름 40cm, 상석은 가로 114cm, 세로 79cm폭 55cm다. 향석은 가로 32cm, 세로 28cm, 높이 35cm이고, 석등은 총고 175cm로 대부분의 석물은 근래에 제작되었다.

비갓은 팔작에 가로 70cm, 두께 40cm, 높이 42cm며 비신고는 122cm에

너비 42cm, 두께 17cm이고 묘표는 고 86cm, 너비 30cm, 두께는 11cm 이다. 비문 내용은 「자헌대부 지중구 문화유공 휘 수강지묘 배정부인 백천이씨부좌」라고 되어 있다.

5번) 류팽석묘(柳彭碩墓)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수옹 성종19년(1488년)별시문과병과에 22등급으로 급제후 금산군수를 엮임했다. 묘는 29평으로 화강암의 병풍석벽에 봉분이 안치되어 있다.

봉분고는 160cm, 지름 3m며 상석은 가로 113cm, 세로 78cm, 높이 62cm며 향석은 가로 32cm, 세로 28cm, 높이 36cm이다. 문석은 전고 135cm에 견폭 40cm며 그 외 1기의 문석은 전고 105cm에 견폭 32cm며 석등은 총고 169cm에 망주석은 주고 157cm, 지름 40cm이고 묘표는 전고 140cm, 너비 42cm, 두께 19cm, 지대석은 가로 73cm, 세로 49cm, 높이는 12cm로 문석을 제외하곤 근래에 제작되었다. 묘 중앙에는 홍치 18년 을축8월(연산군11년) 1505년에 세워진 묘갈이 있으며 「증헌대부□□ 시호원필선 □□□□ □□□□유팽석 지석」이라 되어 있다.

춘추관 편수관

문화 류씨 팽석 묘 (서→동)

문화 류씨 팽석 묘 망주석 및 문인석

6번묘) 유중창묘(有仲昌墓) 7번묘) 유담묘(柳淡墓)

8번묘) 유실묘(柳實墓) 6, 7, 8번의 묘는 3기 모두 가로 2m, 세로 5.5m, 높이 80cm의 크기로 1단 사방석벽에 함께 안치되어 있으며 묘역은 60여평 규모이다.

유중창의 묘표문은 「돈령부 부정 문화유공 중창지단, 배공인 완산이씨 지단」이며 유담의 묘표는 「부안현감 문화유공 담지단, 배숙부인 평산 신씨 지단」 유실의 묘표에는 「통덕랑 문화유공 실 지 묘, 배 공인 옥천육씨 지단」이라 음각되어 있으며 묘표의 크기는 유중창의 묘표는 비고 91cm, 너비 30cm, 두께 12cm며 대석은 가로 50cm, 세로 32cm, 두께 5cm에 유담의 묘표는 비고 92cm, 너비 29cm, 두께 11cm며 지대석은 가로 52cm, 세로 35cm, 두께 5cm다.

유실의 묘표는 비고 92cm, 너비29cm, 두께 11cm며, 지대석은 가로 52cm, 세로 35cm, 두께는 5cm로 3기 모두 1984년 갑자 6월에 세워졌다. 주변 석물로는 좌로부터 상석3기는 가로 138cm, 세로 90cm, 두께 64cm, 중앙이 가로 105cm, 세로 74cm, 두께 53cm, 우측이 가로

91cm, 세로 360cm, 두께 45cm이고 향로석은 좌측이 가로 37cm, 세로 30cm, 높이 40cm, 중앙이 가로 27cm, 세로 24cm, 높이 30cm이고 우측은 가로 29cm, 세로 21cm, 높이 27cm이다.

문인석 2기 중 좌측이 전고 154cm, 견폭 35cm이고 우측은 전고 150cm, 견폭 34cm며 소형문인석 좌측은 전고 100cm, 견폭 33cm, 우측은 전고 103cm, 견폭 36cm이다. 망주석은 좌측이 주고 160cm, 지름 29cm, 우측은 전고 165cm, 지름 30cm며 석등총고는 178cm로 문석과 망주석을 제외하고는 최근의 석조물이다.

9번) 류정현 묘(柳廷顯 墓)

공민왕4년(1355년)~세종8년(1426년)의 인물로 호는 월정 자는 여명이다. 공민왕 시절 좌대언과 우대언을 엮임하고 조선 개국후 상주목사와 완산부윤을 거쳐 태종 4년(1404년) 경기좌도호 관찰사 및 충청도호 관찰사를 지냈다.

1410년 예조판서와 평양부윤, 대사헌을 엮임, 태종16년(1416년)에는 좌의정과 영의정에 올랐다.

묘역은 80평 규모로 봉분은 1단 사방석벽이며 주변 석물로 묘표4기 묘갈 2기와 상석, 향석, 문석2기, 무석 2기 및 석등이 있다. 봉분의 높이는 180cm, 지름 2m, 상석은 가로 153cm, 세로 97cm, 두께 80cm이고 향석은 가로 78cm, 세로 32cm, 높이 43cm이며 봉분의 좌측에 있는 비는 명문이 「새신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근정숙공 문화 유정현 지묘 배화경댁주 이씨 묘재 양주설리동□」이라 써 있고 후면은 「 숭정기원후 정축정월」이라 써 있어 묘표는 1637년(인조15년)에 세워졌음을 알수있다. 비고 108cm, 너비 48cm, 두께 18cm며 대석은 가로 72cm, 세로 41cm, 두께는 30cm이다. 묘 중앙의 묘표는 높이 92cm, 너비 42cm, 두께 20cm며, 글자의 내용은 마모가 심해 알 수가 없다. 묘 우측으로는 2기의 오석비가 있는데 1기는 「정경부인 청주정씨지묘」로 비고 78cm, 너비 27cm, 두께 12cm며 지대석은 가로 52cm, 세로 30cm, 두께 5cm이다. 화경댁비는 「화경댁주완산이씨지묘」로 비고 87cm, 너비 30cm, 두께 12cm이고, 지대석은 가로 50cm, 세로 32cm, 두께 10cm이다.

석물로는 좌측 문석이 전고 110cm, 견폭 28cm며 우측 문석은 전고 103cm, 견폭 28cm이며 좌측 무인석은 전고 160cm, 견폭 47cm며 우측 무인석은 전고 160cm, 견폭 44cm이다.

석등은 총고 178cm며 이외에 2기의 묘갈이 있다.

1기는 이수가 가로 84cm, 높이 65cm, 두께 55cm, 비신은 비고 164cm, 너비 61cm, 두께는 30cm며 지대석은 가로 97cm, 세로 65cm, 두께 24cm이다. 또하나의 묘갈은 지붕은 팔작형태로 가로 98cm, 높이 43cm, 두께 70cm이고 비고는 147cm, 너비 56cm, 두께 24cm며 지대석은 가로 97cm, 세로 70cm, 두께는 33cm로 1864년에 세웠다. 묘역의 석물은 대부분이 최근에 새로 조성하였으며 1864년에 세운 묘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류정현 묘갈 번역문

공의 휘는 정현(廷顯)이요, 자는 여명(汝明)이요, 월정(月亭)은 그 호이다. 문화류씨(文化柳氏)는 대승 차달(大丞 : 車達)을 모두 시조(始祖)로 하는 바, 오직 공의 가문에 사세오공(四世五公)은 함께 견줄 자가 없으니 정당문학 공권(政黨文學 公權)은 청렴 정직한 명망이 있었고 시(詩)와 필적(筆蹟)이 해동준선(海東瀉選)에 모두 들어 있으며, 대제학 택(大堤學 澤)과 문정공 경(文正公 璥)과 정신공 승(貞愼公 陞)과 장경공 돈(章敬公 墩)과 같은 분은 모두 대(代)를 이어 관작(官爵)과 명성(名聲)이 빛났었다. 휘 진(鎭)이 계시어 문화군(文化君)에 봉작(封爵)되고 사남(四男)을 출생하였는데 공은 그 셋째 아들이다. 공께서 고려(高麗) 공양왕(供讓王)때에 우상국현보(禹相國玄寶)로 더불어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 되었다가 우리 조선(朝鮮) 태종(太宗) 병신(丙申 : 一四一六)에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이르렀다.

주상(主上)께서 일찌기 곡연(曲讌)에서 가죽 한 장을 하사(下賜)하시며 이르시기를 「경(卿)의 수명이 가죽과 같이 질기고 길기를 바란다」하시고, 임금이 마시는 옥배(玉盃)로 술을 권하시니 공이 황송하여 사양하다가 마침내 사양치 못하고 받아 마시었다.

세종(世宗)께서 즉위(卽位) 하심에 이르러 상왕(上王 : 太宗)께서 말씀하시기를 「능원(陵園)에 불사(佛寺)를 설치함은 옛 도리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법(法)을 짓고자 하는 바, 공은 힘써 도와달라」하시었다. 이 해를 도통사(都統使)로써 왜적(倭賊)을 정벌하여 크게 승리하고 내외(內外)의 직책에 오래 맡기는 제도(制度)를 세웠다.

정승(政丞)의 지위 있기 무릇 십일년(十一年) 만인 선덕(宣德) 병오(丙午 : 一四二六) 오월십오일에 졸(卒)하니 향년(享年) 칠십이세였다. 주상께서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심히 슬퍼하사 금천교(金川橋)까지 납시어 망곡(望哭)하셨는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한편 유사(有司)로 하여금 장제(葬祭)의 갖춤을 한결 유상공 관(柳相公 寬)의 상(喪) 때와 같이 하였다. 시호(諡號)는 정숙(貞肅)이다.

묘소는 과천 관악산 남록(果川 冠岳山 南麓)에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동리(洞里)를 「영의정골모퉁이」라 불렀다. 배위(配位) 정경부인 정씨(貞敬夫人 鄭氏)는 서원백 오의 따님이요, 계배(繼配)는 화경댁주 이씨(和敬宅主 李氏)인데, 양주 설리동(楊州雪裏洞) 동강(同岡)에 장사하였다.

아들 의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참판이요, 장(樟)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찰사(觀察使)인데, 지금 양호(兩湖 : 湖西 · 湖南)에 분거(分居)하는 이들은 모두 관찰사의 후손이다. 공의 묘소가 중간에 난리를 겪어 그 전(傳)함을 잃었더니 후손들이 힘써 찾아 증험이 있었던 바, 드디어 정조(正祖)에게 아뢰었는데, 정조께서 감무(監務)에게 명하여 그 묘역을 정화하고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한편 그 후손을 찾아 관직을 내리셨다.

묘소를 실전(失傳)함에 당하여 비석에 새겨진 글이 다 이즈러져 가히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십육세손(十六世孫)으로 호남(湖南)에 사는 진사 도(進士 燾)가 공의 유사(遺事)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공께서 태사(太史)의 직책을 지냈으니 남은 글과 떨어진 책이라도 마땅히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라」하였다. 내가 진사와는 본래 문자(文字)로써 교류(交遊)가 있는바, 가히 그 효성(孝誠)을 저버리지 못할지라, 이에 명(銘)에 이르노니, 고려(高麗)가 망할 즈음에, 어진 이도 있고 위대한 이도 있었으며, 공훈도 있고 사업도 있었으니 가히 사적이 없는 것만 못하랴?

공께서 두 임금을 섬겼던 바 아아! 그 시기를 당하여 한갖 패란(敗亂)이 없었고 한갖 해치(害治)도 없었도다. 문(文)으로 다스리고 무(武)로 안정하여 예(禮)를 밝히고 악(樂)을 갖추었도다. 무엇으로 징거할건가? 문헌(文獻)에 실리고 사기(史記)에 실렸도다. 묘소가 무너졌다. 다시 높아졌으니 후손이 더욱 번성함인바, 이에 단갈(短碣)에 사적을 길이 새겨 영원히 이르노니 잊지 말찌어다.

숭정기원후오갑자(崇禎紀元後五甲子 : 서기 一八六四年) 二월 일 세움 십오세손 무과기영 십유세손 진사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겸 령경언 춘추관 홍문관 성균관 관상감사 원임규장각제학 양주 조두순 지음

자헌대부 공조판서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평산 신관호 씀.

문화 류씨 정현 묘 (남→북)

문화 류씨 정현 묘 좌우 문무석

6. 심간묘(沈諫墓)

종별번호 : 0704-31-006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115평

소 재 지 : 비산동 산127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심수섭

비산동국교 북쪽 2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기의 묘가 있으며 상묘는 심간의 묘이고 하묘는 심간의 배인 평양조씨의 묘이다.

심간의 본관은 청송이며 명종15년(1560년)~인조21년(1624년)의 인물로 자는 백기, 선조18년 생진시에 오르고 5년후 사업사 주박을 거쳐, 선조24년(1591년)금

청송 심씨 간 묘 (남→북)

화현감, 1623년에 아들 기원이 인조반정에 공을세워 청풍군수를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1988년 8월 15일 세운비가 있으며 신사범이 짓고 김동일이 썼다.

심간(沈諫)의 묘는 60평이며 봉분은 1단 원형 병풍석벽에 봉분 높이는 150cm, 지름은 3.8m이다. 주변 석물로는 묘갈과 상석 향석이 있으며 망주석 2기가 있다. 묘갈의 석재는 대리석이며 그외는 화강암으로, 묘갈은 지붕이 가로 100cm, 높이 60cm, 두께 75cm이고, 비신의 높이는 172cm, 너비 63cm, 두께 33cm이고, 지대석은 가로 107cm, 세로 70cm, 두께 25cm이다. 상석은 가로 153cm, 세로 97cm, 두께 60cm며 향석은 가로 27cm, 세로 28cm, 높이 54cm며 좌측 망주석은 주고 180cm, 지름 50cm. 이 망주석의 지대석은 가로·세로 60cm, 높이 27cm, 망주석 우측은 주고 180cm, 지름 40cm이고 지대석은 가로·세로 50cm, 두께는 17cm이다. 묘갈은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사 세자사행 통훈대부 청풍군수 청송 심공간지묘 배 증 정경부인 평양조씨 상하봉」이라 적혀있다.

심간 묘 좌우 망주석

심간 묘역 묘갈 (남→북)

평양 조씨 묘 좌우 문인석

• 심간처 조씨묘 : 약 55평의 규모로 1단 원형 석벽에 봉분이 안치되어 있다. 봉분 높이는 150cm, 지름 4m이고 좌측 망주석은 주고 180cm, 지름 50cm, 우측망주석은 주고 195cm, 지름 60cm, 좌측 문인석은 전고 174cm, 견폭 60cm, 우측 문인석 전고 180cm, 견폭 60cm이다. 상석은 가로 157cm, 세로 97cm, 높이 70cm며 향로석은 가로 37cm, 세로 34cm, 높이 63cm로 석재는 모두 화강암이다.

7. 전주이씨 묘역(全州李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7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220평

소 재 지 : 비산동 군부대안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이희덕

비산동 군부대 충의대 내(內), 위병소 북쪽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모두 7기의 묘가 있으며 조선조 태조 이성계의 손자인 이석근의 묘등이 있다. 정확한 묘역의 피장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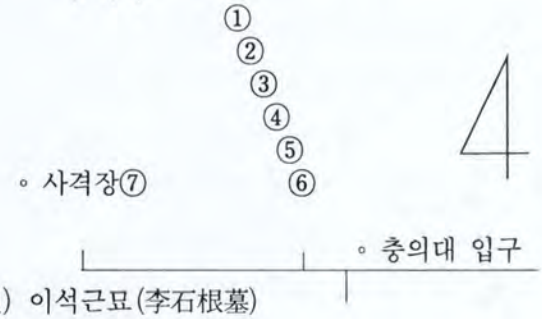
• 이석근(李石根) : 조선조의 청백리이며 자는 중국 태조 이성계의 손자며 방의에 아들이다. 익평부원군에 봉해졌고 최고의 작급인 대광보국승록대부에 이르렀다.

전주 이씨 석근 묘 (남→북)

시호는 안랑이다.

- 이 기(李 岐) : 명종2년(1547년)~선조23년(1590년) 자는백고, 방의에 7세손으로 율곡 이이의 문인이다. 선조12년(1579년)진사시에 올랐으나 문과시에 낙방하자 술과 시로 일생을 보냈다. 후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이정용(李廷龍) : 선조12년(1579년)~?. 자는 몽천, 호는 남곡으로 이기에 아들이다. 사헌부감찰을 엮임했다.
- 이종용(李從龍) : 선조18년(1585년)~?. 자는 몽택, 호는 운곡으로 이기에 아들이다. 광해군4년(1612년) 사마시에 급제후 양천 현감을 엮임했다.

○ 묘의 위치



1번) 이석근묘(李石根墓)

약50평 규모이며 봉분은 3단의 사방석벽이 있다. 봉분은 높이 2m에 지름 5m이며 주변 석물로는 화강암의 상석이 가로 130cm, 세로 84cm, 두께 40cm이고 묘표가 있으나 글씨의 형태를 알수 없는 비가 있다.

비고는 120cm, 너비 47cm, 두께20cm이고, 좌측 문석은 전고 165cm에 견폭 47cm, 우문석은 전고 164cm에 견폭 43cm, 석등은 총고가 179cm이며 1970년에 세운 비가

이석근 묘 문인석 및 묘비

있다. 비의 이수는 가로 63cm, 높이 49cm, 두께 40cm고, 비신고는 142cm, 너비 46cm, 두께 21cm며, 지대석은 가로 77cm, 세로 50cm, 두께 14cm로 비명은 「유 조선국 대광보국 승록대부 익평부원군 묘비, 진한국 대부인 화숙 옹주 경주김씨 합부」라고 쓰여있다.

2번) 이공묘

묘역은 30평 규모이며 봉분은 높이 2m에 지름 130cm로 쌍분에 상석은 가로 138cm, 세로 76cm, 높이 23cm며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28cm이다.

3번) 이기묘

약40평 규모이며 봉분은 2단석벽에 지름 5m, 높이 2.4m이다. 봉분의 양끝으로 사방석벽을 이은 축석이 있으며 우측 280cm 좌측이 280cm이다.

석물로는 묘표 1기와(비갓, 가로 57cm, 높이 40cm, 두께 25cm, 비신고 80cm, 너비 43cm, 두께 15cm, 지대석 가로 67cm, 세로 45cm, 두께 15cm) 좌문석은 전고 170cm, 견폭 46cm, 우문석 155cm, 견폭 47cm이며 석등은 총고 164cm에 비갓은 가로 70cm, 높이 38cm, 두께 47cm며,

전주 이 씨 기 묘 (남→북)

비신고 120cm, 너비 40cm, 두께 20cm, 지대석은 가로 67cm, 세로 45cm, 두께는 15cm에, 1976년에 세운 비가 있다. 묘비명은 「진한국 대부인 김씨묘비」이다.

4번) 이공묘

20평 규모에 봉분은 높이 140cm, 지름 3m이고, 석물로는 상석1기, 묘갈1기, 석등1기 문석2기가 있다. 상석은 가로 122cm, 세로 94cm, 두께 50cm며 묘갈갓은 가로 65cm, 높이 60cm, 두께 35cm며, 묘갈고는 85cm, 너비 53cm, 두께 20cm다. 지대석은 가로 64cm, 세로 34cm, 두께 20cm이며 석등의 총고는 167cm, 좌측문인석은 전고 158cm, 견폭 50cm며 우측문인석은 전고 166cm에 견폭 54cm로 묘갈명은 「명선대부 □남도정례 신인이씨 합장지묘」라 쓰여있다.

5번) 이공묘

묘역은 12평이며 봉분 2m 높이에 70cm, 상석은 가로 93cm, 세로 64cm, 두께 23cm이다.

6번) 이준묘(李俊墓)

묘역은 33평이며 봉분 높이는 130cm에 지름 3m, 상석은 가로 110cm, 세로 80cm, 두께 34cm, 향석은 가로 31cm, 세로 28cm, 두께 55cm이며 좌측문인석은 전고 136cm, 견폭 43cm, 우측문인석은 전고 140cm에 견폭 44cm이며 묘표가 있다. 묘비는 비고 135cm에 너비 47cm, 두께 22cm며 비갓은 가로 78cm, 높이 43cm, 두께 52cm, 지대석은 가로80cm, 세로 53cm, 두께는 12cm이다. 묘표의 내용은 「창선대부 행 잠양부수 휘준 배신인 려산 송씨 지묘」이다.

7번) 이공묘

묘역은 32평이며 봉분은 높이가 90cm, 지름이 3m이다. 향석은 가로 34cm, 높이 32cm, 세로 20cm, 상석은 가로 141cm, 두께 25cm, 세로 84cm, 비는 너비 57cm, 비고 136cm, 두께 16cm, 지대석은 가로 93cm, 높이 20cm, 세로 57cm이며 좌측문석은 전고 140cm, 견폭 45cm에 우측문인석은 전고 130cm에 견폭 45cm이다.

8. 진주류씨 묘역(晋州柳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110평

소 재 지 : 비산동 군부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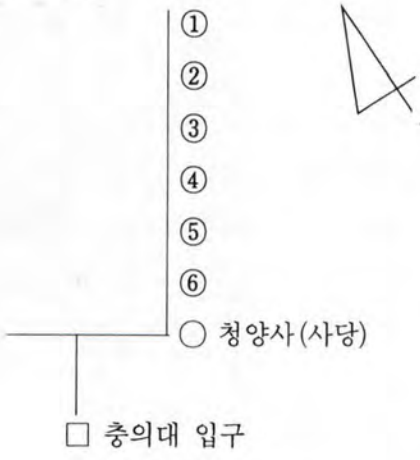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유병춘

비산동 군부대, 충의대안 위병소 북동40° 방향인 우측으로 모두 6기의 묘가 있다.

○ 묘의 위치



1번) 유승손묘(柳承孫墓) 시조 차달의 18대손으로 묘역은 17평 규모에 봉분은 높이가 4m에 지름 160cm 크기이다. 주변 석물로는 대리석 묘표가 있으나 글씨의 마모가 매우 심하며, 좌측에 비 지대석 1기가 있다. 묘표는 비고 108cm, 너비 53cm, 두께 13cm이고 이수는 가로 60cm, 높이 36cm, 두께 18cm며 지대석은 가로 75cm, 세로 46cm, 두께는 20cm이다.

진주 류씨 승손 묘 (서→동)

류 승 손 묘비 (남→북)

2번) 유승손처 덕수 장씨(德水張氏墓)

유승손 배인으로 19평 규모에 봉분은 높이 160cm, 지름 4m 크기이다.

석물로는 상석과 묘앞에 지대석 1기 및 문인석 4기와 석등이 있으며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상석은 가로 130cm, 세로 88cm, 두께 18cm에 지대석은 가로 86cm, 세로 55cm, 두께 26cm이며 묘를 쳐다보며 좌측문인석 좌측은 전고 176cm, 견폭 40cm, 좌측문인석 우측은 전고 176cm에 견폭 40cm이다. 또한 묘 우측으로도 2기의 문인석이 있는데 우측문인석 우측은 전고 170cm, 견폭 85cm, 좌측은 전고 186cm에 견폭 40cm며 석등의 총고는 160cm이다. 그와에 단기 4303년 5월(1970년)에 세운 비가 있으며 비갓은 팔작지붕에 가로 90cm, 높이 40cm, 두께 61cm이고 비신은 비고 153cm에 너비 55cm, 두께 24cm이며, 지대석은 가로 90cm, 세로 18cm, 두께 3cm에 전면 내용은 「증가선대부 병조참판겸 동지 의금부사 행전라수군 절도사 진주유공 승

손지묘 배 정부인 덕수장씨 계하 각명봉」이라 음각되어 있고 「덕수장씨 계하」라 하여 배인의 묘가 2번묘임을 알 수가 있다.

3번) 유계종묘(柳繼宗墓)

묘역은 24평 규모이며 봉분은 높이가 100cm 지름은 3m의 크기로 주변 석물로는 상석과 문인석 4기, 석등이 있다.

상석은 가로 147cm, 세로 87cm, 두께 22cm며 묘를 중심으로 2기씩의 문인석이 있다. 좌측 문인석 좌편은 전고 185cm에 견폭 57cm, 우편은 전고 174cm에 견폭 43cm, 우측문인석 좌편은 전고 178cm, 견폭 44cm, 우편은 전고 190cm, 견폭 62cm이다.

석등은 총고 150cm의 크기이며 석재는 모두 화강석에, 2번 묘와 같은 연대인 단기 4303년(1970년)에 세운 비가 있으며 크기는 비갓 가로 91cm, 높이 50cm, 두께 62cm, 비신 너비 54cm, 비고 146cm, 두께는 22cm며, 지대석 가로 92cm, 두께 28cm, 세로 67cm로 전면내용은 「유명 조선국 병충분의결책 익운정국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겸 지 의금부사 청양군 진주유공지묘」란 내용이 있다.

그러나 비문 내용중 「공신」의 칭호는 중종1년, 연산군 12년(1506년) 윤대비

진주 류씨 계종묘 (서→동)

의 하명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신 즉, 중종반정에 참여한 103명중 1등 공신에게 주는 칭호이며, 중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유계종은 3등 공신 30명과 함께 「병충분의익운 정국공신」의 칭호를 받아 비문의 공신 칭호는 오기임을 알 수가 있다. 청양군 유계종의 생존 연월일은 세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자는 자경, 무과 별시 급제자로, 비문의 내용 외에 함경도 병마절도사와 도호부사를 엮임하고 배인은 완산 이씨 이다.

4번) 유담묘(柳潭墓) 묘역은 약7평 크기로 봉분은 높이 90cm, 지름 2m이다. 1970년에 세운 비가 있으며 묘표갓 가로 88cm, 세로 67cm, 높이 46cm, 비신고 113cm, 너비 37cm, 두께 16cm로 「통덕랑 담 지묘」라 쓰여 있으며 유담의 자는 사순 무인4월17일~무오12월로 배인은 강릉 김씨이다.

5번) 유일원묘(柳逸原墓) 묘역은 약8평 크기이며 봉분은 높이 1m, 지름2m이다. 자는 경지로 기미 12월 26일~경신 10월 4일로 배인은 탐진 최씨이다.

6번) 유상현묘(柳相鉉墓) 묘역은 8평 크기이며 봉분은 높이 1m, 지름 2m이다.

• 청양사(菁陽祠) : 2번묘의 유계종을 중시조로하는 문중사당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28평 규모의 사당이다.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기둥은 콘크리트이며 단기 1403년 경무(1970년)7월 28일 새로 중건하였다.

류 계종 묘 좌측 문인석 2기

류 계종 묘 우측 문인석 2기

류 계종 묘 묘비

진주 류씨 사당 청양사 (서→동)

9. 덕수장씨 묘역(德水張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09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210평

소 재 지 : 비산동 안날미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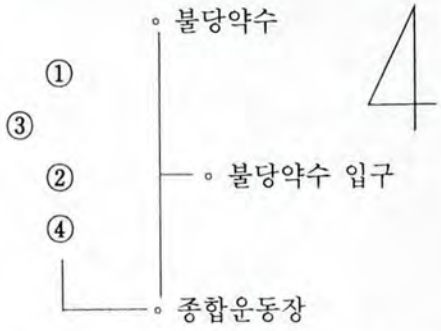
관 리 자 : 장순태

비산동 종합운동장 북쪽으로 500여m 안날미 뒷산에 위치한다.

묘는 모두 6기이며 묘역의 석물중 동자석은 좌우 배치의 형태가 아닌 상석을 등으로 받쳐 있어 일반적인 조선시대의 묘역 석물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장씨 언방 묘 (남→북)

○ 묘의 위치



1번) 장언방묘(張彦邦墓)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을 역임한 인물이며 묘역은 67평 규모로 봉분은 쌍분이다. 봉분의 좌측 1기는 1단 원형 병풍석벽이며,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 동자석 2기가 있으며 묘표는 글씨가 마모되었고 석물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상석은 가로 167cm, 두께 30cm, 세로 99cm, 좌측 문인석은 견폭 53cm, 전고는 157cm이고, 우측 문인석은 견폭 50cm, 전고 184cm이다. 망주석 좌측의 주고는 170cm, 지름 43cm, 우측 망주석은 주고 180cm, 지름 44cm에 좌측 동자석은 전고 70cm에 견폭 30cm이며 우측 동자석은 전고 76cm, 견폭 30cm, 묘표는 고 124cm, 너비 60cm,

장 언방 묘 좌우 문인석

두께 19cm, 지대석은 가로 90cm, 세로 60cm, 두께는 37cm이다.

2번) 장순묘(張洵墓)

장언방의 큰아들로 명종4년(1549년) 사마시 급제후 통천군수를 엮임했으며 가정계미, 중종18년(1523년)생이다. 묘역은 58평이며 묘표가 있으나 글씨는 마모되었다. 봉분은 쌍분이며 봉분 높이는 147cm, 지름 3m의 규모에 상석은 가로 153cm, 세로 90cm, 두께 27cm에, 문인석은 좌측이 전고 140cm, 견폭 46cm, 우측이 전고 148cm, 견폭 50cm이고 좌측 동자석은 전고 88cm, 견폭 32cm, 우측은 전고 88cm, 견폭 32cm이다. 묘 앞으로 묘표가 있으나 마모가 심하며 높이가 113cm, 너비 58cm, 두께 17cm, 지대석은 가로 82cm, 세로 52cm, 두께 36cm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3번) 장원묘(張沅墓)

장언방의 둘째 아들이며 자는 숙이, 명종4년(1549년)사마시 급제후 통진현감을 엮임하고 승정원 좌승지를 증직하였다.

묘역은 55평 규모로 주변 석물은 없다. 봉분 지름은 250cm, 높이는 110cm, 상석은 가로 154cm, 세로 94cm, 두께 21cm이다.

4번) 장시눌묘(張詩訥墓)

장순의 아들이며 묘역은 30여평, 봉분은 지름은 3m, 높이는 120cm이다.

장 언방 묘 좌우 망주석

장 언방 묘 동자석 (남→북)

10. 전주류씨 묘역(全州柳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10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180평

소 재 지 : 비산동 산 83-1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전주류씨 종친회

종합운동장 북동쪽으로 150여m 지점에 위치하며 상묘는 류덕옥 하묘는 류작의 묘이다. 그외 묘역 좌측에 유씨 묘일 것으로 추정되는 묘 2기가 있다.

○ 류덕옥묘(柳德玉墓) : 효종4년(1653년)~숙종37(1711년)년의 인물로 숙종2년 무과 급제후 도총 부도사를 거쳐 숙종20년(1694년) 장흥부사 재직시 흉년으로 고생하는 장흥 고을을 구제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전주 류씨 덕옥 묘 (남→북)

숙종 28년 동지중추부사에 재수 되었으며 구성부사로 재직중 수토병으로 사망했다. 묘갈명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유공 묘갈명」으로 지붕 높이 40cm, 가로 124cm, 두께 84cm에 팔작지붕 형태이고 비신고 160cm, 너비 72cm, 두께 32cm이며 지대석은 가로 168cm, 세로 138cm, 두께는 87cm로 묘갈 후면에는 「승정원년 무진후 재무진 3월일」이라 기록되여 있는데 이는 1688년으로 1711년에 수토병으로 사망했다는 묘갈의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묘갈명은 심육이 짓고 조명교가 글씨를 썼다.

묘역은 120평 규모로 봉분 크기는 지름 5m, 높이 190cm, 화강암 석재의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과 향석이 있다. 상석은 가로 150cm, 두께 67cm, 세로 92cm, 향석은 가로 38cm, 두께 40cm, 세로 20cm, 좌측 문인석은 견폭 56cm, 전고 70cm, 우측 문인석은 견폭 60cm, 전고 150cm, 좌측 망주석은 주고 176cm, 지름 37cm, 우측은 주고 177cm, 지름 33cm이다.

류덕옥 묘갈 번역문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유공 묘갈명(有明朝鮮國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柳公 墓碣銘) 서문도 아울러 씀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성균관제주(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兼成均館祭酒) 심육(沈錥) 찬(撰)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조명조(曺命敎) 서(書) 병전(幷篆)

금년 봄에 나 육(錥)은 청주(淸州)의 귀계산(歸溪山) 속에 있었다. 그곳은 몹시 거칠고 외진 곳이라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평(持坪) 유자유(柳子裕 : 子裕는 柳德玉의 아들 柳楨의 字인 듯함)가 어느날 갑자기 나를 찾아 왔다. 오랜 세월동안 소식이 막혔던 처지에 서로 만나고 보니 비록 기쁜 심정은 그지 없었지만 그가 먼길을 오게된 까닭을 깨닫지 못했다.

천천히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는 「선인(先人 : 돌아가신 아버지)이 작고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나 묘도(墓道)에 비석(碑石)은 아직도 없는 채이니 원컨대 당세(當世)의 군자(君子)에게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온 까닭입니다」고 하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의 뜻이 독실하고 또 젊어 패기가 넘치는 나이가 아닌데도 몹시 험난한 곳을 찾아 오면서 힘들게 여기지 않았으니

류 덕옥 묘 우측 망주석 및 문인석 (서→동)

그의 성력(誠力)이 감동(感動)스러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에 족하였으나 문자(文字)의 부탁에 이르러서는 나 육(鋹)은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식도 없고 글 재주도 없는 나의 실정(實情)으로써 부드럽게 거절하여 사례(謝禮)하였으나 자유(子裕)는 그대로 머물며 돌아가지 않고서 더욱 강력(强力)하게 청하였다. 나는 이일이 본디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님은 매우 잘 알았으니 누차 사양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가 가져온 행장(行狀)을 받아 읽어보니 바로 이참판(李參判) 제이(濟而 : 柳德玉의 사위인 李匡世의 字인 듯함)가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내용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차스럽게 그저 미사(美辭)만 늘어 놓은 것과는 달랐다. 그리하여 행장의 내용을 토대로 삼가 서차(序次)를 가하고 명(銘)을 단다.

공(公)의 휘(諱)는 덕옥(德玉), 자(字)는 윤보(潤寶)이다. 전주 유씨(全州柳氏)는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추증된 유습(柳濕)을 비조(鼻祖)로 하며, 그후로 군수(郡守)를 지낸 극수(克修)와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낸 사문(思汶)을 거쳐 사평(司評)인 분(坋)에 이르는데, 그는 덕(德)을 함양(涵養)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호(號)는 유일재(遺逸齋)로 문인(門人)인 묵암(默庵) 이계맹(李繼孟)이 그의 묘지(墓誌)를 찬(撰)하였다.

공의 증조부(曾祖父)인 휘(諱) 영회(永會)는 예빈사 참봉(禮賓寺參奉)을 지내고서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추증되었고, 조부(祖父)인 휘 동민(東閔)은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인 휘 위(偉)는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이 호조좌랑(戶曹佐朗)에 머무르고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한편 삼대(代)가 추증된 것의 공의 신분이 귀해진 때문이었으며, 어머니는 희천 김씨(熙川金氏)로 진사(進士)인 휘(諱) 택(澤)의 딸이다.

공은 효종(孝宗) 사년인 계사년(一六五三) 十二月 二十七日에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대해 깊은 애정(愛情)이 있었는데 모부인(母夫人)이 유종(乳腫)을 앓아 약(藥)을 붙이자 대번에 끌어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또 능히 형장(兄長 : 형이나 윗사람)을 애경(愛敬)하였는데 자기에게 입혀주는 옷이 혹시라도 여러 형들 보다 앞서 만들어 주는 것이 있으면 입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무릇 공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성품을 하늘로부터 타고난 점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공의 가문(家門)은 대대로 유업(儒業)으로써 서로 전해왔는데 공의 형제들에 이르러서 더욱 게을리 하지 않고 학문에 힘썼으나 누차 대·소(大·小)의 과거(科擧)에 낙방(落榜)하였다. 숙형(叔兄)이 소과(小科)에 합격했을 적에 이르러 공의 나이가 바야흐로 이십이세였는데 슬픈 모습으로 「우리 형(兄) 같은 재주를 지니고도 이제야 겨우 소과에 합격했는데 하물며 재주가 형만 못한 나는 오죽하겠는가?」고 하고서 비로서 학문을 그만둘 생각을 가졌고, 이듬해인 병진년(一六七六)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공은 자신이 유가(儒家)의 자제로써 무과를 통해 발신(發信 : 몸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음을 가리키며 출신이라고도 함)한 것은 족히 부모의 영예(榮譽)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으며, 또 부모의 곁을 떠나 벼슬에 나설 계책(計策)을 꾸미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아버지인 참판공(參判公)에게 말하기를 「출신(出身)의 일사(一事)는 이제와서 비록 후회한들 어쩔 도리가 없으니 원컨대 명제(明齊 : 尹ㅁ)선생의 문하(門下)에 나아가 고인(古人)의 자신(自身)을 위한 학문을 듣게 되었으면 합니다. 박송당(朴松當 : 박영(朴英))의 고사(古事)는 제가 비록 감히 바랄 수 없으나 그래도 자실(自失)한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贖罪)할 수 있을 듯합니다」고 자하 참판공은 「이미 집을 나선 뒤로는 이런 흔적(痕迹)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단 네가 그 마음을 잊지 않기만 하면 너의 소원에 가깝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임술년(一六八二)에 이르러 천거(薦擧)에 의해 선전관(宣轉官)에 제수되었는데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그만 두었으며 상기(喪期)를 마친 다음 다시 선전관에 들어가 무겸(武兼 : 武臣兼傳官)에 승진 되었고 비국(備局 : 備邊可)의 낭청(郎廳) 선발되어 있던 차에 임금이 친히 무재(武才)를 시험함을 만나 공은 집사(執事)의 자격으로 임금을 시위(侍衛)하면서 모든 조치를 막힘이 없고 민첩하게 행하였다.

다음날 전례(典例)에 따라 다른 집사(執事)가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어제 집사(執事)한 자를 다시 입시(入侍)하게 하라」고 하므로 무릇 七일 동안이나 계속된 장전(帳殿 : 임시로 꾸민 임금의 자리로서 대궐 밖의 행사에 친림(親臨)할 적에 설치함)에 입시하는 자를 감히 교체(交替)하지 못했으며, 김상국(金相國) 수항(壽恒)은 그 일을 보고 공을 칭찬하기를 마지 않으면서 다른 군문(軍門)으로부터 자기의 휘하로 이속(移屬)시켰다.

곧 이어 공운 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에 제수되었다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이직(移職)되었으며, 그 때 마침 중대한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공은 죄인을 신문(訊問)하고 공사(供辭 : 罪人이 犯罪 사실을 진술하는 말)를 받아 쓸 대에 글솜씨가 풍부하고 신속하였으므로 크게 제당(諸當 : 여러 당상관을 가리키는 말)에게 칭상(稱賞)을 받았다.

이어 형조낭관(刑曹朗官)의 후보(候補)에 올라 벼슬이 활짝 열리려 하였으나 부모를 편히 봉양함을 급하게 여기고서 외임(外任)을 자원하여 해남현감(海南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김상국(金相國 : 김수항을 가리킴)이 유배지(流配地)로 가면서 해남현(海南顯)의 경내(境內)를 지나니 공은 찾아가 뵙고서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그에게 빌려 주었다.

곧이어 당시 대신(臺臣)의 탄핵을 입고 법리(法吏)에 회부되어 삭직(削職)된 채 고향에 돌아오면서 도중에 김공(金公 : 金壽恒을 가리킴)이 영구(靈柩) : 시체를 넣은 棺을 말함)로써 돌아오는 것을 만나고서는 그가 화(禍)에 걸린 것을 불쌍해하면서 또 힘 닿는대로 사후의 일을 도왔다.

대체로 공은 남의 어려움을 지체없이 구해 주는 의리(義理)가 일시적 이해(利害)때문에 스스로 흔들림이 없었으니 이것이 공히 평소에 축적(蓄積)한 바이다.

갑술년(一六九四)에 남상국(南相國) 구만(九萬)이 입도(入都)하자마자 바로 공을 비변사(備邊司)의 낭청(朗廳)으로 차임(差任)하여 도총부경력(都摠府經曆)에 재수되었으며, 을해년(一六九五)에 큰 흉년이 들어 수령(守令)을 특별히 고르라는 어명(御命)이 내리자 이에 공은 외임으로 나가 장흥부사(長興府使)가 되었는데, 임지(任地)에 도착해서는 마음을 다해 기민(飢民)들을 구제하여 온 경내(境內)에 구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없었고, 이웃

고을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서 찾아오는 자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왔다.

이어 어산영장(碙山營將)에 이직(移職), 승진되었는데, 기근(饑饉)을 겪은 후로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이게한 수가 매우 많았고 죄를 범한 자를 조사하여 붙잡아 들이는 일에 법도를 두어 죄의 경중에 따라 다스리면서 공평함을 잃지 않으니 양민(良民)으로써 뜻밖에 억울한 처지를 벗어나게 된 자들이 대부분 공을 찾아와 고맙다고 하였다. 그 후 집이 가까운 곳에 있는 까닭으로 충주 진영(忠州鎭營)에 바꿔 제수되었으나 앞서 여산(礪山)에 재임하고 있을 적의 일로 인하여 파직되어 갈리었다.

무인년(一六九八) 공의 품계(品階)를 올려 주라는 어명이 내렸는데, 그에 앞서 공이 토포사(討捕使)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포악한 흉적(兇賊)이 있는 곳을 언급하고서 그 뒤 토포사가 흉적을 체포하여 다스리자 임금에게 그 일을 아뢰는 계문(啓文) 속에 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와같은 상전(賞典)을 입게 된 것이나 공이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경진년(一七〇〇)에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고 또 해미현감(海美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病)때문에 사양 하였으며, 그 해 가을에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제수되었는데 그곳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민심이 사납고, 업무가 번잡하였으나 공은 고을을 다스림이 자세하고 명확하였으므로 처리해야 될 결재(決裁)가 밀리지 않았다.

그러자 방백(方白 : 地方長官인 勸察使)로 여기서는 경기도 관찰사를 가리킴)으로 있던 이공세재(李公世載)는 도내(道內)의 송사(訟事)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 판결하기 곤란한 사건들을 모두 공에게 위임(委任)하고서 매양 공이 판결한 말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 보고(報告)한 글마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임오년(一七〇二)에 공은 겸사복장(兼司僕將)에 이직(移職)되었고 또 동지중구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 되었으나 그 해 여름에 모친의 상(喪)을 당했으며, 을유년(一七〇五)에 어영청 별장(御營廳別將)으로 있다가 안악군수(安岳郡守)에 제수되어 있으면서, 관찰사(觀察使)가 공의치적을 조정에 알림으로써 임금이 표리(表裏 : 옷감을 말함)를 하사(下賜)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정언(正言) 윤세수(尹世綏)는 참으로 공에게 해를 끼친 자로서 공을 논핵하여 파직시킨 후에 즉시 후회하였으나 곧이어 공은 이동언(李東彦)의 사건(事件)으로 인해 붙잡혀 갔다. 이때 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로 진술하여 마침내 연서역(延署驛)에 도배(徒輩 : 徒刑定配의 준말)되기에 이르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赦免)되어 돌아왔다.

이때부터 몇년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신묘년(一七一一)에 비로소 귀성부사(龜城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또 당시 재임하고 있던 재상(宰相)의 방해를 받아 병(病)이 있음을 아뢰자 갈리었다.

공은 평소 수토병(水土病)이 있었는데 하찮은 증세로 인해 갑자기 위독해져 구월 이십이일에 작고하였다. 조정에서 조문(弔問), 치제(致祭)하고 부의(賻儀)를 보내 줌이 전례(典例)와 같았으니 그것은 공이 일찌기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과천(果川)의 비산(飛山)에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무신년(?)에 이르러 부인의 무덤에 합장(合葬)하였는데 구혈(舊穴)에서 십보(步) 떨어진 곳이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하고 독실하였고, 소신을 지킴이 굳세고 단단하였으며, 어린 시절의 기량(器量)이 벌써 같은 또래나 뭇 아이들로 하여금 두려워 복종하게 하였으니 아이 중에 혹 실언(失言)하는 자가 있으면 공이 대번에 노하여 매질을 해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므로 보는 이들이 대견스럽게 여겼다.

일찌기 한산(韓山)의 죽산지(竹山津)을 건너면서 바람을 만나 돛대가 찢어져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이 넋이 빠져 죽을 상이 되었으나 공은 그 때문에 안색조차 변하지 않자 위험한 상황이 가라앉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였다.

또 벼슬을 하고 있을 때에 여염집에서 우거(寓居)하고 있었는데 공은 공무(公務)를 마치고 귀가(歸家)하면 반드시 서 사(書史)를 펼쳐 읽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중에 종이주머니에 밤톨을 담아 앞에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이어 공이 잠자리에 누우려 하자 어느 젊은 여인이 담을 넘어 와서 공에게 파고드니 공은 준엄하게 뿌리치고는 이튿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공이 해남(海南)에 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을 적에는 권세있는 수령(守令)이 있어 공에게 편지를 보내 오고, 또 사람을 시켜 자신이 빌린 공금(公金)의 징수(徵收) 기한(期限)을 늦춰 달라고 하였는데 공은 나라의 법(法)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니 그 사람의 언색(言色)이 자못 불손(不遜)하였다.

그러자 공은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는 문지기더러 그를 들여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또 해남현에는 소나무의 식목(植木)에 적합한 산이 있었는데, 수영의 비졸(婢卒)이 적간(摘奸 : 법금을 어긴 자를 잡아냄)한답시고 뇌물을 요구하자 공은 즉시 그를 잡아다가 곤장(棍杖)으로 다스리니 수사(水使)로 있던 자도 감히 노여워하지 못했다.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다가 돌아올 적에 임지(任地)를 떠나면서 배씨(裵氏) 성(姓)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집이 부자(富者)인데다 분수에 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였다.

이에 그 사람은 공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즉시 화려한 살림붙이와 분수에 지나친 물건들을 철거(撤去)하였는데, 공 보다 앞서 재임한 지주(地主)들이 혹시 그의 집에 유숙(留宿)하였을 때에는 일찌기 그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모부인(母父人)을 섬길 적에는 몹시 태도를 조심하였고, 매양 자신의 봉양(奉養)이 아버지의 생전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극한 한(恨)으로 여겼으며, 모든 상·제(喪祭)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였다.

또 공의 큰 형이 일찌기 병에 걸렸는데, 공은 성의를 다해 치료하기를 한결같이 어버이가 아팠을 때와 같이 하였으므로 큰 형은 매양 「내가 죽지 않게 된 것은 아우가 있음에 힘입어서이다」고 말했으며, 세째 형이 한창 나이에 과거(科擧)를 통과했으나 마침내 불행하게 일찍 작고하니 공은 그의 딸을 보살피고 양육하여 성인(成人)이 되게 하였다.

한편 집안의 형편은 겨우 추위와 굶주림을 면할 정도였으나 기사년(一六八九)이후로 시골의 오두막에 살면서도 다시는 벼슬에 나설 마음을 갖지 않았다. 또 공은 비록 무과(武科)를 통해 벼슬에 나아갔지만 무인(武人)의 거칠고 엉성한 태도가 전혀 없어서 자신의 몸을 단속함에는 엄격하였고 남을 상대할 적에는 태도가 장중(莊重)하였으니 전후 벼슬에 재임하고 있을 적에는 반드시 관복(冠服)을 단정(端正)히 한 채 주민들을 대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였다.

또 힘깨나 있는 이를 잘 섬기는 짓은 매우 부끄럽게 여겼으며, 항상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경외(京外)의 여러가지 폐단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것들을 바로 잡고 구제하는 방법을 논하여 한 편(編)의 책으로 만들고서 《만록(漫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참판(李參判) 인엽(人燁)이 그 책을 가져다 보고서 「가히 비국(備局 : 비변사)의 경륜(經綸 : 나라를 다스리는 法典을 뜻함)으로 비치(備置)할 만하다」고 찬탄하였으며, 기축(己丑), 경인(庚寅)년 사이(一七〇九~一七一〇)에 조정에서 각 도에 공문(空文)를 하달할 적에도 도한 공의 《만록》의 내용에서 채용(採用)한 시책(施策)이 있었다.

공의 아내인 정부인(貞夫人)은 광주 이씨(廣州李氏)로 현감(縣監) 정익(廷益)의 딸인데, 부인은 성품이 단정(端正), 온순(溫順)하고 태도가 과묵(寡默), 조용하였으며, 시부모를

섬기는 정성이 몹시 도리에 마땅하였으니 시부모가 병에 누워 있을때나 그들의 상(喪)을 당해 슬퍼할 적에 스스로 자기의 성심을 다했으므로 부인의 그러한 행실을 지켜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오히려 부인의 훌륭함을 감탄하고 있다.

부인은 공 보다 이년 먼저 태어났고 무자년(一七0八)四월 三일에 작고, 一남 一녀를 낳았는데 아들인 작(綽)은 사마시(司馬試)의 양시(兩試)에 모두 합격하여 문과(文科)에 급제한 다음 대헌(臺憲)을 역임하였고 딸은 참판(參判) 이광세(李匡世)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 소생의 일남은 록(錄)이고 四녀는 한사겸(韓師謙), 김창복(金昌復), 김동연(金同衍), 나윤복(羅潤福)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작(綽)의 이남은 휘갑(輝甲), 輝丙)이고 일녀는 이익조(李益祚)에게 출가하였다. 공의 사위인 이참판(李參判 : 李匡을 가리킴)은 외아들 성효(性孝)는 홍문관교리(弘文館敎理)이다.

나 육(錥)은 폐인(廢人)처럼 초야(蕉野)에 묻혀 지내느라 벼슬하는 사람들의 소식(消息)을 알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공의 행장(行狀)에 쓰인 글을 보니 공은 자신의 몸을 복되게 하고 공사(公事)를 우선으로 여긴 점에 있어 볼 만한 행실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에서 지낼 적에 소사(素士 :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의 지조가 있었고, 벼슬에 나가서는 순량(循良 : 법을 지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의 풍도가 있었으니 이는 실로 요즘 세상에 찾아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으나 곤경(困境)에 빠진 적은 많았고 임금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때는 적었으니 벼슬이 덕(德)에 부합하지 않음을 저으기 공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도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재주를 빠짐없이 갖추고도, 취하고 버림은 자기 뜻대로만 하였도다.

관상(觀相)을 논하면 연함같았고, 지조에 힘쓴 것은 마혁(馬奕)같았네

이해(利害)를 어찌 가릴 것인가? 생(生)과 사(死)를 한결같이 보았는 것. 언사(言辭)도 또한 구애받지 않았으니, 시종(始終)을 알 만 하구나.

내외(內外)에 지낸 벼슬들은, 비록 여러차례 재주를 시험했다 하지만 나는데 날개를 다 쓸 수 없었으니, 초지(初志)를 이루지는 못하였네.

여복(餘福)을 남겨 두어, 후손에게 끼쳤으매

비석에 새긴 글이 과장한 게 아니니, 효성스런 후손들은 다함이 없으리라.

숭정(崇禎 : 명나라 설종의 年號) 원년(元年) 무진(戊辰) 후 두번째 무진(後再戊辰) 三월

일 세움

○ 류작묘(柳綽墓), 숙종12년(1686년)~영조28(1752년)년의 인물이며, 덕옥의 아들로 숙종40년 사마시 급제후, 영조10년(1743년)병과에 급제하여 외직으로 서산 영해 길주목사를 역임 하였다.

묘역은 60평 규모에 봉분 높이는 190cm, 지름 5m, 상석은 가로 156cm, 두께 65cm, 세로 96cm, 향석은 가로 36cm, 두께 32cm, 세로 20cm이고, 망주석 2기와 묘표가 있다.

망주석 좌측은 주고 160cm, 지름은 40cm, 우측은 주고 160cm, 지름 40cm이며 묘표는 「조선국 통정대부 병조참 지완산 유공 작 지묘 증 숙부인 상산 김씨 부좌」라고 음각되어 있다.

팔작지붕의 비갓은 가로 104cm, 높이 45cm, 두께 78cm이며 비신은 높이 136cm, 너비 57cm, 두께 32cm에 지대석은 가로 99cm세로 64cm, 두께 39cm이다.

○ 기타묘 : 류덕옥 묘 좌측

묘역 70평 규모로 봉분크기는 지름 3m, 높이 170cm이며, 상석은 가로 125cm, 세로 84cm, 두께 70cm에 향로석은 가로 36cm, 세로 38cm, 두께 18cm, 망주석은 좌측이 주고 170cm, 지름 36cm, 우측은 주고 170cm, 지름 36cm이다.

류 작 묘 좌측

묘역 23평 크기로 높이 120cm, 지름 2.5m의 봉분이 있다.

상석은 가로 125cm에 세로 95cm, 두께 83cm며 향석은 가로 36cm, 세로 23cm, 두께는 47cm이다.

망주석 좌측은 주고 160cm, 지름 40cm며 우측은 주고 160cm, 지름 40cm의 석물이다.

11. 조유사묘(趙維四墓)

종별번호 : 0704-31-01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45평

소 재 지 : 종합운동장 서쪽 300m 지점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순창조씨 종친회

종합운동장 서쪽 300m 지점에 위치하며 묘역은 45평 규모에 봉분 높이는 170cm, 지름은 4m 크기이다. 최근에 제작된 석물로서 상석이 가로 124cm, 세로 84cm, 두께 56cm며 향로석은 가로 31cm, 세로 24cm, 높이 25cm이고 망주석 좌측은 주고 164cm, 지름 27cm며 우측은 주고 164cm, 지름 27cm이다.

순창 조씨 유사묘

묘표는 단기 4322년(1989년)에 세운비로서 갓은 팔작지붕에 화강암으로 비갓은 가로 70cm, 높이 37cm, 두께 33cm며 대리석 비신은 높이 118cm, 너비 42cm, 두께 18cm에 지대석은 가로 70cm, 세로 43cm, 두께는 7cm에 전면 내용은 「성균지사 순창조공 유사 지묘, 배의인 풍산심씨 합부유좌」라고 음각되어 있다.

뒷면의 내용은 「조공의 9세조는 삼가 장(璋)」이며 시조이다.

조공의 이름은 유사요 자는 자장으로 인조 계유생이며(1633년)~숙종계유(1693년)십일월 일 운명 하였으니 그수가 60세였다.

일찌기 성균관 태학 진사에 급제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후 군자면에 정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 유사 묘 좌우 망주석

12. 전주류씨 묘역(全州柳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1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220평

소 재 지 : 관양동 산3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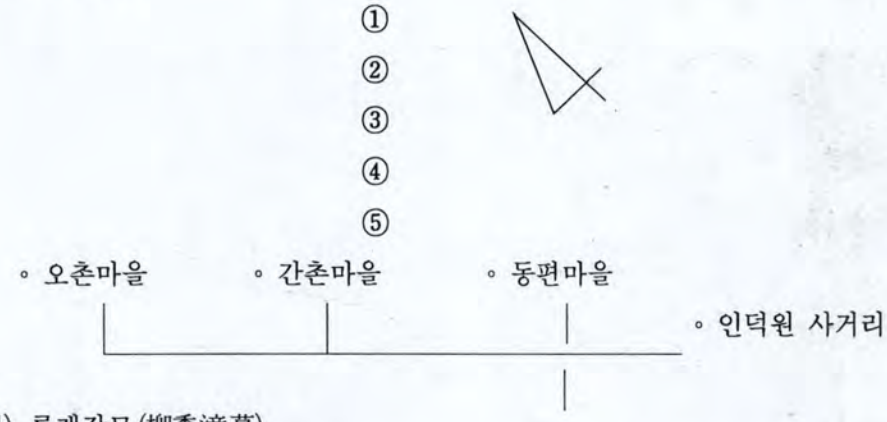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류원희

관양2동 간촌 마을에 있다. 인덕원 사거리 북동 방향 200m지점이며 조사 묘역의 봉분은 5기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묘의 위치



1번) 류계장묘(柳季漳墓)

류계장은 세종17년(1435년)~중종10년(1515년)의 인물로 세조6년(1460년) 무과 급제후 도총부에 있다가 훈련원정, 해남 현감을 엮임하였다. 묘역은 90여 평으로 쌍봉분에 높이는 150cm, 지름4m에 주변 석물로는 상석, 향석, 망주석 2기 석등이 있다.

상석은 가로 158cm, 세로 93cm, 두께 22cm이고 향로석은 가로 23cm,

세로 18cm, 높이 27cm이다.

문인석 좌측은 전고 169cm에 견폭 47cm, 우측은 전고 160cm에 견폭

전주 류씨 계장 묘 (서→동)

류 계장 묘 좌우 문인석

48cm, 석등의 총고는 172cm이며 석물의 재질은 화강암이다.

이외에 단기 4309년 3월(1976)에 세운 묘비는 16대손 유학수가 문장을 짓고 15대손 유병규가 썼다. 내용은 「절충장군 첨지중구부사 전주유공계장 지묘 배 숙부인 풍양조씨부」라고 쓰여 있다.

2번) 류영묘(柳寧墓)

증종3년(1507년)~선조16년(1583년)의 인물로 유계장의 증손이며, 돈령부 참봉, 전주판관을 엮임했다.

쌍분으로 묘역은 36평이며 봉분 높이는 120cm, 지름 3m이고 상석은 가로 152cm, 세로 93cm, 두게 25cm에 문인석은 좌측이 전고 177cm, 견폭 48cm, 우측은 전고 165cm, 견폭 50cm로 재질은 화강암이다. 묘표가 있으며 전면에 「통훈대부 행 전주 판관 전주유공 영지묘 배 숙인단양 우씨부」라 적혀있다.

비의 석질은 대리석이며 비신고 138cm, 너비 50cm, 두께 16cm이고 지대석은 가로 90cm, 세로 59cm, 두께 18cm이다.

3번) 유영범묘(柳永範墓)

중종31년(1536년)~선조39(1606년)년의 인물로 유영의 장자이다.

명종32년(1667년) 사마시 급제후 의금부도사를 지냈으며 외직으로 해남 현감을 엮임하였다.

묘역은 30평으로 봉분 높이는 110cm, 지름은 380cm에 석물은 없다.

4번) 유직묘(柳稷墓)

선조 원년(1568년) 무진 4월~광해10년(1618년) 4월의 인물로 선조34년(1601년)에 사마시 급제후 선조37년(1404년)에는 사직참봉을 지냈다.

묘역은 40평으로 쌍봉분이며 높이는 90cm, 지름 350cm에 상석은 가로 147cm, 세로 88cm, 두께는 28cm이다.

5번) 류공묘(柳公墓)

묘역은 24평이며 봉분 높이 90cm에 지름 280cm이고 상석은 가로 152cm에 세로 94cm, 두께는 27cm이다.

13. 전주이씨 묘역(全州李氏 墓域)

종별번호 : 0704-31-01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98평

소 재 지 : 관양동 산4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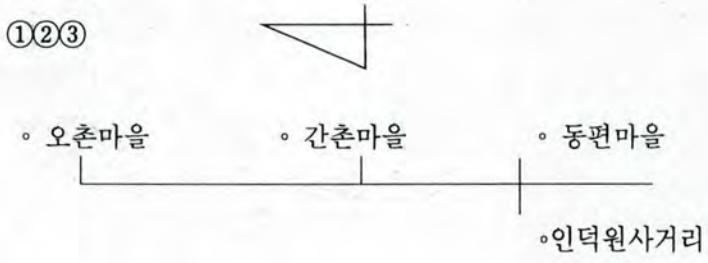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고춘석

관양동 오촌말 좌측산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최근에 묘도 있으며, 그중 3기를 조사하였다. 3기의 묘중 상묘는 이의준과 배인 풍양 조씨의 봉분이며 중묘는 이인경, 하묘는 이용하의 묘이다.

○ 묘의 위치



1번) 이의준묘(李義駿墓)

이의준은 영조13년(1737년)~정조22(1798년)년의 인물로 자는 중명 영조49년(1773년) 증광별시 급제후 홍문관 부교리 종성부사를 거쳐 대사헌에 근무하였으며 정조21년(1797년) 황해도 관찰사겸 병마 수군 절도사 순찰사, 해주목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정조22년(1798년) 감영에 큰불이 나자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를 막던중 화상으로 인하여 10여일만에 순직했다.

1987년에 세운 묘갈은 이훈종이 짓고 이규대가 글씨를 썼다.

또한 배인 풍양 조씨는 영조13년(1737년)~정조22년(1798년) 이의준의 죽음을 알고 의연히 장례를 치룬후 자녀들에게 훈시한 뒤 7일간을 단식했다. 그리고는 목욕제계후 조용히 영면하므로 조정에서 정려를 명하였다. 정려는 「열녀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겸 병마수군 절도사 순찰사 해주목사 이의준 처 정부인 풍양조씨지문」이며 「상지23년 기미 2월 일 명정」으로 정조23년(1799년) 2월에 정려에 명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묘역은 33평이며 봉분 높이는 140cm, 지름은 300cm이고 상석은 가로 132cm, 세로 78cm, 두께 43cm에 향로석은 가로 35cm, 세로 23cm, 높이 29cm이다. 2기의 망주석 중 좌측은 주고 176cm, 지름 36cm며 우측은 주고 165cm, 지름은 36cm이다. 비문의 내용은 「가선대부 황해감사 전주이공의준 지묘 정부인 풍양조씨 부좌」로 비갓 가로 93cm, 높이 55cm, 두께 60cm며 비신고는 150cm에 너비 54cm, 두께 23cm, 지대석은 가로 83cm, 세로 52cm, 두께 19cm이다.

전주 이씨 묘역, 상묘 : 이의준 묘, 중묘 : 이인경 묘, 하묘 : 이용하 묘 (남→북)

이의준 묘 좌우 망주석

2번) 이인경묘(李寅慶墓)

정조22년(1798년)~고종8년(1871년)의 인물로 자는 공선이며 통훈대부 군수를 엮임했다.

묘역은 30평으로 봉분 높이는 165cm, 지름은 300cm에, 최근에 세운 대리석 묘비가 있다. 비신은 비고 110cm, 너비 36cm, 두께 15cm에 지대석은 가로 60cm, 세로 39cm, 두께는 12cm이다. 내용은 「통훈대부 군수 전주이공 인경지묘 숙인 동래정씨 부좌」이다.

3번) 이용하묘(李容夏墓)

묘역은 35평규모로 봉분은 높이 2m, 지름이 130cm이며 최근에 세운 대리석 비가 있다. 비전면 내용은 「사마군수 전주이공 용하지묘 영인 해주 오씨 부좌」라고 쓰여있고 비신고 106cm, 너비 36cm, 두께 14cm이고 지대석은 가로 64cm세로 40cm, 두께는 10cm이다.

14. 이세규 묘(李世鎤墓)

종별번호 : 0704-31-01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60평

소 재 지 : 관양동 동편 마을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광주이씨 종친회

관양동 동편 마을, 안양과 과천의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인덕원 사거리에서 북동쪽으로 100m 지점에서 위치하고 있다. 쌍분으로 묘역은 60평에 묘표와 상석이 있으며 문석 2기는 최근에 제작되었다.

봉분은 높이 160cm, 지름 4m로 2기에, 상석은 가로 120cm, 세로 80cm, 두

광주 이씨 세규 묘 (서→동)

께 17cm며, 묘표는 총고 117cm에 너비는 50cm, 두께는 26cm이다. 2기의 문인석 중 좌측은 전고 183cm, 견폭 46cm이고, 우측은 전고 184cm, 견폭은 40cm이다. 본관은 광주로 묘갈 내용은 「통정대부 행 밀양도호부사 이세규지묘」이다.

이세규 묘 좌우 문인석

15. 김순묘(金恂 墓)

종별번호 : 0704-31-015

시　대 : 고려 충수왕 8년(1321), 재건립 1943년

규　모 : 약40평

소 재 지 : 관양동 산74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안동김씨 종친회

관양동 간촌입구에 위치하는 김순묘는 원래가 마산에 있던 것을 1943년에 이장한 것이며 비문도 내용만을 옮긴채 다시 세운 것이다.

김순은 1258년(고려고종45년)에 나서 1321년(고려 충숙왕 8년)에 운명했고 1257년에 문과에 급제후 다음 해엔 중시에서 2등으로 합격했다. 벼슬이 낭장에서 학사, 직강을 거쳐 1297년에는 좌부승지와 이듬해에 성균관 제주, 보문각 학사를 거쳐 1312년에는 중대광 상락군과 판삼사사의 벼슬에 올랐다.

묘역은 40평 규모에 봉분은 높이 120cm, 지름이 360cm이고 상석은 가로 112cm, 세로 80cm, 두께 62cm며 향석은 가로 32cm, 세로 20cm, 높이는 38cm이다. 망주석은 2기로, 각각 주고 160cm에 지름 35cm며, 양천 허씨비가 있다. 비는 오석으로 비고 100cm, 너비 28cm에 지대석은 가로 60cm, 세로 38cm, 두께는 28cm로 대부분의 석물은 최근에 세운것이다.

이외에 1948년에 다시 세운 김순 묘갈이 있으며 비갓은 가로 90cm, 높이 50cm, 두께 63cm며 묘갈신은 높이 152cm, 너비 59cm, 두께 27cm, 에 지대석은 가로 92cm, 세로 64cm, 두께는 24cm로 묘갈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김순묘갈 번역문]

고려국이중대광상호군증시문영안동김공순지묘갈명(전액)

중대광판삼사보문대제학 상호군 김순묘갈명병서

옛적에 이르기를 군자(君子)라고 하는 것은 덕행(德行)을 두고 말한것이냐? 공업(功業)을 두고 말한 것이냐 하면 오직 덕행이오. 공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덕행은 마음에 있는 것이오. 공업은 때(時機)에 있는 것이니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이 수양할 수 있는 것을 수양하는 것이 군자이다.

무릇 덕행은 충효가 근본이 되므로 능히 충효(忠孝)로써 당세(當世)에 입신양명 한 분은 오직 우리 판삼사 상군(判三司 相君)이 계실 뿐이다. 공(公)의 휘(諱)는 순(恂)이오. 자(字)는 귀후(歸厚)며 신라왕 김부(新羅王 金傅)의 십세손(十世孫)으로 태어나시니 안동부(安東府)는 즉 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이다.

증조의 휘(諱)는 민성(敏成)이시니 좌복야(左僕射)로 추봉(追封)되고 장야서승 겸 지사관(掌冶署丞兼直史館)을 지냈으며, 조(祖)의 휘(諱)는 효인(孝印)이시니 중서령(中書令)으로 추봉(追封)되시어 정의대부 병부상서 한림학사 충사관수찬관 지제고(正議大夫 兵部尙書 翰林學士 充史觀修撰官 知制誥)를 지내시고 고(考)의 휘(諱)는 방경(方慶)이시니 원제(元帝)로부터 중봉대부 관 고려군 도원수(中奉大夫 官史高麗軍 都元帥) 추충정난 정원공신 광정대부 삼중대광 판도첨의사사 전리사사 상장군 상락군개공국(推忠 靖

안동 김씨 순묘 (서→동)

難 定遠功臣 匡靖大夫三重大鑌 判都僉議使司 典理司事 上將軍 上洛郡開國公) 식읍 일천호(食邑 一千戶)를 선수(宣授)하니 실봉(實封)은 삼백호(三百戶)이며 돌아가신 후에 고려(高麗)에서 선충 협모 정난 정국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을 증직(贈職)하고 시호(諡號)는 충렬이라 내렸다.

공의 어머님은 박씨요 중서사인 지제고(中書舍人知制誥) 익정(益旌)의 따님으로서 음평군부인(陰平郡夫人)을 봉(封)하였다.

공게서 글씨를 잘 쓰심으로 비문을 많이 쓰시고 소년시절부터 학문에 힘쓰시고 선대(先代)의 음덕(蔭德)으로 벼슬에 들어가 장생서승(掌牲暑丞)이 되었고 후에 별장(別將)이 되어 견룡행수직(牽龍行首職)을 맡아서 비록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여도 그 뜻은 항상 문학에 두었으니 대개 부친께서 왕조 양대(王朝兩代)의 최고(最高) 벼슬인 장상(將狀)을 지냈으나 오직 과거(科擧)를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으므로 아드님이 능히 조부의 업적은 다시 회복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공이 그러므로 힘써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더니 지원(至元)十六년 춘계과장(春季科場)에서 금방부장원(金榜副壯元)으로 급제하여 그 해에 처음으로 섭랑장(攝郎將)에 임

김순 묘갈 및 망주석

명되더니 후에 다시 국학직강(國學直講)이 되시니 이는 공이 능히 부친의 유한(遺限)을 펴신 것이다. 이로부터 부친께서는 막내아들을 더욱 사랑하여 항상 신변(身邊)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정사(賀正使)로 가실 대도 꼭 데리고 다니셨으나 다만 일본을 정벌하러 가실 때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종군하여 위태한 일에 참여치 못하게 함이었다.

공이 이에 출정행차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몰래 먼저 군함에 올라타고 갔는데 마침내 부친을 호위하고 권한 공(功)이 자못 컸으니 이는 공이 오로지 충효로써 발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임오년(壬午年)에 전중시사(殿中侍史)로 승진하고 그 이듬해에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나가서 선정(善政)한다는 소문이 들어오니 일년도 못되어 불러들여 전법좌랑 □□통예문사 고공종랑(典法左郎□□通禮門事考功正郎)으로 천거(薦擧)되었다.

임술년(壬戌年)에 남방사신(南方使臣)의 명을 받고 선친을 배행(陪行)하여 고향 조부묘소에 다녀왔으며 무자년(戊子年)에 비서소윤 지통예문사(秘書少尹 知通禮門事)를 제수(除授)하더니 그 해에 왕이 공(公)을 명하여 세자부 행이별감(世子府 行李別監)을 삼고 사부(師傅)의 책임을 위촉(委囑)하였으며 임진년(壬辰年)에 조현대부 전법총랑 지제고(朝顯大夫 典法摠郞 知制誥)를 첨가 위임하더니 누차 승진되어 소분유□□□학 군부총랑 전리총랑 조봉대부 비서윤 삼사우윤(少府尹□□□學 軍簿摠郞 典理摠郞 朝奉大夫 秘書尹 三司右尹)에 모두 삼자함(三字銜 : 봉조하(奉朝賀) · 종삼품이 치사후에 특별히 받은 직위)를 겸하였다.

원정 을미년(元貞乙未年) 겨울에 과거(科擧)로 선발된 동지들은 모두 당시의 명사(名士)들이라 크게 화려한 연석(宴席)을 베풀으니 □□□사(士) 조야(朝野)가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는 선친에 대한 극진한 영광(榮光)이요 효도인 것이다.

이해에 조의대부(朝議大夫)로 올라가고 병신년(丙申年)에 세자사인을 겸하고 대덕 정유년(大德丁酉年)에 국학전주(國學典酒)로 임명하고 또 다시 정중대부 집현전 학사 좌산기상기(正議大夫 左散錡常侍)를 배명하였다.

이해 七월에 다시 밀직사 우승지 국학제주 보문각학사 지민조사(密直使 右承旨 國學祭酒 寶文閣學士 知民曹事)로 배명(拜命)하고 三자(字)는 전대로 두었다. 八월에 봉익대

부 삼사좌사 숭문관학사(奉翊大夫 三司左使 崇文館學士)로 승진되고 九월에 또 다시 정헌대부 밀직사 좌승지 판비서시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고 지군부사시(正獻大夫 密直使 左承旨 判泌書寺事 充史館 知制誥 知軍簿司寺)가 되고 十二월에 봉익대부 밀직사부사 문한학사(奉益大夫 密直史副使 文翰學士)를 배명(拜命)하였다.

기해년(己亥年)에 공께서 그칠줄을 아시고 벼슬을 사퇴하셨다. 그 이듬해 팔월에 선친께서 세상을 하직하심으로 유원(遺願)에 의하여 고향 선영(先塋)에 장례를 모셨다. 경술년(庚戌年) 겨울에 선친 산소에 제사를 지내고 임자년(任子年)에 다시 중대광 상락군(重大匡 上洛君)을 봉하여 선친의 작위(爵位)와 식읍(食邑)을 이어 받았다.

기미년(己未年)에 또 선친 산소에 성묘차 가시는데 왕께서 계자 영후(季子 永煦)를 시켜 모시고 배행(陪行)케 하였으니 왕께서도 공의 행차를 극진히 배려한 때문이다.

지치원년(至治元年 : 一三二一) 신유(辛酉)에 어진 정승(政丞)을 기용하기 위하여 공을 발탁하여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고 팔월에 또 보문각 대제학 상호군(寶文閣 大堤學 上護軍)을 명하였다.

그달 이십일일에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시니 향년 육십사세이다. 공은 성품이 돈후(敦厚)하고 강직(剛直)하고 내유(內柔)하시며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은 천하에 출중(出衆)하였다. 아깝도다! 공의 재덕(才德)으로 만일 몇 해만 더 사셨더라면 국가의 이익과 혜택이 어찌 만민(萬民)에 미치지 않았으며 명예와 지위도 어찌 이에서 그칠뿐이라?

배(配)는 광정대부 첨의 중찬 수문전태학사 감수국사 판전리사사 세자사 증시 문경공(匡靖大夫 僉議 修文殿太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 贈諡 文敬公) 휘(諱) 허공(許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사남삼녀를 낳으셨는데 장남 영돈(永暾)은 현재 도관직랑 지함주사(都官直郎 知陜州事)로 있고 이남 영휘(永暉)는 현재 흥위위 보승별장(興威衛 保勝別將)으로 있고 삼남 사순(斯順)은 삭발하고 자혜종 대덕이 되었고, 사남 영후(永煦)는 사헌부지평으로 있다.

장녀는 입내시 중정대부 친어군대호군(入內侍 中正大夫 親禦軍大護軍) 정책에게로 출가하고 이녀는 대광 상당군(大匡 上黨君) 백이정에게로 출가하고 삼녀는 원나라 좌승상(左丞相) 아홀반(阿忽反)의 아들인 사인(舍人) 별리가불화(別里哥不花)에게로 출가하였다.

영돈(永暾)의 분중에서 이미 장지를 덕수현 마산(德水縣 馬山)위에 잡아 놓고 장차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나는 그의 선친의 친구인지라 공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명(銘)을 지어달라고 간청함으로 내가 비록 병들었으나 굳이 사양치 못하고 받아서 명(銘)을 쓰노라. 명문(銘文)에 이르기를

혁혁(赫赫)한 충렬은 동국(東國)의 황제의 양위(讓位)와 같고 분양(汾陽)이란 황제의 양위요(임금이 분양에서 선인과 나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 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온말) 만당(滿堂)한 자질(子姪)들은 모두가 수재요 영재로서 백미(百眉)와 같이 우수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제일 어질다고 하였도다.

선친의 유한(遺寒)은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함이더니 공이 그 뜻을 이어 문학에 뜻을 예민(銳敏)하게 세우고 대대로 전해오는 조상의 법도를 본받아 시시(時時)로 금낭(錦囊 : 시 작품을 넣은 비단주머니)이 찰만큼 시 짓기에 노력하더니 묘령(妙齡) 이십이세에 금방(金榜)에 급제하여 이름이 사방에 떨치니 대각(臺閣)에서 전파하는 고시문은 향기가 돌았도다. 한번 학문의 권세를 잡으니 형제가 열(列)을 이루도다.

존당(尊堂)의 기쁜 눈물은 흘러 축하하는 술잔에 넘치고 생전에 정승을 지내어 검은 구렛나루에 금장(金章)이 빛나도다. 힘껏 영화(榮華)와 효도를 다하여 고향 사람들이 애달파 하노라. 자식된 도리를 다하니 만복이 내리도다. 만년(晩年)에 은퇴(隱退)하매 하느님의 뜻이 담담(淡淡)하도다.

마침내 선군(先君)의 작록(爵祿)을 습봉(襲封)하니 문호(門戶)가 다시 빛이 나도다. 정계에 참여치 않고 은퇴 후에 구년간의 세월을 허송(虛送)하다가 별안간 극품재상(極品宰相)에 올랐으니 민생(民生)도 안정되고 나라도 태평하도다.

아직 돌아가실 나이도 아니신데 급작스럽게 황천(黃泉)길을 재촉하니 공에게 있어서는 여한(餘恨)이 없겠으나 나라를 위해서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명(銘)을 새기니 광채는 천만년에 끝이 없으시리라.

대원지원(大元至元) 원년(元年) 신유(辛酉) 十월 十四일

선수 조열대부 한림직학사 삼중대광 검교 청의정승 우문관 대제학 감춘추관사(宣授 朝烈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 僉議政丞 右文館 大堤學 監春秋館事) 여흥군 민지(驪興君 閔漬) 지음.

16. 박서묘(朴遾墓)

종별번호 : 0704-31-016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60평

소 재 지 : 석수동 산168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박노일

석수3동 화창골의 환경 사업소 입구 은기목장 북동쪽 50m 지점에 있다.

박서는 선조35년(1602년)~효종4년(1653년)의 문신으로 자는 상지 호는 현계, 본관은 밀양이다. 인조2년(1624년) 사마시에 합격후 인조8년(1630년) 식년문과 을과 2등급으로 급제하였다.

호조좌랑과 병조좌랑을 거쳐 성균관 제주, 홍문관 교리를 지낸후 인조21년(1643년) 황해도 관찰사와 좌승지를 거쳐 1647년 병조참판, 효종1년(1650년) 공조와 병조의 판서로 재직중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묘역은 60평 규모로 봉분 높이는 140cm, 지름 350cm이며 석물로는 화강암의 상석과 향석 문인석 2기와 망주석 2기가 있다.

상석은 가로 115cm, 세로 70cm, 두께 35cm며, 향석은 가로 30cm, 세로 28cm, 두께 35cm, 문인석은 좌측이 전고 150cm, 견폭 50cm, 우측이 전고 160cm, 견폭 50cm등이며 망주석은 좌측이 주고 150cm, 지름 40cm, 우측이 주고 144cm에 지름 40cm이다.

박서묘 아래에는 2기의 쌍분이 있는데 박서의 손자묘로 알려지고 있으며, 박서묘에서 남쪽 50m 아래에 박서 신도비가 있다.

박서 신도비 번역문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병조판서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증시 박공 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兼 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 贈諡 朴公神道碑銘幷序)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수(守)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동지경연(同知經筵) 춘추관사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조석윤(趙錫胤)은 글을 짓고,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좌참찬 겸 성균관재주(成均館祭酒) 송준길(宋浚吉)은 글을 쓰고,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김수항(金壽恒)은 전액(篆額)을 하다.

선비는 항상 유용한 재기(才器)를 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에 베풀지 못함을 걱정하게 되는데 정작 때를 만났으나 하늘이 수명을 빌려주지 않아 그 베품을 끝까지 다할수 없었다면 어찌 천고(千古)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현계(玄溪) 박공(朴公)이 대사마(大司馬 : 병조판서의 별칭)로 있은 지 삼년 동안 권우(眷遇)가 날로 높아 앞으로 크게 쓰이게 되리라고 여겼는데 어느날 병으로 갑자기 관소(官所)에서 졸하니 상께서 진도(震悼)하셨고 조정의 대부(大夫) 사(士)에서 아래로 여대(輿臺 : 下人)이항(里巷)에 이르기까지 차탄(嗟歎)하고 눈물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

밀양 박씨 서묘 (남→북)

박서 묘 좌측 문인석 및 망주석

박서 묘 우측 문인석 및 망주석

다.

아! 슬프도아 공의 장례가 끝나 이듬해 공의 계씨(季氏)가 공의 묘소에 비를 세우려고 二천리 길에 글을 보내서 나에게 현각(顯刻)할 글을 청하였다.

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공묘(公墓)에 명(銘)을 하겠는가! 더구나 그때 나는 변군(邊郡)을 맞고 있을 때라서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는데 조정으로 돌아오니 더욱 굳이 청하였다.

이에 어찌 차마 명(銘)을 하지 않고 생사의 부탁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공의 휘(諱)는 서(迫)요, 자(字)는 상지(尙之)이며 현계(玄溪)는 그 호이다.

어려서부터 영이(穎異)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백씨(伯氏)에게서 글을 배웠다. 겨우 성동(成童 : 一五세를 말함)할 때되어 재사(才思)가 갑자기 진취하여 능히 율시(律時)를 지었는데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이 많았다.

여러 장자(長者 : 큰 선비의 뜻)의 문하에서 글을 익히니 백사(白沙 : 李恒福의 號) 이상공(李相公)자주 칭찬하고 원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여 심지어 자식을 맡길 만하다는 말까지 있었다.

나이 二三세인 갑자년(甲子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금화사 별제(禁火司別提)가 되었고 금오랑(金吾郎 : 의금부 도사의 별칭)으로 옮겼는데 전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공(李公)이기에 천용(薦用한 것이다.

선공감(繕工監)과 종부시(宗簿寺) 종묘서(宗廟署)의 직장(直長)을 거쳐 경오년(庚午年 : 一六三0, 인조 八)문과에 올라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는데, 이때 예문관에 천거하자는 말이 있었으나 임기가 찼기 대문에 성균관 전적(典籍)에 올랐다.

호조와 병조의 좌랑, 사간원 정연, 사헌부 지평 겸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계유년(癸酉年)에는 어버이의 봉양을 위하여 충주현(忠州縣)을 맡아 나왔는데 충주현은 실은 큰 고을이고 호서(湖西) 영남(嶺南)의 중간에 끼어 있어 사람도 많고 풍속도 고약하여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러나 공이 부임한 지 一년이 채 못되어 치적(治績)이 크게 나타나니 사람들이 공에게 사나운 적을 조제(調劑)하는 재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지평으로 소환되어 홍문록(弘文錄)에 올라 수찬과 교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정언과 지평에 제배(除拜 : 임명)되었으며 병자년(丙子年 : 一六三六, 인조 一四)에는 체찰부(體察府)에서 천거하여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는데, 하루는 연중(筵中)에 오르자 상께서 體察副使) 이성구(李聖求)에게 제로(諸路)의 병량(兵糧)에 대하여 물으니 이공(李公)이 대답을 못하자 공이 나서서 극히 상세하게 대답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겼다.

겨울에는 호서를 안찰하게 되었는데 군무(軍務)를 정돈하기도 전에 적병이 갑자기 닥쳐 대가(大駕)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공은 즉시 경상(境上)에 진주하여 제장(諸將)의 후원이 되었는데 감사(監司) 정세규(鄭世規) 병사 이의배(李義培)가 모두 적을 만나 궤패(潰敗)하니 공이 산병(散兵)을 규합하여 재기할 계획을 세웠으나 강화(講化)가 이루어져 버렸다.

복명하여 다시 교리에 제배되어 수찬과 예조정랑을 거쳐 사헌부 장령으로 옮겼고 오래지 않아 순천부사로 나갔는데 요부는 가볍고 송사는 잘해 정화가 크게 행하여 일경에서 구가하였다.

기묘년(己卯年) 상(喪)을 다하여 벼슬을 버리니 백성들이 모두 호읍(號泣)하고 배송(拜送)하기를 마치 부모를 읽은 듯 하였는데 결국에는 고을의 사민(士民)과 수륙(水陸)의 군병에서부터 승려(僧侶)에 이르기까지 각자 돌을 세워 공의 덕을 칭송하였으니 그 유애(遺愛 : 예사람과 같은 자애로움)를 알만하였는데 공이 부임하였던 모든 곳에서 떠난 뒤의 사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상을 마치자 연이어 수찬과 교리, 응교에서 제배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얼마 후에는 집의로 올랐다.

그때 소현세자(昭顯世子 : 인조의 세자가 심양(瀋陽 : 奉天)에 있었는데 궁료(宮僚)는 소임이 중하였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여 공으로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을 삼았다.

공이 이르자 주선하고 보호함에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또 능히 조행(操行)을 단결(端潔)하게 간직하니 위 아래에서 모두 존경하고 어려워 하였다.

계미년(癸未年 : 一六四三, 인조 二一)에 체직하고 돌아오니 대사간에 제배되었다가 사복시 정(司僕侍 正)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묘당(廟堂)에서 유신(儒臣)으로 재략(才略)이 있어 장임(將任)을 감내할 만한 사람을 가려 공이 포함된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황해도 관찰사 탁배(擢拜)되었다.

서로(西路)는 병란을 겪은 뒤로 요역이 구름처럼 일어나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으나 공이 부임하여서는 자봉(自奉)을 절약하여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책응(策應)은 하되 요부로 백성을 핍박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힘이 크게 펴져 ~六字缺~ 원근에서 칭송하기를 「전후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조정에서도 가상히 여겨 임기가 다하자 다시 연임을 명하였으나 병으로 사체(辭遞)하였다.

여러차례 병조참의와 참지(參知), 호조참의를 배수하고 은대(銀臺 : 승정원의 별칭)에 들어와 순차로 올라 우승지에 이르렀고 을유년(乙酉年)에는 강원도 관찰사에 제배되어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관서(關西)로 이배(移拜)되었고 가선(嘉善)에 올랐는데 대체로 묘당에서 서쪽 문호(門戶)를 중히 여겼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서를 다스리기를 해서(海西)에 있었을 때와 같이 하고 해가 지나서 병으로 체직(遞職)하였으며 정해년(丁亥年)에는 병조참판에 재배되었다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는 도승지에 제수(除授)되었다.

무자년(戊子年)에는 여러번 양사(兩司)의 장관을 배수하였고 간혹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 되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管)을 겸대(兼帶)하기도 하였다.

그때 마침 대산간 임담(林潭)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일을 논하였는데 상께서 차자에

서 인용하여 비유한 바가 정당성을 잃었다 하여 고쳐서 올리라 하니 공이 사헌부에 있는데, 사간원의 차자를 고쳐서 올리라고 명한 것은 실은 군상(君上)의 잘못인데도 승정원에서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탄핵하여 크게 임금의 뜻을 거슬려 체직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특명으로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었고 기축년(己丑年) 산릉(山陵)에 회장(會葬)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이나 그대로 파직되었다.

그해 겨울 서용(敍用)되어 부총관에 제수되었고 경인년(庚寅年 : 一六五O, 효종 1)에는 공조와 병조의 참판을 거쳐 도승지에 제수되었으며 재차 사헌부의 장이 되어 경연과 춘추관 명 비국(備局 : 비변사의 별칭)의 제주를 겸대하였는데 이로부터는 비국에 있는 일이 항상 많았고 상께서 공의 재국(才局)을 알고 가려 쓸 만하다고 여겨 특별히 공조판서를 제수하였다.

이듬해 봄에는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재차 연경(燕京)을 다녀와서 복명하니 예조판서에 제수되었고 경연과 총관(摠管) 및 지의금(知議禁)은 그대로 겸대하였다.

그때 마침 대행왕(大行王 : 승하한 전왕의 廟號)가 내리기 전을 명칭)의 부묘(腑廟)와 세자의 가관(加冠) 등, 큰 예식이 겹쳐 찬인(贊引)으로 예(禮)의 집행이 예제 (禮制)에 맞으니 구마(廐馬)를 하사하라 명하고 대사헌에 이배(移拜)되었다가 곧바로 병조판서에 제수되어 내국(內局 : 內醫院의 별칭) 종부시(宗簿侍) 전생서(典牲署) 등의 제주를 겸대하게 되었다.

공은 이미 임금의 지우(知遇)를 받아 본병(本兵 : 병조의 별칭)의 중임(重任)에 응명하였으므로 더욱 성력을 다하여 봉직하였고 무사(武士)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당한 사람으로 하여 일호도 사의(私意)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탁이 용납되지 아니하니 문전에는 잡진(雜塵)이 없었으며 여정(輿情)도 조용하였고 얻지 못한 자로 원망하지 않았다. 부정의 구멍을 막고 잡비를 없애니 경비는 크게 절감되어 한해가 채 못되어 군용이 남아났다.

공은 일찌기 유민(流民)을 정리하여 수륙(水陸)의 군역(軍役)에 환정(換定)하는 안건 등 몇 가지 일을 건청(建請)하였으나 조정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자 오래 전지(銓地)에 있고 싶지 않아 매양 연장(蓮章)을 올려 간절히 사의를 표하면 상께서는 선뜻 온유(溫柔)만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는데 한번은 연신(筵臣) 이후원(李厚源)에게 말

하기를 「병판이 비록 병이 있으나 병조와 사복시(司僕寺)에는 바야흐로 경장(更張)한 일이 있으므로 쉽게 교체하지 못하겠으니 경이 나의 뜻을 전하오」라고 하였는데 임금의 권우(眷遇)가 이와 같았다.

계사년(癸巳年 一六五三, 효종 四)여름 상게서 위예(違豫 : 불편함)하여 공이 시약(侍藥)하였는데 달포가 넘게 걱정하고 수고하여 병이 더하게 되자 이윽고 병가를 내고 집에 있었으나 병이 덮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날이 六월 二八일이었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께서 액정인(掖庭人 : 내시)을 보내서 병의 원인을 물었고 또 어떻게 상(喪)을 치룰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으며 이어 하교하기를, 「판사 박서는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고 용감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일에 성취가 있었으므로 내가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앞으로 그를 전임(專任)하여 그 큰 뜻을 펴보게 하려 했는데 불행하게도 나이 많지 않아 죽으니 내가 심히 애도하는 바이다. 생각해보면 박서가 일찌기 나의 병을 걱정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박서의 죽음에 비통해 할 줄 생각이나 했는가?」라고 하고 특별히 관재(棺材)와 상수(喪需)를 내렸다.

장례가 임박하자 연신(筵臣)이 상여를 메고 묘소를 만들고 할 인부를 주기를 청하고 또 집안에 의금(衣衾)도 없어 친구가 수의(遂衣)를 도와 비로서 염(殮)을 할 수 있었다고 사뢰니 임금이 차탄하고 인부를 넉넉히 주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어떻게 국사에 진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장(安葬)도 할 수 없게 하겠느냐」고 하였이니 아! 종시의 애영(哀榮)이 가히 지극하다 하겠다.

공은 자성(資性)이 열달(榮達)하고 기도(器度)가 심원(深遠)하였는데 정사(政事)에 밝아 계획하고 실시함이 착착 제경우에 맞아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지경이있고 사나운 고을과 큰 도(道)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청찰(聽察)은 귀신처럼하고 결판은 물 흐르듯이 하였기 때문에 아전들은 두려워 하고 백성들은 사모하여 치적은 항상 제일이었으며 청렴결백하기가 남보다 지나쳐 관직에 있으면서는 추호도 범함이 없었다.

양서(兩西)는 본내 기름진 곳으로 일컬어졌으나 처신(處身)하기를 물같이 담박(澹泊)하게 하니 고로(古老)들이 모두 칭송하기를 눈과 귀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사신으로 다녀왔을 때도 저들한테서 받을 금백(金帛)을 있는대로 종자(從者)들한테 나

누어 주고 스스로 차치하지 않았으며 사복시(司僕寺)에서는 으레히 폐목장(廢牧場)에 심은 목화를 거두어 개인이 나누어 가졌었는데 공이 제주(堤調)가 되어서는 즉시 고쳐 버리니 사람들은 혹 중인(衆人)과 다르지나 않나 의심하였지만 공은 거기에 개념하지 않았다.

공의 선조에는 청명(淸名)으로 세상에 저명한 이가 많았고 이정공(夷靖公)을 일찌기 어필(御筆)로 「척백전가(淸白傳家)」 네 글자를 받기도 하였는데 공은 가히 가성(家聲)을 떨어뜨리지 않은 분이라고 하겠다.

공은 내행(內行)에 더욱 독실하여 열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식소(食素 : 어육을 먹지 않음)를 어른과 같이 하였고 대부인의 병구완을 한 때에는 여러달동안 때를 풀지 않았으며 임종(臨終)에는 계씨(季氏)와 함께 손가락을 깨서 피를 드렸고 돌아가신 뒤에는 남의 수석(壽席)에는 나가지 않았다.

우애가 깊어 좋은 옷과 음식은 함께 하였고 여러 조카를 교양함에 기출(己出)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친족간에는 돈목하여 은의(恩意)를 극진히 하였다.

본래 교유(交遊)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사귄 처지에는 신의가 매우 깊었고 술은 즐기어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상을 보아 즐겁게 담소(談笑)하였는데 흉금(胸襟)이 넓어 겉과 속의 다름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사모하였다.

공은 항상 지우(知遇)에 감격하여 평소에도 집안 식구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라 일에만 부지런하였으니 공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였다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 도움됨이 있었으련만 갑자기 졸하니 아! 어찌 천운이 아니랴! 공은 만력(萬歷) 임인년(壬寅年 : 一六0二, 선조 三五)에 태어나 죽을 때에 나이 五二세였다.

공의 선계(先系)는 밀양인(密陽人)이다.

삼한(三韓)이래로 대성(大姓)으로 내려왔는데 고려(高麗)의 합문지후(閤門祉侯) 감은 공의 一一세조이다.

이로부터 대대로 저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조 휘 열(說)은 벼슬이 좌찬성이요, 시호는 이정(夷靖)이니 아들이 없어 형 운봉현감(雲峯縣監)지(誌)의 아들 세정(世貞)으로 뒤를 이었다.

이가 평시서직장(平市署直長)으로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 형 장사랑(將仕郞) 희정(希貞)의 아들 옹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는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장단부사(長湍府使)를 지냈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이가 병조좌랑을 지낸 증 이조참판 휘 효남(孝男)을 낳으니 바로 공의 고(考)인데 포의(布衣) 때부터 의기(意氣)를 숭상하여 일찌기 태학생(太學生)一백여인을 인솔하고 송강(松江) 정상(鄭相 : 정철)의 무왕(誣枉)을 변명하니 사로(士論)이 옳게 여겼다.

그러나 마침내 그 일 때문에 벼슬이 현달하지 못하고 재주를 안고 죽어 세상의 애석해 하는 바가 되었는데 사복정이하 三代의 추영(追榮)은 공이 귀히 됨으로서 내려진 것이다.

전부인(前夫人)은 군수 김변(金변)의 따님으로 一남을 낳았으니 추인데 당시의 재신(才臣)이 되었었으나 불행히 일찍 죽었고 후부인(後夫人) 연일정씨(延日鄭氏)는 홍문전한(弘文典翰) 언호(彦浩)의 증손녀이자 병절교의 희준(希俊)의 따님인데 부덕(婦德)과 모의(母儀)가 두루 규방(閨房)의 모범이 될 만하였고 여러 아들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어 항상 「너의 청백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二녀 三남을 낳으니 공이 그 맏이이다.

공의 초취(初娶))는 별좌(別坐) 남양(南洋) 홍여필(洪汝弼)의 딸이고 후취(後娶)는 부사(府使) 파평(坡平) 윤양(尹瀁)의 딸인데 모두 조졸(早卒)하여 아들이 없어 아우 구의 아들 시위(時暐)를 아들로 삼았다.

시위는 참판 조석윤(趙錫胤)의 딸을 취(娶)하여 一녀를 낳았으나 어리고 측식(側室)에서 一자가 있으니 시민(時珉)이나 아직 어리다. 그 부인은 모두 원주(原州)의 손곡리(蓀谷里)에 장사지냈고 공은 금천현(衿川縣)의 남쪽 계좌원(癸坐原)에 장사지냈는데 앞으로 그 부인을 옮겨 부장(祔葬)할 계획이라 한다.

명(銘)하기를 영명(英明)한 박공(朴公)은 식견도 통달하고 기국도 컸는데, 일찍 청운(青雲) 길에 드날리고 가성(家聲)을 잘도 이었다네,

내외직 두루 거치고 임금의 좌우도 두루 마땅했는데, 뒤얽힌 별다른 이곳 빙옥(氷玉)처럼 검어지지 않았다네.

성군(聖君)이 계승한 첫 정사에 권우(眷遇)는 더욱 융숭했고,

오래도록 본병(本兵) 맡기니 그대의 충성 가상히 여김이다.

오직 공명정대하여 이에 여송(與訟) 따랐으니, 아마도 조만간에 크게 쓰임 다하리라 여겼는데, 기왕 재주를 주고 그 수명 빼았음이나, 아! 박공이여 천운인걸 어찌 아겠나!

금양(黔陽)의 언덕에 으슥한 묘도(墓道)있어, 나의 명(銘) 깍이지 않나니 길이 내예(來裔)에 밝히리로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三八년 을사(乙巳 : 一六六五, 현종 六)二월일세움.

선사사대 분묘(先史時代 墳墓)

안양의 향토사 연구는 대부분이 과거 문헌에 의존한 역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역사시대 이전에 관한 연구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80년 후반기 안양, 평촌동 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함께 구제발굴조사 성격으로 진행된 평촌동 문화유적조사로 인해 안양의 역사를 후기 석기시대로까지 규정할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유적이 조사 발굴되었고 당시 조사에서 타제석기 분포지와 함께 지석묘가 15기 그외에 초기백제시대 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분묘 지석묘가, 한강 이남에선 최초로 다곽식 지석묘로 발견되었고 백제주거지는 완벽한 형태로 발굴되어 학술적으로 값진 성과를 이룩하였다. 선사시대의 분묘를 알려면 먼저 선사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선사시대의 개요와 함께 평촌동 지석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인류의 역사는 보통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한다. 선사란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말하며, 역사시대란 인류에게 문자가 생겨나 이를 기록으로 남겨 놓은 시대를 말하는데, 역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관계 문헌 및 유물과 유적에 의하여 파악을 할 수 있는 반면,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는 기록이 없어 그 당시의 유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고학의 분류에선 선사시대를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일컬으나 시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발생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시대의 구분을 기원전 200만년에서 기원전 5천년을 구석기로, 기원전 5천년부터 기원전 10세기까지를 보통 신석기로 구분하며 철기가 유입되는 기원전 300년까지를 청동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의 발생과 전파는 중국북방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다. 선사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사회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기록이 전무한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은 선사시대 즉,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걸쳐 다른 특성을 보이며 변천하는 당시의 분묘제도 또는 생활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유물, 유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먼저 석기시대는 자연석을 단면이나 양면으로 깬 후에 도구로 사용하는 타제석

기시대와 이를 필요한 대로 갈아서 사용하는 마제석기시대로 구분하는데 타제석기는 구석기시대이며 마제석기는 인류의 두뇌가 더욱 진보된 신석기 시대로서, 이 시대에는 석기류 외에 짐승의 뼈를 이용한 각종 골각기와 입자가 굵고 거친 무문토기 및 빛살무늬 토기류가 등장하며 석기시대 중기이후엔 조개무지라고 부르는 패총이 있으나 매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석기시대의 유구가 발견된 예는 없으며, 신석기에 이르러 동굴이나 땅을 파고 흙과 돌을 덮는 최소한의 토광묘가 등장한다. 또한 주거지는 수혈식 지하 주거형으로 중앙에는 화덕자리와 집터외각에는 저장공의 시설을 갖추기도 한다.

석기시대에 이어 청동기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간의 생활은 좀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금속의 출현은 강력한 힘을 뒷받침 하게된다. 또한 청동을 원료로한 동검, 동모 등과 장신구 등이 만들어 지고 토기는 입자가 곱고 붉은 칠을 한 단단한 토기로 발전하며 주거형태 또한 기둥을 세우고 장방형에 칸막이를 세우는 등 공간의 구조를 변화시키어 반수혈식의 목조형태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동기 초기에는 북방 청동제품을 모방한 석기류가 병행하여 이 시기를 금석병용기라 칭하나 본격적인 청동제품의 유입과 함께 독자적인 청동제품을 만드는데 그 예로 시베리아 계통에 비파형동검을 한국형인 세형동검으로 변화시킨다.

한편 매장제도 또한 분묘로서의 특성을 지닌 각종 형태의 분묘가 등장하여 대표적인 지석묘와 석관묘, 적석총, 옹관묘 등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 평촌동 지석묘(坪村洞 支石墓)

종별번호 : 0704-32-001

시　　대 : 청동기 시대

규　　모 :

소 재 지 : 갈산동 1111-12호

지　　목 : 임야

재　　료 : 석재

관 리 자 : 안양시

대부분이 논과 밭 등의 경작지였던 평촌동 지역은 전체적인 지형이 평야지대로 자연명칭을 '벌말'이라 부르던 곳이다. 평촌동 전지역과 비산2동, 호계2동 일부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함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의뢰로 조사된 평촌동 지석묘는 자유공원내에 5기의 지석묘가 복원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1989. 10. 17일

평촌지구 개발전 모습 (서→북)

~12월16일까지 지표조사 및 1990년4월19일~5월26일까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지석묘이다.

당시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평촌, 신촌, 귀인마을에서 모두 15기의 지석묘가 발굴 되었으며 특히 귀인부락에서는 백제초기 주거지가 원형복원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현재 발굴당시 자료중 안양에 있는 것은 지석묘 5기 뿐이며 그외에 자료들 즉, 지석묘의 출토유물 및 주거지 유물, 타제석기 분포지유물 등은 명지대 용인분교에 보관중으로 '96년 완공예정인 경기도립박물관에 이전 전시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10기의 지석묘와 조선시대 묘역석물의 행방이 묘연하여, 그동안 뜻있는 관계자 및 지역언론에 의해 명지대 보관유물에 대한 안양으로의 반환이 꾸준히 제시되왔다.

모든 문화적 자료는 원래의 자리에 보존될 때 더욱 값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안양에 이를 보관하고 전시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관계로 무조건적인 유물의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립박물관에 안양 평촌의 선사유물이 전시됨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적·학술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차후, 안양에 박물관이나 사료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일부의 평촌유물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하며, 백제 초기주거지의 경우 평촌지역 공원내에 복원과정을 통해 선사시대의 학습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평촌지역 발굴유물의 안양으로 반환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다.

○ 평촌동 발굴 조사현황 (안양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 참고, 경기도 발행)

유적명칭	소 재 지	시 대	기수	보존상태	유 물	비 고
A 군 지석묘	평촌동 805 (평촌남쪽)	청동기	1	완형	토기및자기편	성혈무
B 군 지석묘	평촌동 668-2 (신촌마을 구릉정상)	청동기	5	완형		2기에 6군데 성혈유
C 군 지석묘	평촌동 365-3 (귀인마을 구릉)	청동기	1	완형		성혈 7개유
D 군 지석묘	평촌동 210 (평촌 논지역)	청동기	6기	1개제외, 완형		성혈무
E 군 지석묘	의왕시 갈미	청동기	2기	완형		성혈무
타제석기 분포지	평촌동 365-3	구석기 ~철기		양호	타제, 마제석기 숫돌, 토기등18점	

유적명칭	소 재 지	시 대	기수	보존상태	유 물	비 고
전주이씨 묘 역	평촌동 467	조선	3	양호	〃	
경주김씨 묘 역	평촌동 306-3	조선	2	양호	〃	가산대부김덕금지묘 학 생 경 주 김 공 상 수 지 묘 (1914년 세움)
기념비	의왕시 갈미마을	조선	1	양호	기 념 비	김 보 현 영 세 불망비(1879년건립)
백제초기 주거지	귀인마을	백제초기		양호	백제 토기편, 석부1점, 흑색마연토기편 1점, 승석문토기편 1점	

○ 위치별 유적현황

(1) A群 지석묘

이 지석묘는 해발 90m갈산 남서쪽 아래, 즉 대안여중 바로 뒷편에 위치하여 있다. 정면으로는 서울~수원간 산업도로가 보인다.

형식은 개석식(무지석식)이며 조사 당시 개석의 절반 가량이 흙속에 묻혀 있었다. 개석의 규모는 200×100×30cm이고 형태는 타원형이다.

또 장축의 방향은 남동~북서향이며 성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분	위치	형식	재질	개석규모(cm)			개석 형태	장축 방향	확인 성혈	상 태		비고
				장축	단축	두께				완형	파괴	
1	평촌동 805 밭	개석식	화강암	200	100	30	타원형	남동-북서	·	○		개석의 절반이 땅 속에 묻힘

(2) B群 지석묘

본 지석묘는 신촌마을 입구 해발 90m 갈산 서쪽 구릉의 정상에 5기가 밀집되어 있다. 지석묘의 간격은 약 2~5m 정도로 일정한 법칙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질은 모두 편마암으로 형태는 잘 다듬어진 타원형이 1기이고 방형이 1기, 부정형이 2기, 나머지 1기는 개석의 전체가 땅속에 파묻혀 형태를 알 수 없다.

평촌지구 개발 전 전주 이씨 묘역, 문인석 (서→동)

형식은 모두 지석이 보이지 않는 개석식이다. 장축방향은 대부분이 남~북향이고 개석의 규모는 240~180cm이다.

구분	위치	형식	재질	개석규모(cm)			개석	장축	확인	상 태		비고
				장축	단축	두께	형태	방향	성혈	완형	파괴	
1	평촌동 668-2, 산	개석식	편마암	240	170	30	타원형	남-북	1	○		개석의 절반이 땅 속에 묻힘
2	〃	〃	〃	178	100	25	부정형	동-서	·	○		산의 경사로 인해 원래의 위치보다 밑으로 내려옴
3	〃	〃	〃	180	150	35	부정형	남-북	5	○		
4	〃	〃	〃	205	180	25	방 형	〃	·	○		전체 개석이 땅 속에 묻힘
5	〃	〃	〃	·	·	·	·	〃	·	○		

(3) C群 지석묘

본 지석묘는 귀인마을 안쪽 해발 60m의 구릉 정상에 있다. 주변으로는 멀리 안양천이 보이며 B群의 지석묘와는 남동쪽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졌다. 지석묘의 형식은 개석식으로 규모는 180×130×135cm이고 재질은 화강암이다. 개석의 형태는 잘 다듬어진 타원형이고 성혈은 7개가 확인되었는데 그 흔적이 매우 뚜렷하다. 장축의 방향은 남~북향이다. 마을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바위는 영험함을 지니고 있어 옛날부터 마을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마다 이곳에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구분	위치	형식	재질	개석규모(cm)			개석	장축	확인	상 태		비고
				장축	단축	두께	형태	방향	성혈	완형	파괴	
1	평촌동 668-2 산	개석식	편마암	240	170	30	타원형	남-북	1	○		

(4) D群 지석묘

본 지석묘군은 갈산 북동쪽 논에 위치하여 있다. 조사된 지석묘는 모두 6기로 남-북을 장축방향으로 하여 일렬로 자리하고 있는데 조사 당시에는 1기만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나머지 5기는 땅속에 묻혀 개석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본 대학 조사단은 노출된 1기의 지석묘 주변을 정밀 조사하였던 바 땅 속에 묻혀있는

기의 지석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이들외에도 지석묘의 개석으로 생각되는 바위들이 여러개 있었으나 이를 다른 곳에 버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후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워진다면 이외에도 많은 지석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지석묘군은 남북 방향으로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들 지석묘를 편의상 남쪽의 것부터 1·2·3·4·5·6호로 한다.

구분	위치	형식	재질	개석규모(cm)			개석	장축	확인	상 태		비고
				장축	단축	두께	형태	방향	성혈	완형	파괴	
1	평촌동 250, 논	개석식	화강암	220	92	40	부정형	남-북	·	○		
2	〃	〃	편마암	220	150	36	〃	〃	·	○		
3	〃	〃	〃	265	200	60	타원형	동-서	·		○	
4	〃	〃	〃	390	200	50	〃	남-북	·	○		
5	〃	〃	〃	85	52	26	방형	〃	·	○		
	평촌동 249	〃	〃	210	173	30	〃	〃	·	○		

(5) E群 지석묘

이곳에서 조사된 2기의 지석묘는 평촌지구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 위치가 옛날에는 평촌과 같은 지역이었고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공사진행시 파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지석묘는 해발 90m葛山의

평촌지구 개발전 지상 노출 지석묘 (북→남)

서쪽 구릉, 즉 계원예술고등학교 바로 옆에서 발견되었다. 형식은 평촌지역의 것과 같은 개석식으로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형식	재질	개석규모(cm)			개석	장축	확인	상 태		비고
				장축	단축	두께	형태	방향	성혈	완형	파괴	
1	의왕시 내손동 갈미	개석식	편마암	190	120	30	타원형	남-북	·	○		
2	〃	〃	〃	230	186	36	〃	동-서	·	○		

(6) 타제석기분포지

본 유적은 귀인마을 안쪽 해발 60m 구릉정상과 남서쪽 능선의 경작지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유적의 규모는 약 200평 정도로 그 중앙에는 C群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타제석기와 함께 마제석봉, 숫돌, 김해식토기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후기 구석기에서 청동기·철기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추정된다. 특히 마제석봉과 숫돌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물분포율은 1m×1m 넓이에 몸돌2, 찌르개2, 긁개2, 새기개1, 찍개1, 기타 10점 등 총 18점이다.

(7) 전주이씨묘역

이곳은 신촌마을에 위치한 묘역으로 구릉의 정상에는 B群 지석묘 5기가 자리하고 있다. 즉 이곳의 묘역은 B群 지석묘 바로 아래편부터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 묘역 약 400평 규모에 모두 6기가 조사되었다.

묘역 자체는 보호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데 미치어 지금은 폐묘가 되었다고 한다.

(8) 전주이씨묘역

본 묘역은 해발 90m 갈산 북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위에는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사된 분묘는 모두 3기로 아무런 표식이 없어 피장자를 알 수 없다.

(9) 경주김씨묘역

이곳의 묘역은 약 500평 규모로 해발 90m의 갈산 북쪽구릉의 서쪽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분묘는 모두 10기이나 조사대상에는 2기만이 해당되고 나머지 8기는 근래에 조성된 묘역이다.

구분	묘역 명칭	소재지	시대	봉분수	석 물							조사자 견 해	비고
					묘 표	상 석	향로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기 타		
1	全州李氏墓域	평촌동 668-2	조선	6		1	1	2	2	2	묘표기단석	이전보호	
2	全州李氏墓域	평촌동467	조선	3		1	1			2	1	이전보호	
3	慶州金氏墓域	평촌동 306-3	조선	2	2	1	1		1			이전보호	

⑽ 기념비

본 비는 개발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경제지역에 위치해 있어 훼손이 우련된다. 즉 이 비는 대한종합운수 길 건너편에 건립되어 있는데 50×21×126cm 규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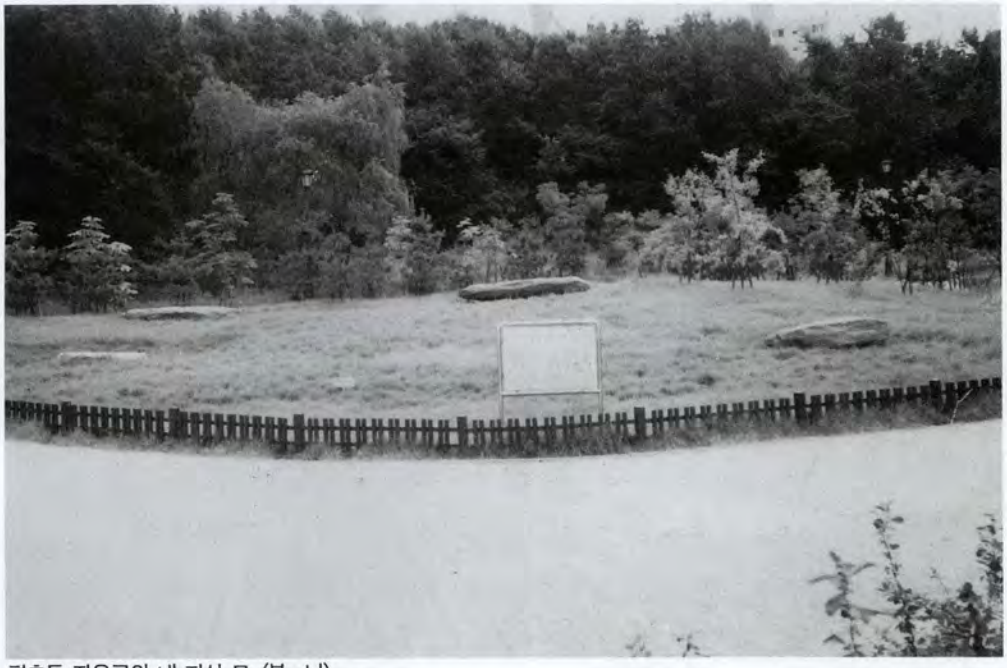
前面에는

留相金公輔鉉永世不忘碑

라 쓰여있고 後面에는

光緒五季己卯윤三月 日 集谷

이라 쓰여있어 1879년에 건립되었음을알 수 있다.



평촌동 자유공원 내 지석 묘 (북→남)

도요지 (陶窯址)

우리나라에서의 도자기 발생의 기원은 신석기시대의 무문토기나 절문토기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서 토기에 유약을 바른 토기가 등장하며 신라말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청자를 만들게 된다.

이후 고려시대로 들어오며 도자기 기술은 그 질과 조형이 뛰어난 고려청자를 완성하며 세계 최고의 「도자기의 나라」로서 세계도자사에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된다. 청자는 토기의 태토를 고르게 걸러내어 회색 유약을 입힌뒤에 1250°C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어내면 겉면은 그윽하고 푸른 빛에 배추잎 색이나 맑은 하늘 빛에 청자가 탄생되는 것이다. 청자유약에는 아주 소량의 제2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마에서 구워질때 원래의 색인 푸른 빛을 띄우게 되며 이 작용을 환원번조라 한다.

고려시대에는 청자이외에 백자도 생산되었으나 숫적으로 적고 질도 뛰어나지 못하였고, 1231년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는 초토화되며 청자를 구워낼 수 없게되자 마침내 청자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도자기 분청사기를 탄생시킨다. 분청사기는 태토에 백토로 분장한 후 회청색의 유약을 입힌 사기를 말하며 줄여서 '분장회청사기' 즉 '분청사기'라 부른다.

분청은 조선조에 활발하게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220개소의 가마에서 생산을 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고비로 가마는 파괴되고 도공은 흩어지며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순백의 조선백자가 나타난다. 조선백자는 왕실의 음식제조와 필요한 용기를 관장하는 사옹원의 분원이 그 중심이 되며 백자의 전통을 이어가다 17·8세기에 이르러 토청이라는 국산 청화안료와 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회회청의 안료를 무늬로 그리는 청화백자와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내는 철회백자가 등장하는데, 특히 청화백자는 "백자의 꽃"이라 일컬어 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백자를 생산하는 것은 300여기 이상의 도자기소 중에도 경상도 상주와 고령, 경기도 광주를 으뜸으로 쳤다. 그 중에서도 광주는 사옹원의 관리와 화공이 직접 파견되어 도자기 만드는 일을 관장할 정도로 조선시대 최고의 백자만을 생산하던 곳이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분원의 상업화 및 국가의 흔들림과 함

께 조선백자의 시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세계의 여러나라가 나름대로의 도기를 생산해 냈지만 한국처럼 우수한 자기를 일찌기 만든 나라는 별로 없었다. 한국과 중국만이 독창적이고 양질의 자기를 생산하였을 뿐이였다. 우리나라는 전국도처에 도자기를 생산하던 도요지가 분포하는데 오늘날 도요지의 연구는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도요지는 고려시대에 남서부 해안지방이 주류를 이루나 조선조에 이르러 내륙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새로운 도요지가 발견되고 있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에 약 324개의 도자기소가 등장하며 경기지방에는 자기소가 14개, 도기소가 20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각기 상·중·하로 나누어 도자기의 품질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안양주변의 도자기 가마로는 과천현 북쪽 가좌동에 도기소가 있고 중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안양부근의 가마로는 처음으로 문헌상에 등장한다.

1. 비산동 도요지(飛山洞 陶窯址)

종별번호 : 0704-35-001

시　　대 : 11-14세기

규　　모 : 2330여평

소 재 지 : 비산동 산3-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자기편

관 리 자 : 안양시

안양유원지를 지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목원 입구에서 삼성산과 관악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북쪽으로 500여m 올라가면 불성사로 오르는 입구 우측 낮은 구릉지대에 다수의 청자편과 백자편 도지미들이 눈에 띄는데, 이곳이 관악산 비산동 도요지이다.

비산동 도요지는 관악산 일대에 형성되었던 요지중의 하나로 11~14세기에 걸

비산도요지 (서→동)

비산도요지 수습자기편

불당 약수 도요지 수습 자기편

쳐 장기간 사용되었던 도자터며, 1987년 이후 국립박물관에 의해 몇 차례의 지표 조사가 있었고, 이때 약 500여점의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이곳에서는 11세기경의 조질 청자류와 11~12세기경의 조질 철재도기, 흑유도기 및 1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청자류와 더불어 역시 14세기의 고려백자가 출토되어 고려시대 도자기의 다양한 발달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으며, 제품들은 대접, 접시, 항아리와 순청자가 대부분이나 음각문, 반양각문, 양인각문, 상감문을 가진 것도 있다.

특히 고려백자는 용인 서리요지에 이어 두번째로 발견되었고 11~12세기 청자 파편도 서울 근교에서 처음으로 발견됨으로 14세기 백자편과 함께 고려전후기 백자와 조선백자의 성립 과정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백자는 경질과 연질 두가지이며 상감과, 음각문의 백자편도 수습된다. 이 요지는 서울 근교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려 전 후기 청자요지이며 국내 유일의 고려후기 백자 가마터로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편, 전북 부안, 전남 강진 가마가 최상품의 청자를 구웠던 것과는 달리 일반용 상업도자기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1년 4월12일 경기도 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받았다.

2. 불당약수 도요지(佛堂藥水 陶窯址)

종별번호 : 0704-35-002

시　대 : 고려~조선

규　모 :

소 재 지 : 비산동 산9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자기편

관 리 자 : 없음

비산동 종합운동장을 지나 안날미 불당 약수터에서 동쪽으로 20여m 부근에 위치하는 이 곳은 비산동 도요지의 남쪽 봉우리를 경계로 서남쪽 방향이다.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 곳은 아니지만 이 곳 주변에서 자기편과 도지미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관악산 도요지 중 하나로 추측이 가는 곳이다.

대부분의 자기편이 백자류가 주를 이루나 청자편도 눈에 띄며 출토유물 모두 문양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포개 굽기 위하여 받쳐 놓은 눈의 형태가 뚜렷하다.

조질청자와 환원번조가 안된 작은 잔 형태의 청자류 및 조질 백자류 등 사발, 접시, 푼주, 바래기류가 수습되는데, 청자류는 평저굽이며 백자류는 빙렬이 없는 회백색을 띄고 있다. 백자류의 굽은 평저굽에 굵은 모래받침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며 접시바닥 또한 포개어 구운 흔적이 뚜렷하고 자기류는 두께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이 섞여 있으나 시유가 아주 고른 것도 있는 등, 비교적 중하품의 도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백자류가 많이 수습이 되며 백자 파편중에는 담청색에 가는 빙렬이간 자기편도 있어 비산동 도요지와 연계가 있던 도요지 터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분청사기 편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백자를 굽던 조선 중기의 관악산 요지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커 앞으로 좀더 정밀한 조사를 요하는 곳으로 사료되는 지역이다.

위인선현유적(偉人先賢遺蹟)

위인선현유적에 대한 조선시대의 인물로는 자료와 유적이 빈약하며 근세 인물중 일제치하의 독립 운동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5명의 인물중 원태우지사 의거비는 1992년 11월 22일 새안양회가 주최가 되어 안양시립도서관에 세워졌으며 '95년 8월 15일에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지역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정신계승과 역사의 산 교육을 고취하기 위하여 갈산동 자유센터에 원태우 지사와 한홍이 선생의 흉상을 공적비와 함께 제작하였다.

또한 원태우 지사가 생전에 제작한 돌절구와 맷돌이 안양시에 기증되어 보관 전시중이며, 원의사의 의거지인 안양 철로변에는 '96년 안양시 문화사업 계획으로 의거지 표석을 세워 후세에 남겨지는 위인선현 의거지로 보존할 계획이다.

1. 원태우 의거지(元泰祐 義擧址)

종별번호 : 0704-37-001

시　　대 : 1882년~1950년

규　　모 :

소 재 지 : 석수동 333-1

지　　목 : 도로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원태우 의사는 본관은 원주이며 부 이태성과 모 이호순 사이에서 2남으로 고종 19년(1882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42(농협 중앙회 안양시 지부근처)에서 태어났다. 농촌 출신으로 깊은 학식은 없었지만 평소 의기가 높고 바른일에 앞장을 서는 정신과 기백이 있었다. 23세가 되던 1905년 11월 7일 을사조약으로 온나라는 비운에 잠겼으며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480자의 논설은 온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였다.

그러던중 11월 22일 을사조약의 원흉 이등박문이 일본측 조약담당자인 히야시 곤스케와 함께 오전7시 남대문(현 서울역)을 출발, 수원시 팔달산을 구경한뒤 안양에 도착, 오후6시15분 서울행 기차를 탔다.

이소식을 들은 원의사는 동료와 함께 안양육교 아래 돌을 깔고 열차 전복을 거사했으나 두려움에 떨던 이만려가 돌을 치우자, 이어 열차가 나타났는데 원의사는 혼자 이등박문이 앉은 자리를 향해 세치 크기의 돌 수개를 던져 유리창이 박살나고 파편이 이등박문의 얼굴 여덟군데나 박혔다. 당시 이사건은 전국을 흔들어 연일 신문에 보도 되었으며 「일러 전쟁 화보」 29권에 일본인 화가 기무라 고타로가 그린 흰도포에 갓을 쓴 남자가 오른손을 들어 열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이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란 제목과 함께 보도됐다.

한편 원지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징역 2개월에 곤장 백대를 맞고 이듬해 1월 24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혹독한 고문으로 흉칙한 흉과 국부에까지 심한 고문을

당하여 자녀를 두지 못하고 왜경의 감시 속에 석공으로 생계를 꾸리던중 1950년 한국전쟁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마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원지사는 형의 삼남인 계복씨가 양자로 입적하여 대를 잇고 있으며 유품으로는 돌절구 2개와 맷돌이 1개 있는데, 그중 맷돌 1개는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으며 의거결행 85주년인 1990년 8월 15일 정부에 의해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고 1992년 11월 22일에는 안양의 자생단체 「새안양회」에 의해 「원태우지사 의거비」가 안양시립도서관에 세워졌다. 묘는 안양4동 공동묘지에 있으나 1982년 화양 아파트가 들어서자 화장되었다.

원태우지사 의거지 (북서→남동)

2. 하영홍과 삼막교회지(河永泓과 三幕敎會址)

종별번호 : 0704-37-002

시　　대 : 1879년~1915년

규　　모 :

소 재 지 : 석수동 263번지

지　　목 : 대지

재　　료 : 콘크리트 철골조

관 리 자 :

하영홍의 본관은 진주이고 일명 주명으로 진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평 문씨로 고종16년(1879년~1915년)의 인물이다.

세종조 영의정을 지낸 연의 15대 손이며 조선중기 의금부도사 우청의 10대손이다. 삼막골에서 (안양시 263번지) 출생 21세에 석수동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이듬

하영홍 생가지 (동→서)

해 지도자 교육을 받은뒤 전답을 팔아 당시 돈 180원으로 초가 3칸 규모의 삼막골 교회를 세워 속장이 된 후 광무5년(1901년) 8월 6일 스웨어러 미국인 선교사와 존 장로사 및 각교회, 형제, 자매 70명이 봉헌 예배를 올렸다.

그후 25세가 되던 광후8년(1904년) 9월 14일 하오3시 시흥읍내 한천교(광명입구 안양천)에서 농민봉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조약의 기반인 「한일의정서」를 채결후 전쟁을 목적으로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로 부역시키기 위해 동년8월 청국 안동련 지방의 병참기지 및 철도건설에 노동자를 보내 줄 것을 강요하고 이에 농민들은 과한 역부모집 및 시흥군수 박우량의 노임 착복에 불법행위를 하자 시흥의 6개면 농민 수천명이 항쟁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영홍은 광명시 출신 성우경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되어 순검에 체포 15년을 언도 받았다가 그후 1등급 감하여 1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묘는 안양3동에 있었으나 1960년에 화장되었다.

3. 한흥이생가지(韓興履 生家址)

종별번호 : 0704-37-003

시　　대 : 1897년~1979년

규　　모 :

소 재 지 : 호계동 289번지

지　　목 : 대지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광무 원년(1897년) 7월 18일 인천에서 태어났으나 5세때 안양시 호계동 289번지로 이사와 자랐으며, 호는 몽당 본관은 청주이다. 부는 용익이며 아명은 정봉인데 8살때 조부가 「한나라의 복을 일으켜 세우라」는 뜻으로 한흥이라 이름을 지었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던 시절부터 약소민족의 아픔을 느끼며 애국심을 불태웠고

한흥이 생가지 (남→북)

1919년 경성고보 재학중 3월 1일을 맞이했다.

그날 방과후 탑골공원 밖에서 독립선언문을 동료들과 외친후 기차 통학생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임무를 띠고 시흥, 안양, 군포 전역에 뿌릴 독립선언서를 분배받아 현지에 이르러 광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하였다.

3월 2일에는 만리동 김달환집에 기거하며 선언서와 독립신문을 돌리고 5일에는 동료 31명과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제2의 시위운동에 참여 남대문역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수백명 군중과 함께 시내로 행진하다 붙잡혀 경성법원으로 3년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후 경성 매일신문사 기자를 역임했으며 광복이 되자 1948년에 이름을 항길(恒吉)로 개명한 후 안양직물회사의 설립과 한국전쟁후 1958년 3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소사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78년에는 부천 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이듬해 1979년 5월 8일 82세의 일기로 운명하였다. 1990년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훈장증을 추서받았고, 묘는 소래읍 매화리 산26번지에 있다.

4. 이영래 생가지(李永來 生家址)

종별번호 : 0704-37-004

시　대 : 1873년~1949년

규　모 :

소 재 지 : 비산동 113번지

지　목 :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박노일

이영래의 본관은 전주로 고종10년(1873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3번지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7일 광목 행상 도중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백기회집에 모여있던 이중교외 수명에게 「다른 마을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한 후 주민 5명과 함께 그날밤 8시경 관양동 서쪽 언덕위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의 기운을 일으켰다. 이일로 경성지법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옥에서 석방후 광명시 일직동 220번지로 이주해 살다가 1949년 2월 17일 상오 11시에 사망했다.

묘는 비산동 쟁골에 있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서자 화장되었다.

1. 성인 최경환 성지(聖人 崔京煥 聖地)

종별번호 : 0704-37-005

시　대 : 순조5년(1805년)~헌종5년(1839년)

규　모 :

소 재 지 : 안양3동 산79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안양 장내동 성당

최경환의 본관은 경주이며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신부가 된 최양업의 아버지다. 순조5년(1805년)~헌종5(1839년)년의 인물로 충남 청양군 화성면 출신이며 일찌기 천주교 신앙에 눈이떠 경주 이씨인 충청도 홍주 출신의 부인 이성례(정조24년(1800년)~헌종6년(1840년))와 함께 강원도, 경기도 부평등을 이주하다 안양3동 담배촌에 정착 교우촌을 이르며 천주신앙을 전파 하던중 천주교도가 대규모 박해를 당하고 처형된(기해사옥, 헌종5년) 1839년7월31일 서울에서 내려온 포졸들에게 압송 그다음날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배교하라는 온갖 고문과, 회유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며 온갖 형벌을 견디어내니 그 고통과 참혹함을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원래 이들 부부의 자녀중 맏아들 양업은 이미 신부수업을 받으러 마카오로 가 있으며, 어린 자녀가 5명 있었으니 겨우 15세, 12세, 9세, 6세, 3세고 그나마 젖먹이가 옥중에서 빈젖을 빨다 그만 죽고 말았다. 또한 어린 4형제는 서울 장안에 거지가 되어 동냥한 인절미떡을 사식으로 넣어주니 이 눈물겨운 전경 이야말로 참혹 하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1839년9월11일 최경환은 볼기매 50대를 맞은후 다음날 36세의 일기로 옥사하고 부인 이성례 또한 헌종6년(1840년) 1월31일 용산구 당고개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되었다. 최경환의 시신은 어린 자녀들이 거두었으나 어머니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최경환의 시신은 담배촌에 묻혔다. 최경환이 순교한 지 10년

만인 헌종 15년(1849년) 4월 15일에는 마카오로 유학갔던 최양업(도마)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사제품을 받고 13년만에 돌아와 동생들과 만나게 되며 마침내 최성환은 순교 86년만인 1925년 7월 5일 한국순교복자 79위의 한 분으로 시복(諡福)되었다가,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 신앙대회때,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에서 교황 바오로2세에 의해 聖人으로 선포받게 된다.

한편 최경환의 묘는 1930년 서울 경성교회(현 명동성당)로 천묘 되었다가 다시 양화진 성당 지하실로 옮겨지게 되고 현재 최경환이 묻혔던 담배촌 묘역은 1965년 9월 12일에 세운 기념비와 후손들이 1984년에 세운 돌비석이 있으며 기념비에는 최경환의 머리카락도 함께 봉안하였다.

묘역 아래로는 예수님의 고행을 표현한 조형물이 있어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참배하는 신앙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으며 최경환의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이성례의 세례명은 마리아이다.

최경환 성지 (동→서)

기타석조물 (其他 石造物)

기타석조물은 종별구분으로 분류된것중 별도의 종별번호가 없는 것으로 대상은 석교, 석각, 석조물 등이며.

조사자료 중 일부는 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역사성을 내포한 자료들로 대표적인 것이 신라말~고려초의 마애종과 조선시대 만안교 등이다. 그외에 석조물은 주로 각자명문과 필요한 용도에 따라 만든 조형물로, 명문의 경우 11점중 1점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불교신앙과 관련된 명문으로 신앙적 소망과 의지 또는 시주명, 기원대상의 명문표석 각자 등이다.

9점 조형석조물 또한 만안교와 창강서원지 주초석을 제외하곤 사찰과 관련된 건물초석과 감로정, 불상보개 등 전부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조사 발견되는 석조물은 대부분이 삼성산 주변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삼성산 주변은 대부분이 화강암 지역으로 주변의 화강암 재료가 각종 조형석조물의 재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조문화재중 금문의 경우는 대부분이 조사된 상태에서 탁본과 기록의 보존이 되어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나 문제는 방치된 조형석조물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 이외의 조형석조물은 대다수가 방치된 상태로 있어 나름대로의 시급한 보호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찰내부의 석조물은 자체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나 사찰 밖의 들과 야산이 아무렇게나 뒹구는 석조물은 이전되어 보호해야 마땅하다.

석조문화재란 석재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조형미술품 중 화강암의 석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의 재료가 풍부한 이유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석조문화재가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남아 있는 것으로 웅장하고 정교한 조화에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1. 마애종(磨崖鍾)

종별번호 : 0704-38-001

시　　대 : 신라말~고려초

규　　모 : 높이 4m, 폭 3m

소 재 지 : 석수동 산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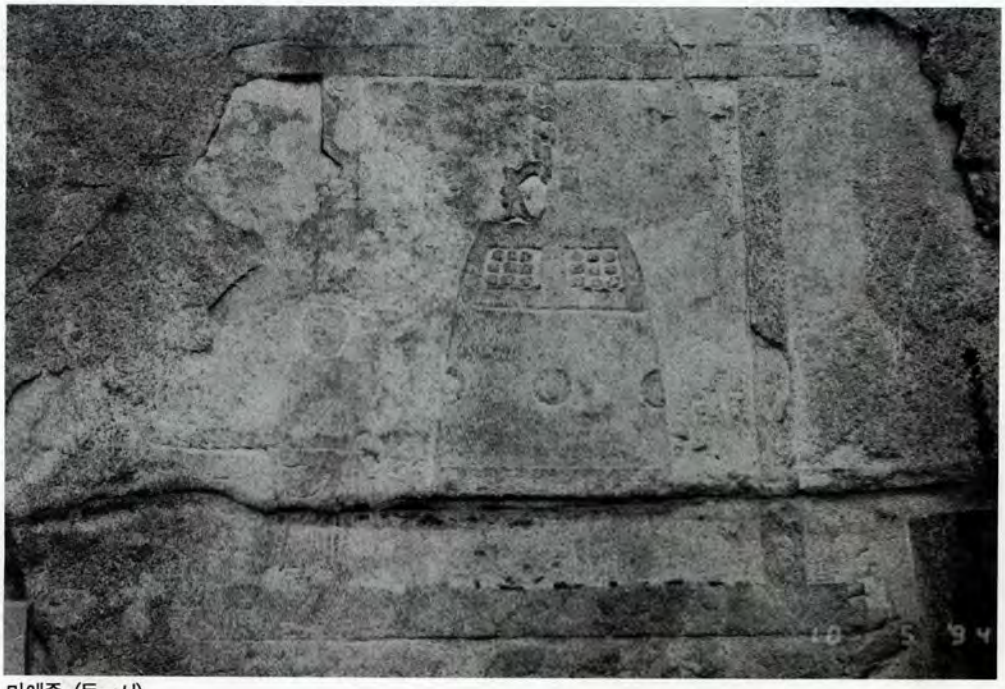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비산공원 주차장내 암벽에 새겨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 마애종은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스님이 종을 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두개의 기둥에 연결된 들보가운데 종이 매달려 있으며 들보의 좌우에는 공포가 조각되어 있다.



마애종 (동→서)

사각 연결고리와 음통을 갖춘 용뉴는 입을 벌린 용두의 전체가 아래를 향하고 있고 한마리의 용으로 표현되어 종의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 하대가 벌어진 사다리꼴 형태의 종신은 상대에 유곽의 문양이 뚜렷하며 18개의 돌출 꼭지가 표현되어 있고, 당좌는 연화문양이며, 하대가 짜임새 있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표현 방법등은 신라말내지 고려초로 추측한다.

높이 4m, 폭 3m의 암각에 얕은 음각으로 그려있으며 종을 치는 스님의 키는 102cm, 전체높이의 2.44cm 폭은 2.16cm이며 종의 높이는 123cm로 남쪽의 중초사지와 관련된 마애종으로 추측이 된다. 종은 마력을 굴복시키고 죄를 소멸하며 사찰의 새벽종과 저녁종은 세상의 온갖 생명체를 구제하는 불심의 소리로 표현된다.

이와함께 마애종의 조성연대를 신라말 고려초로 알 수 있는 몇가지 특징으로는 음통과 한마리의 용, 용두의 방향, 유곽의 위치, 명문의 유무 등으로 파악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말에 들어서며 한국 범종의 형태는 쌍룡이거나 용두가 하늘을 향해있고 음통은 없어지며, 유곽의 위치가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종의 하대에는 명문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국가나 왕실을 제외하곤 일반사찰의 경우 종제작이 자유롭지 못하며 종의 주조가 거칠고 조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의 제작이 성행된다.

2. 만 안 교 (萬安橋)

종별번호 : 0704-38-002

시　　대 : 정조19년(1795년)

규　　모 : 길이 31. 2m, 너비 8m

소 재 지 : 석수동 679

지　　목 : 하천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38호 지정된 만안교는 정조가 현릉원 참배를 위해 가설한 다리로 정조19년(1795년)에 건립되었다. 화강암 석재로 길이 31.2m, 너비 8m에 다리의 기단부는 초석이 묻혀 알 수 없으나, 홍예는 하단부터 곡선을 그린 반원형의 형태이다. 홍예는 10여개의 장대석이 원형으로 치석되어 조립하고, 하단의 맞돌은 중앙부를 둥굴게 치석 연결하여 그위에 장대석을 쌓아 노면을 형성하였다.

원래 만안교는 나무다리 이였던 것을, 당시의 경기관찰사 서유방의 감독아래 축조된 돌다리로 왕의 어가가 지나가야 했으므로 아름답고 튼튼한 홍예교로 지어진 것이다.

정조임금은 재위기간 24년중 총 12번에 걸쳐 사도세자의 릉인 현릉원을 참배하는데 만안교를 건너는 시흥로를 택한 것은 정조 19년, 즉 1795년 6번째 능행부터이다. 정조임금이 과천로를 포기한 이유는 남태령이라는 험준한 고개를 능행때마다 주변농민을 동원, 길을 고쳐야 하는 인력낭비와 수고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쌀 뒤주 속에서 8일만에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있는 김상로 형 김약로의 무덤이 노정길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로는 사도세자의 부친 영조를 왕위에 오르게 한 노론의 한사람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데,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그때 수상은 상로러니 음흉하여 세자를 뵈올적은 뜻을 맞추는 체하고 대왕께는 망극한 사색을 하여 보기

흉하더라"라고 슬픔을 적고 있다.

정조는 능 참배시마다 애절한 통곡을 하여 울음소리는 담장 밖까지 들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있어 가슴이 막히는 증세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정조의 부친에 대한 그리움은 정조로 하여금 "왕자의 나이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부친의 능이 있는 화성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나, 결국 정조는 늙으신 혜경궁만을 외로이 남긴 체 즉위 24년인 1800년 6월24일 악성부스럼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춘추 49세 이셨다. 이러한 정조의 슬픔 속에 축조된 만안교는 오늘날 효와 충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애절한 사연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안교의 원위치는 원래 200m 남쪽이었으나, 1980년 8월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현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만안교 (남서→북동)

3. 삼막사 삼귀자 (三幕寺 三龜字)

종별번호 : 0704-38-003
시　　대 : 1920년
규　　모 : 가로 213cm, 세로 106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사적비 우측에 213cm×106cm의 크기로 바위면을 다듬어 삼귀자를 음각하여 놓았다. 글씨의 크기는 왼쪽부터 높이 74cm, 77cm, 86cm이며, 「불기 2947년 경신중양 불제자 지운영 경서」란 명문이 있어 1920년 지운영이 쓴 글임을 알 수가 있다. 글씨체는 전서체의 형태로, 각자머리에 「관음몽수장수영자」라 하여 꿈에 관음보살을 본후에 글씨를 썼으며, 삼귀자 우측에는 77cm×70cm의 크기로 바위면에 시주자의 명단을 새겨 놓았다.

○ 암각문(岩刻文)

三龜字
觀音夢授長壽靈字
佛紀二千九百四十七年
庚申重陽佛弟子池蓑英敬書

○ 시주자명(施主子名)

三龜字石刻施主
光明眼李貞淑
丙辰生朴氏
光明相大覺心金東淑
戊辰生李氏光明功

삼막사 삼귀자 (서→동)

4. 삼막사 감로정(三幕寺 甘露井)

종별번호 : 0704-38-004

시　대 : 현종3년(1837년)

규　모 : 가로 332cm, 세로 287cm, 높이 24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경내에 있다. 화강암으로 조선 헌종때 김창록이라는 사람의 등에 8字가 있어 돌거북을 만들어 시주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가로 332cm, 세로 287cm, 높이 24cm 기단위에 길이 240cm, 높이 50cm의 거북이 놓여있는데 거북의 등은 1979년 이지홍 주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돌거북의 후면에는 「도광17년 정유 10월 수구대시주□」라 음각되어 있어 1837년(헌종3년)10월에 시주했음을 알수 있고 돌거북의 정면으로 감로정이라 각자된 명문 사각들이 놓여 있으며 거북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道光十七年丁酉 十月水臼大施主□

乾命金昌棻

…

○ 시주자명(중략)

…

石手元光得

化主僧善英

삼막사 감로정 (서→동)

5. 삼막사 등곡대 각자(三幕寺 燈谷臺 刻字)

종별번호 : 0704-38-00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가로 97cm, 세로 4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근세로 추정하는 작자 미상의 관악산 유람가 귀절에 「일막이막 어디가고 삼막사만 남았는가, 백련암에 다다르니 등곡골이 여기로다. 혜각존자, 학조대사 이곳에서 건성하사 세종대왕 왕사로서 흑의재상 되었구나 유언부탁 남기시어 등곡칠송 심었더니」라는 문구로 보아 등곡대 각자가 새겨진 골짜기가 등곡골임을 알 수 있다.

삼막사 백련암지 등곡대 각자 (서→동)

등곡골은 백련암지가 위치한 곳으로 등곡대 각자는 97cm×40cm의 직사각면에 정자체로 음각되었다. 등곡은 이조 연산군 시절의 중으로 호는 등곡, 또는 황악산인이라 불렀고 學祖大師로 칭했으며 안동 김씨 태사공파 11代손이다.

세종 13년(1431년)에 출생하여 출가후, 세조의 국사를 지냈으며 불경의 국어 번역과 해인사를 중수하였다. 연산군때 신비의 명을 받아 대장경을 간인하고 당나라 불교서적 남명

집을 1482년(성종13년)에 언해하기도 하였다.

광릉 봉선사와 법주사 주지를 지냈고 법주사 주변 암자인 복천암에 중종9년(1415년)에 세운 사리탑이 현존하여 80여세를 생존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곡대는 학조대사가 젊은 시절 삼막사에서 수도할 때 좌선하며 명상하던 곳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언제 누가 조성한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또한 등곡대 아래에는 바위에 신금대(神金臺)라 각자된 20cm×50cm의 음각자가 있다.

6. 망해암 애각불자(望海庵 崖刻佛字)

종별번호 : 0704-38-006

시　　대 :

규　　모 : 가로 80cm, 세로 120cm

소 재 지 : 안양2동 19번지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최인식

망해암, 관음전 좌측암벽에 각자되어 있다.

높이 10여m의 암벽 하단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120cm이며 좌측 하단에 자간 5cm크기로 글쓴이의 법명인 석두(石斗)가 명문되어 있다.

망해암 애각불자 (서→동)

7. 삼막사 암각화 (三幕寺 岩刻畵)

종별번호 : 0704-38-007

시　　대 :

규　　모 : 가로 120cm, 세로 14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사적비 뒤 바위벽 상단에 음각으로 조성된 암각화이다. 바위앞 서쪽으로 멀리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돛을 높이 올린 배가 바람과 물결을 타고 나아가며 진행방향으로는 산과 달(또는 태양)이 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도형문자가 있는데 암벽 아래에는 전에 초를 태운 흔적이 있어 암각화를 대상으로 하는 소원성취의 기원터로, 무속신앙의 의식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암각화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40cm이다.

삼막사 암각화 (서→동)

8. 삼막사 주초석(三幕寺 柱礎石)

종별번호 : 0704-38-00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60×45cm, 65×47cm

소 재 지 : 석수동 241-54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경내 사적비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놓여있다.

2기가 있으며 크기는 좌측의 높이 60cm, 지름 45cm, 우측이 높이 65cm, 지름 47cm에 8각의 형태로 주초석 중심부에 지름 20cm, 깊이 23cm 깊이의 지주 원공이 있다. 원공을 중심으로 8개의 복륜이 있고 각면에는 면상이 장식되어 있으며 삼막사내 건물의 주초석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삼막사 주초석, 평면

삼막사 주초석, 측면 (북→남)

9. 산주산왕지위각자(山主山王之位刻字)

종별번호 : 0704-38-009

시　대 :　·

규　모 : 55×17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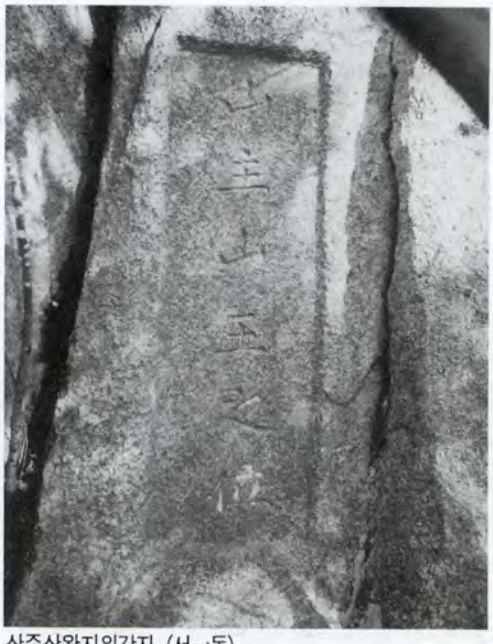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한국 불교는 토착신앙과의 자연스런 접목으로 재래신앙을 흡수하며 발전하는데, 예를들면 사찰의 부속 건물중 산신각이나, 칠성각 용신각등이 그 예라할 수 있겠다.

삼막사 칠성각 좌측에 있는 산주산왕지위각자는 삼성산의 성스러운 신령을 모시는 곳이며 55cm×17cm의 크기로 바위면을 다듬어 글자를 음각하였다. 음각된 표면의 상태를 보아 오래되지 않은 각자로 짐작되어진다.



산주산왕지위각자 (서→동)

10. 백련암지 주초석(白蓮庵址 柱礎石)

종별번호 : 0704-38-010

시　대 : 1889년이후

규　모 : 총고 95cm, 폭 3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백련암지, 백련암 기둥 받침돌로 재질은 화강암이며 사각기둥의 형태로 총고 90cm, 폭 30cm이다. 주초의 높이와 위치로 보아 백련암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데 백련암의 정면은 서향으로 정면은 높은 주초로 기둥을 세우고 뒷면인 동쪽으로는 낮은 주초로 암자를 지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련암지 주초석 (서→동)

암자의 밑으로는 석벽으로 축대를 만든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백련지(百蓮池)라고 부르는 연못에 모일 수 있게끔하여 주변의 경관과 산세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 되어진다.

우측의 삼귀자와 함께 멀리 서해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현재 주초석과 석축, 백련지의 흔적만이 남아있으며 백련지라고 각자된 바위도 1977년 대홍수때 다른 석조물과 함께 유실되었다.

11. 반월암 약사영천각자(半月庵 藥師靈泉刻字)

종별번호 : 0704-38-011

시　대 :

규　모 : 가로 76cm, 높이 22cm, 두께 3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수인

반월암내 우측 샘터에 있다. 근세의 저자미상, 관악산유람가 한귀절에 「반월암에 들어가니 약수영천 양전하고」라 하여 샘과 각자된 돌을 표현하고 있으며 크기는 76cm×22cm×30cm이다.

반월암 약사영천 각자석 (서→동)

12. 반월암 시주자명 각자(半月庵 施主子名 刻字)

종별번호 : 0704-38-018, 012

시　　대 : 1919년

규　　모 : 높이 150cm, 폭 70cm

소 재 지 : 석수동 산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수인

반월암 경내 법당뒤 암벽에 각자되어 있는데 내용은 「반월암증건대시주 이응선 기미3월일」로 폭 70cm, 높이 150cm며 1919년 3월 반월암 법당증건에 시주를 한 이응선(李應善)의 성명을 각자한 것이다.

반월암 시주자 각자 (서→동)

13. 삼성산 매바위 각자(三聖山 매바위 刻字)

종별번호 : 0704-38-013
시　　대 : 고종31년(1894년)
규　　모 : 높이 184cm, 폭40cm
소 재 지 : 산2-14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없음

삼성산 정상 국수봉 아래 매바위에 각자되어 있으며 내용은 「남무아미타불, 대청광서이십년 갑오3월일」이라 음각되었고 각자 명문 아래에는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크기는 폭 40cm, 높이 184cm로 1894년(고종31년)에 음각된 것으로, 구전에 청나라의 고승이 삼성산 정상에 올라 "천하의 명당"으로 사람이 죽은후 화장한 유골의 재를 뿌리는 "최고의 길지"라며 음각하였다고 전하여 진다.

삼성산 매바위 각자 (동→서)

14. 장석광사지 주초석(長石鑛寺址 柱礎石)

종별번호 : 0704-38-014

시　　대 : 고려~조선조

규　　모 : 높이 60cm, 지주직경 25cm, 폭 120cm

소 재 지 : 석수1동 96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없음

모두 2기가 있으며 1기는 석축 좌측에 뒤집혀져 반쯤 묻혀있고 1기는 묻혀 있는 주초석 위로 40m지점에 노출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는 주초의 기둥과 맞물리는 부분 직경은 25cm며 주초 하대는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장방형으로 절단한 뒤, 상부를 원형으로 다듬어 기둥과 맞닿는 부분을 양쪽으로 흠을 내어 고정 시키도록 다듬어졌다. 크기는 지주면 직경 25cm, 높이 60cm이다.

주변에는 각종건물 지대석이 묻히거나 노출된 상태로 흩어져 있고 장석광의 개발로 계속 사지가 파괴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사지의 조사와 석조물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석광사지 주초석 (남→북)

15. 평화보육원 석물(平和保育院 石物)

종별번호 : 0704-38-01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돌절구 높이 55cm, 맷돌높이 55cm, 망주석높이 180cm

소 재 지 : 비산1동 136

지　　목 : 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평화보육원

비산동 평화 보육원은 이조때의 향교지로 알려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으며 보육원내에 높이 55cm, 가로 55cm, 세로 130cm 크기의 돌맷돌 1기와, 지름 80cm, 높이 55cm 크기의 돌절구 1기 높이 180cm의 망주석 1기가 있다.

평화보육원 석물, 돌맷돌 (남→북)

16. 불성사 만력십팔년조 각자(佛性寺 萬歷十八年造 刻字)

종별번호 : 0704-38-016

시　　대 : 선조23년(1590년)

규　　모 : 폭 150cm, 높이 60cm

소 재 지 : 비산동 산1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홍대봉

불성사 만력십팔년조 각자석 (서→동)

불성사 만력십팔년각자는 폭 150cm, 높이 60cm, 두께 23cm로 다듬어진 화강석재에 음각되어 있으며 선조 23년(1590년)에 각자된 표석이다.

불성사 약력에 따르면 불성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그후 조선시대 선조때 서산대사(1520년~1604년)가 중창하였다고 기록된 바, 선조23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전으로 무엇을 어떻게 중창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청허대사 재창비사시절 유명만력 신팔년야(靑虛大師再創比寺時節有明萬歷十八年也)"라 하여 선조 23년 사찰중건시 표석임을 알 수가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17. 불성사 석물(佛性寺 石物)

종별번호 : 0704-38-017

시　　대 : 칠성각 표석(1926년 이후), 향석, 받침돌(근세)

규　　모 : 칠성각표석 : 높이 36cm, 향석 : 높이 60cm 받침돌 : 28cm

소 재 지 : 비산동 17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홍대봉

불성사 경내에 방치되어 있는 석물은 다음과 같다.

· 화강암향석 : 석재로 넓이 32cm, 높이 60cm, 폭23cm이다.

· 칠성각표석 : 8각의 표석물로 부러져 기단부 일부만 남아있다. 한면에 내용은 칠성각이라 각자되어 있고 반대면에는 범어가 각자되어 있다. 높이는 36cm로 하단부에 소화라는 명문이 있어 1926년(소화1년) 이후에 석조물임을 알 수가 있다.

· 고　　석 : 2기가 있으며 폭 33cm, 높이 28cm 이다.

불성사 석물, 칠성각 표석 (서→동)

18. 삼산동천각자(三山洞天刻字)

종별번호 : 0704-38-01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폭 182cm, 높이 62cm

소 재 지 : 관양동 오촌마을

지　목 : 임야

재　료 : 자연석

관 리 자 : 오병식

관양동 오촌마을 뒷산의 바위에 음각되어 있다.

오촌마을은 조선 숙종때의 문인 삼산 오익서가 거주했던 마을이며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오익서의 본관은 보성으로 자는 龍百, 호는 三山이다.

순천부사 상의 아들로 경학에 조예가 깊고 효행으로 2번에 걸쳐 능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치 않고 스스로 三山散人이라 칭한 뒤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며 일생을 보냈다. 후에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관양동 오촌말 최초의 세거자로 알려져 있으며, 생존시 마을 뒷동산 바위에 삼산동천이라 암각한 각자의 크기는 가로 182cm, 세로 62cm이며 삼산의 묘는 간촌에 있었으나 1990년 충북 조치원 연기군으로 이장하였다.

관양동 오촌마을 삼산동천 각자 (남→북)

19. 용화사 미륵불 갓(龍華寺 彌勒佛 갓)

종별번호 : 0704-38-019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총고 55cm, 폭 1.6m

소 재 지 : 호계2동 산61

지　　목 : 종교용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상덕

호계동 용화사내 미륵불 좌측에 있는 미륵불의 보개로서, 전설에 의하면 용화사 미륵불이 노파의 꿈에 현몽하여 안양역전 미나리 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때 미륵불의 갓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용화사의 미륵은 숫미륵으로 보개를 씌우면 자꾸 떨어져 미륵불 옆에 별도로 보관 하였다 하며, 재질은 화강암으로 총고 55cm, 폭은 160cm로 일부가 깨어져 있다.

용화사 미륵보개 (서→동)

20. 창강서원지주초석(滄江書院址 柱礎石)

종별번호 : 0704-38-020

시　　대 : 숙종42년(1716년)

규　　모 : 총고 46cm, 폭 47cm

소 재 지 : 호계2동 산43번지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없음

창강 서원지는 창강 조속의 서원으로 숙종42년(1716년)에 지어 고종7년(1870년)에 철폐된 곳이다.

호계동 동양나이론 우측 신진자동차학원 뒷쪽으로 주초석은 서원지에서 우측으로 30m쯤 옮겨져 있다.

화강암 재질에 총고 46cm 밑변지름 47cm이다.

창강 서원 주초석 (서→동)

21. 원태우지사 유물(元泰祐志士 遺物)

종별번호 : 0704-38-21

시　　대 : 근세

규　　모 : 돌절구 56cm×51cm×37cm, 돌맷돌 17cm×33cm×37cm

소 재 지 : 안양6동 530

지　　목 : 대지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안양시

항일운동가 원태우지사(1882년~1950년)가 제작한 석조물로, 원태우 지사가 23세 되던 1905년 11월 22일 을사조약의 원흉 이등박문에게 안양육교 부근에서 돌 세례를 하여 한국과 일본을 떠들석 하게 만든 "이등박문 투척사건"이후에 만들어진 석조물이다.

원지사는 이 사건이후 말년까지 비산동 임곡마을에서 석공으로 보냈으며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원지사의 형님 자녀 중 삼남인 계복씨를 양자로 입적하였는데, '95년 11월에 원계복씨께서 광복 50주년 및 안양시민에게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안양시 기증하였다. 원래 2점의 돌절구가 있었으나 1점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안양시에 기증한 돌절구는 높이 56cm에 구경 51cm, 밑지름 37cm이며 돌맷돌은 높이 17cm, 지름 33cm, 높이는 37cm이다.

원태우지사가 만든 돌절구 및 맷돌

기타유적 (其他遺蹟)

기타유적의 대부분이 세분화된 종별 유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대충 행궁지 관가지, 교지, 정지와, 향교지, 서원지, 주막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어느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으나 그중 안양 행궁지 및 만안교지 등은 표석을 세워 유적지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문화적 교육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창강 서원지가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곳도 서둘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안양행궁지(安養行宮址)

종별번호 : 0704-40-001

시　대 : 정조19년(1795년)

규　모 :

소 재 지 : 안양1동 674-29

지　목 : 대지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없음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화산 능행을 위해 안양1동 674-29번지 지점에 안양행궁을 설치하였다.

안양 주필소로 명칭되는 안양 행궁은 왕이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쓰기 위함이며 설치 연대는 정조가 화산능행을 과천에서 안양으로 바꾸기 위하여 만안교를 가설한 정조19년(1795년)경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평화은행이 자리하고 있으나 은행이 있기 전에는 수어장 여관이 있었으며 당시 여관을 짓기 위하여 토지주와 계약을 하던 전날 꿈에 임금이 상궁과 하인을 대동하는 꿈을 꾸고는 이터가 옛날 정조임금의 행궁터임을 알아 여관명을 "임금이 쉬어가던 곳"이라하여 수어장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정조14년 1790년에 편찬된 원행정례의 안양 주필소는 안양 행궁의 준비물로

- 대청과 방의 배설로, 채화등매 2좌, 연화방석 1립, 만화안식2좌 이상은 7년마다 개비.
- 도배는, 저유지 10권 11장, 후백지 17권, 육유택 12번지4권 백휴지 23권5장, 송연5, 명유4승, 려말4두, 이상은 10년마다 개비.
- 포우는 마제문석 10장 반관 반의반장 백문석 15장, 청목33척4촌, 세승7량6전2푼, 이상 각종은 경기감영에서 준비한다로 되어 있다.

2. 만안교지 (萬安橋址)

종별번호 : 0704-40-002

시　　대 : 정조19년(1795년)

규　　모 : 길이 31.2m, 폭8m

소 재 지 : 석수동 864-2

지　　목 : 도로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안양시

석수동 만안교에서 남쪽으로 200m지점에 위치한다.

안양유원지 입구로 가는 사거리의 교차지점 북쪽길로, 만안교지 라는 표시는 없으며 길 양쪽의 시멘트 화단에 홍예교의 그림으로 만안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남쪽에서 볼 때, 우측에 있는 삼양펄프 정문 우측이 만안교비가 있던 위치이다.

1980년 당시 만안교의 모습

1980년 당시의 만안교비 위치

3.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 男女根石)

종별번호 : 0704-40-003

시　　대 : 신라시대

규　　모 : 남근석 높이 190cm, 여근석높이 110cm

소 재 지 : 석수동 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남녀근석 (북→남)

삼막사 칠성각 옆에 있는 화강암의 석재로 자연형태의 남근석과 여근석의 모습을 갖춰 많은 사람이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일종의 성기신앙(性器信仰)으로 남녀의 성기 모형을 숭배하는 민속신앙이다. 이 신앙은 나무나 돌로 성기의 모양을 모방하여 봉안하기도 하나 암석이나 암벽에 성기나 성교장면을 조각하기도 한다. 성기신앙은 기복과 풍어, 풍농, 행운 등의 풍요한 생산을 기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동남아와 일본 등에도 산재하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그 자취를 볼 수 있어 신라시대의 각종 토기에 조형된 인물상중 유난히 큰 성기나 유방, 또는 제주도의 하루방과 강원도 강동진의 성황당에 모신 남근 등은 모두가 성기 숭배사상이다. 삼막사 남녀근석은 전설에 신라 문무왕 17년(677년),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전부터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했으며 이 바위를 만짐으로 다산신앙과 출산의 효염이 있어 4월초파일, 칠월칠석이면 많은 사람이 몰려와 기복을 빌곤한다. 지금도 남여근석에는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는 표식으로 돌에 동전을 비벼 붙히는 의식이 행하여 지곤한다.

4. 삼막사 등곡굴(三幕寺 燈谷窟)

종별번호 : 0704-40-00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높이160cm, 폭 140cm

소 재 지 : 석수동 10-1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백련암지 20m 위에 위치하며 구전에 등곡대사가 도를 닦던 암굴이라 전하여 진다. 구조는 양쪽의 바위를 이용하여 뒷면에 다듬은 할석으로 벽을 쌓고 남벽은 판석과 다듬은 돌로서 천장을 만들었다.

바닥은 평편하며 양바위 면에는 굴내부를 차단할 수 있게끔 장치된 직사각형의 홈이 파여 있다. 굴 깊이는 190cm, 내부높이 160cm, 폭은 140cm이다.

삼막사 등곡굴 (남→북)

5. 충훈부(忠勳俯)

종별번호 : 0704-40-00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석수2동

지　　목 : 대지

재　　료 : 토축 · 콘크리트

관 리 자 : 없음

조선시대 국가의 공훈이 있는 신하들이 있던 곳으로 충훈부란 관가가 있었으며 주로 지역내의 토지를 일반 농민에게 경작케 하고 가을 추수때는 도지를 받아 충훈부를 운영하였다.

현재의 석수3동 지역인 이곳은 충훈부의 흔적은 알 수 없으며 다만 마을의 명칭만은 충훈부란 자연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충훈부지 (동→서)

6. 인덕원지 (仁德院址)

종별번호 : 0704-40-006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관양동 26-11일대

지　　목 : 대지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없음

고려 조선시대 지방으로 출장가는 관리들의 숙박시설이 있는 곳을 원이라 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식 제공처이다. 인덕원은 서울과 경기 삼남지방으로 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이며 도로변에 설치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4월 3일의 난중일기에도 쉬어갔다' 라고 기록된 이곳은 정확히 언제 생겨 폐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구도로가 그대로 확장된 현재의 인덕원 사거리 부근중 전에 주막지였다는 대아장 여관 주변으로 추측된다.

인덕원지 (서→동)

7. 창강서원지 (滄江書院址)

종별번호 : 0704-40-007

시　　대 : 숙종 42년(1716년)

규　　모 : 80평

소 재 지 : 호계2동 산43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없음

동양나이론 뒷산이며 신진자동차학원 동향 100m 지점으로 조선조 숙종 42년(1716년)창강 조속(1596년~1668년)선생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그의호를 따서 창강서원을 세웠는데 고종 7년(1870년)에 철수되었다.

창강 조속은 인조때의 화가로 자는 희온이며, 벼슬은 장령에 올라 광해군 15년(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킬때 정사공신과 합류하여 공을 세웠으나 훈명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현재 창강 서원지는 사방 15~20m에 걸쳐 와편이 수습되며 서원지 동쪽 30m 지점에 주춧돌 1기가 있다. 또한 서울 외곽공사로 인한 기초보강용 흙이 쌓여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창강서원지 (서→동)

8. 삼막사 대고(三幕寺 大鼓)

종별번호 : 0704-40-008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지름 75cm, 두께 70cm

소 재 지 : 석수동 10-1

지　　목 : 임야

재　　료 : 가죽, 목재

관 리 자 : 이종성

삼막사 망해루에 있으며 전에 사찰에서 사물악기의 일종으로 쓰던 법고로 짐작된다. 지름은 75cm로 북통 주변으로 4개의 연결 쇠고리가 있으며 북통의 면에는 황포에 두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노니는 비룡의 용문이 그려져 있다.

법고는 범종, 운판, 목어와 함께 사찰의 사물악기중 하나로 법고의 울림은 육지 위의 모든 축생, 즉 발 달린 짐승을 구제하는뜻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1988년에 조사된 삼막사 소유 동산재산 목록에는 북이 인조3년인 1625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삼막사 대고

9. 상불암 암굴(上佛庵 岩窟)

종별번호 : 0704-40-009

시　　대 : 1914년

규　　모 : 높이 4m, 폭2. 10m

소 재 지 : 석수동 산4

지　　목 : 임야

재　　료 : 화강암

관 리 자 : 최성원

상불암 대웅전내에 위치한다. 사찰편 상불암에 기록된 홍선관과 지선녀의 수도처로 잘 알려진 암굴로 좌측은 지선녀의 암굴이며, 우측은 홍선관의 암굴로서 굴내부는 깊이 4m, 높이 250cm, 폭 210cm이다. 내부는 홍선관과 지선녀가 조석으로 굴 안에서 밥을 지어 먹어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남아있다.

홍선관 수도장소 (동→서)

지선녀 수도처 (동→서)

10. 향교지 (鄕校址)

종별번호 : 0704-40-010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비산1동 136

지　　목 : 임야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없음

비산1동 수푸러지 평화보육원 위에 있는 마당으로 향교의 명칭이나 규모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일제때만 해도 이곳에 와편등 향교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향교지 석조물 (남→북)

11. 퇴로정지(退老亭址)

종별번호 : 0704-40-011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비산동 315, 317번지 주변

지　　목 : 대지

재　　료 : 토축

관 리 자 : 없음

조선 선조때 우의정을 지내고 임진왜란시 삼도 도체찰사로 활약했던 심수경(1561년~1599년)이 관직서 물러나 83세때 퇴로정이란 정자를 짓고 살았다 전하며 비산국민학교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699년 저술된 〈과천현 신수읍지〉 누정조에 「퇴로정재 현서 십오리 비산동고 좌의정 덕천당 심수경정자 발구 유지」라 기재되어 정자는 심수경 사후에 폐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퇴로정지 (동→서)

12. 인덕원천 교지(人德院川 橋址)

종별번호 : 0704-40-012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길이 60m, 폭 16m

소 재 지 : 동일방직앞 관양2동~평촌동경계

지　　목 : 하천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동일방직앞 이동교로 현재는 길이 60m, 폭 16m, 교각 4개의 다리이며 그옛날 정조 임금이 수원능 참배당시 건넜던 다리로 원행정례에는 과천 시계를 벗어나 인덕원점 후천교를 지나 통과하는 다리로 기록되어 있다.

인덕원천교지 (동→서)

13. 호계교지 (虎溪橋址)

종별번호 : 0704-40-013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길이 60m, 폭25m

소 재 지 : 금성전선앞

지　　목 : 하천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호계1동 금성전선과 동창제지 사이에 위치한 다리로 길이 60m, 폭 25m 교각 4개로 1981년 4월에 준공된 다리다. 조선시대에는 호계동 마을주민들이 정월의 풍속놀이인 답교놀이를 하던 곳으로 유명하며 호계동에 위치하여 호계교란 지명이 붙었고 다리밑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효계교지 (동→서)

14. 소호정지 (嘯虎亭址)

종별번호 : 0704-40-014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소 재 지 : 호계2동 선영타운

지　　목 : 대지

재　　료 : 콘크리트

관 리 자 :

호계동 동양나이론 좌측의 선영타운이 들어선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전까지도 호계동 주민들이 활을 쏘던 지역이다.

소호정이란 명칭은 정자를 지으려고 이곳 선비들이 밤을 세우며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호랑이의 휘파람 소리가 나므로 소호정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정자는 왜정시절에 없어지고 지금은 대규모의 주택단지로 소호정의 흔적조차 알 수가 없다.

소호정지 (동→서)

15. 갈산주막지 (葛山酒幕址)

종별번호 : 0704-40-015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

소 재 지 : 갈산동 남국민학교 주변

지　　목 : 대지

재　　료 : ·

관 리 자 : ·

안양시 갈산동 남 국민학교 앞 도로의 지점으로 원행정례에 인덕원 천교에서 4리 지점으로 표시 되어있는 주막지이다. 주막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지금도 주변 지역을 갈산동이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갈산주막지 (서→동)

16. 수촌마을 당집

종별번호 : 0704-40-016
시　　대 : 조선시대
규　　모 : 약2평
소 재 지 : 수촌마을 뒷산
지　　목 : 임야
재　　료 : 자연석 · 목조
관 리 자 : 수촌마을 노인회

수촌마을 당집 (서→동)

관양동 수촌마을 당집은 마을 뒷편 관악산 줄기인 큰골산 방향 1.5km에 위치한 당집으로서 전에는 규모가 크고 초가지붕에 돌담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후 초가 지붕과 돌담은 없어지고 지붕은 기와로 교체하였다.

주변의 자연석으로 지어진 당집 내부에는 얼룩진 호랑이 그림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멘트로 된 단이 있으며, 약2평 규모로 수촌마을 도당제의 상당이라 불리우고, 마을 가까이에 하당(아랫당)과 동네중앙에는 성황님, 당나무, 수목정자나무로 불리우는 느티나무가 있다.

17. 중초사지 와당유물(中初寺址 瓦當遺物)

종별번호 : 0704-40-17

시　　대 : 신라말~고려중기

규　　모 :

소 재 지 : 안양시 석수동 212-1

지　　목 : 대지

재　　료 : 와당

관 리 자 : 유유산업

중초사지 청동용두

중초사가 위치하던 유유산업 및 주변지역에서 60년대 공장건립과 함께 주변지역을 정리하던 중 출토된 유물로서 대부분이 숫막새이며 청동그릇과 청동용두 와질토기, 전돌 등이 현재 유유산업 내에 보관되어 있다.

숫막새는 와당이 13점에 무늬없는 수키와가 2점, 문살무늬 수키와편 및 암키와편이 각 1점씩 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와편이 한 점 있다.

와당은 연화문 10점에 귀목문이 3점이 있으며 연화문 대부분이 8장의 꽃잎과 7·8·9개의 연자가 있는 단판양식이고, 두개의 자엽이 한 장의 꽃잎에 배치된 복판양식, 그리고 18장의 꽃잎과 자방주위로 9개의 자잎, 4개의 연자가 표현된 세판양식의 연화문이 포함되어 있다.

연잎이 탈락된 귀목와당은 일목으로 주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자방을 중심으로 두줄의 테두리가 표현되어 있다. 와당의 전체적인 문양특징과 중초사의 창사, 귀목문이 포함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와당은 신라말~고려중기의 사찰와편으로 짐작이 된다.

전돌은 모두 4점으로 장방형의 파선무늬전돌 1점과, 화엽무늬 및 무늬없는 장방형에 마름모꼴 전돌이 3점있고 이 밖에 용마루 끝에 얹혀지는 치미와 취두의 일

종으로 짐작되는 와편이 있으나 파손된 상태로 되어있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밖에 청동완 3점과 함께 소형의 청동용두가 있으나, 목부분이 부러져 있고, 목자루에는 용두를 고정할 수 있는 못구멍이 있어 장식적인 면과 의식용을 겸한 용도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토기편은 5점으로 작은 소래기 1점 및 대접, 완 등으로 유약은 바르지 않았으나 곱게 정선한 태토에 낮은 굽과 부드럽게 빚은 회흑색에 토기류이다.

중초사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60년대 초 유유산업과 북쪽의 기도원 및 주변 하우스지역에서 많은 양의 청동그릇과 와편이 발견 되었다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중초사지에 대한 고찰도 기본적인 이해를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검증과 구체적인 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중초사지 연화문 와당

중초사지 연화문 와당

중초사지 연화문 와당

중초사지 귀목 와당

내용누락

내용누락

내용누락

p.279-280

◇ 참고문헌 ◇

한국카톨릭대사진	최석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9
한국사 대사전	이홍식	교육도서	1990
관양지	관양동		1980
안양문화 5호	안양문화원	명지출판사	1986
한국무가	김태곤	집문당	1979
관악의어제와오늘	서울시관악구	서울출판서비스	1991
기내사원지	경기도	삼성인쇄	1988
시흥인물고	묘현동지회	삼성인쇄	1985
완주화암사실측지표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삼성인쇄	1985
안양시지	안양시		1992
시흥군지	시흥군	삼성이데아	1988
과천향토사	과천시	뿌리출판사	1993
과천현 관아지 및 관악산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 과천시		1994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진광산업사	1988
한국성씨대관	최덕교	창조사	1985
한국고고학보	한국고고학회	민족문화사	1989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민문고	1988
시흥금석총람	시흥시	삼성이데아	1988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청운당	1915
국보	박병삼외11인	예정산업사	1983
경기인물지	경기도	경기출판사	1991
향토유적총람	경기도	경기출판사	1987
경기금석대관제 7집	경기도	경인문화사	1990
지명유래집	경기도	경기출판사	1987
국어대사전	이희승	민중서림	1989
안양의 민속	김지석	안양문화원	1993
유주춘추4권	문화유씨종친회		1994
옛기와	김성구	대원사	1992
불교목공예	박찬수	대원사	1990

안양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보고서	경기도 · 명지대	명지문화사	1990
한국의 도자기	정양모	문예출판사	1991
한국의 석조미술	진홍섭	문예출판사	1995
한국의 불상	진홍섭	일지사	1993
한국의 성곽	반영환	대원사	1991
불교사전	운허용하	동국역경원	1961
한국민속대사전	한국민속사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회	1994
여지도서	국사편찬위원회		1979
경국대전	한국법제연구회	한국컴퓨터산업(주)	1993
대동금석서	아세아문화사		1979

마 무 리

문화유적총람 작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리와 정리된 내용을 효율적인 학술자료로 활용키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기초조사는 1910년 이전, 즉 선사시대 · 역사시대 · 이조말 · 근세까지의 안양권의 문화유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총정리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종별번호를 부여함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흔히 문화유적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보물이나 국보급 문화재, 오래된 고도의 웅장한 건축물 또는 고가의 동산문화재 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의외로 관심 밖의 한점 유물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릇된 견해는 바꿔져야 할 것이다.

안양의 문화에 대하여 자칫 오래된 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의 뿌리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安養이란 지명 유래와 萬安橋의 축조동기가 말하듯이 뚜렷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이 도처에 널려있으며, 특히 1990년 평촌의 개발과 함께 발굴된 평촌지역의 유적물은 안양의 오랜 역사적 주거근거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역사성이란 시대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소멸 또는 새로이 생성 추가되지만 중심적 구조의 틀은 변함없이 지속되어간다. 동질적인 생활권의 한 지역에서 과거의 생활과 문화의 형성은 어떠했는지를 불완전한 형태의 유물 한 점에서 그 뿌리와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터득할 때 그 작업은 곧, 안양문화의 주체성과 오늘날 우리의 참 실체를 느끼게 하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향하며, 오늘날에 우리는 과거를 조명함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1차적으로 문헌상의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비지정 문화재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자료를 찾는데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료의 오기와 위치, 누락된 부분 등이 발견되었으며, 일부문화재 자료는 지정되어 보호받는 것 이외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어 많은 유물과 금석문 등이 세월의 흐름과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훼손되어 있다. 또한 각종 유적지중 고

분군, 옛건물지, 옛절터의 파괴도가 매우 심각하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성격규명과 함께 시나 도차원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총람의 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안양시민에게는 누구나 쉽게 안양의 문화재를 이해하는 문화재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조사자가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관계로 중요한 사항을 빠트리거나 현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여 비약시키거나 오인한 경우도 있으리라 짐작하며 이러한 것들은 조사자의 책임으로 계속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문화유적총람이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조사과정에서 조사자 혼자의 힘으로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과 조인주 문화계장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배려하였고, 문화공보실 및 문화계 직원들에게 이모저모로 힘 입은 바가 커 지면을 통하여 고마움을 표한다.

1996. 2.

김 지 석